

## 제10편

# 문화예술·체육(文化藝術·體育)

- 제 1 장 거제문화원
- 제 2 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거제지부
- 제 3 장 시민대상
- 제 4 장 경상남도 문화상 수상자
- 제 5 장 문 학
- 제 6 장 음 악
- 제 7 장 연 극
- 제 8 장 미 술
- 제 9 장 사 진
- 제10장 축 제 및 민속보존활동
- 제11장 체 육

## 제10편 문화예술·체육(文化藝術·體育)

### 제1장 거제문화원(巨濟文化院)

#### 제1절 문화원 창립과 그 배경

1950년대 초 한국전쟁으로 피폐한 사회질서 계몽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미 문화원의 지원을 받아, 1955년에 설립되었으며, 미 문화원으로부터 지원받은 영사기와 앰프로 마을마다 다니면서 새로운 소식(뉴스)을 비롯한 문화 영화를 상영하였고, 전시 사진과 선진국의 문화, 생활 사진들을 전시하였다.

영화 상영과 사진 전시, 국민 질서 안정을 위한 앰프 방송이 주 업무였고, 주로 야외에서 많은 활동을 하였다. 처음 명칭은 거제문화관으로 하였으며, 초대 원장(관장)에 이윤섭 언론인이었다.

1961년 문화원설립준비 위원회를 발족, 임원회로 하여 문화원으로 개칭하여, 초대원장에 이윤섭씨가 추대되었다. 1962년 사단법인 거제문화원으로 한국문화원연합회에 가입, 2대에 신봉관 원장에 의해 1964년 10월 7일 문화공보부로부터 사단법인 거제문화원으로 법인 등록이 되었다.

거제군 장승포읍 장승포리 298번지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문화관을 건립하여 첫 사무실을 열었다. 1984년 거제군 장승포동 294-1번지로 이전, 1993년 현 거제시 장승포동 410-1번지로 이전, 1994년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한 거제문화원 재창립, 종전(사) 거제문화원에서 거제문화원으로 개칭, 1994년 9월 23일 문화체육부로부터 거제문화원으로 설립인가, 1999년 제29차 정기총회 개최, 9대 원장 원철희 원장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제2절 연 혁

- 1955년 거제문화관으로 창립, 창립인 이운섭
- 1956년 거제문화원으로 개칭
- 1961년 문화원 설립준비위원회 임원회로 개칭, 초대원장 이운섭
- 1962년 사단법인 거제문화원으로 한국문화원연합회 가입
- 1964년 문화공보부로부터 사단법인 거제문화원 설립허가 인가(지방문화원사업 조성법), 2대 원장 신봉관, 취임이사 8명  
본원 건물 신부동에서 중앙동(현 장승포) 294-2번지 복지회관 1층으로 이전
- 1968년 3대 원장 윤병수 취임, 취임이사 8명
- 1981년 4대 원장 옥성윤 취임, 취임이사 8명
- 1984년 본원 건물 중앙동에서 거제시 장승포동 294-1번지로 이전(건평 60평)
- 1986년 5대 원장 김한상 취임 및 사퇴
- 1987년 제17차 정기총회 개최, 6대 원장 이운섭 사퇴  
임시총회 개최, 6대 원장 윤병수 취임(2선)  
부원장 : 윤의도, 신인환  
이 사 : 제익근, 박옥자, 강공주, 이영호, 한경수, 김순남  
감 사 : 원철희, 이득만  
사단법인 거제문화원 이사 승인 및 등기필(거제등기소)
- 1988년 제18차 정기총회 개최, 제26회 옥포대첩기념제전 주관
- 1989년 제19차 정기총회 개최, 제27회 옥포대첩기념제전 주관
- 1990년 제20차 정기총회 개최, 제28회 옥포대첩기념제전 주관
- 1991년 제21차 정기총회 개최, 7대 원장 윤병수 취임(3선)  
부원장 : 이영호, 황송주  
이 사 : 원철희, 이진규, 한경수, 한종국, 윤종숙, 김순남, 김두환,  
김태진, 지옥수, 황수원  
감 사 : 윤종린, 김삼석  
제29회 옥포대첩기념제전 주관
- 1992년 제22차 정기총회 개최, 제30회 옥포대첩기념제전 주관
- 1993년 제23차 정기총회 개최, 임원 보선 및 정관 개정  
부원장 : 이영호, 옥치화  
이 사 : 윤행근, 김상욱, 정규정, 김환곤, 원용은, 배정섭, 윤도원,

윤병찬, 김근택, 김순남

감 사 : 제익근, 정창효

사단법인 거제문화원 이사 승인 및 등기필(거제등기소)

제31회 옥포대첩기념제전 주관

본원 건물 거제시 장승포동 294-1번지에서 거제시 장승포동 410-1번지  
현 장승포시의회 1층으로 이전

- 1994년 거제도설화전집 발간, 거제문화원 전시장 개관  
제24차 정기총회 개최  
9월 2일 : 임시총회 개최
  -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문화원 창립(중전 사단법인 거제문화원에서 거제문화원으로 개칭)
  - 정관 개정, 문화원 권리의무 승계
    - 9월 23일 : 거제문화원 설립인가(문화체육부장관)
    - 10월 26일 : 설립 등기제32회 옥포대첩기념제전 주관
- 1995년 본원 건물 거제시 장승포동 410-1번지 1층에서 2층으로 이전  
제25차 정기총회 개최, 8대 원장 윤병수 취임(4선)  
부원장 : 이영호, 옥치화  
이 사 : 배정섭, 정규정, 김근택, 윤행근, 김상욱, 서영구, 김순남,  
윤병찬, 주만복, 신현학  
거제문화원 이사 승인 및 등기필(거제등기소), 환상의 섬 거제도 발간  
제33회 옥포대첩기념제전 주관
- 1996년 제26차 정기총회 개최 - 감 사 : 제익근, 정도길  
거제도 3·1운동사, 거제지명총람 발간  
제34회 옥포대첩기념제전 주관
- 1997년 제27차 정기총회 개최, 제35회 옥포대첩기념제전 주관  
거제농악, 임진왜란과 거제도, 거제향토문화사 발간
- 1998년 제28차 정기총회 개최, 제36회 옥포대첩기념제전 주관  
거제의 사찰을 찾아서, 거제의 속담과 방언집 발간  
본원 건물 거제시 장승포동 410-1번지 무상 사용 승인
- 1999년 제29차 정기총회 개최, 9대 원장 원철희 취임  
부 원 장 : 정규정, 윤병찬

이 사 : 최규협, 임태성, 김근택, 노동희, 하광열, 최태열, 김일곤,  
원재희, 진영세, 신 숙

특별이사 : 이기천, 김영구

감 사 : 박춘광, 정도길

1999 신년 해맞이 축제 주최, 8, 9대 문화원장 이·취임식  
제37회 옥포대첩기념제전 주관

• 2000년 제30차 정기총회 개최

하광열 부원장 보선

거제이야기 100선 발간

거제향토사연구회 발족, 박병희 회장 외 13명

거제문화상 제정

### 제3절 임원현황 및 역대 문화원장

〈표 10-1-1〉

문화원의 임원 및 기구

임 원					고문, 자문, 연구회				회 원			사 무 국				계
원	부	이	감	소	고	자	연	소	일	특	소	총	국	간	소	
장	원	사	사	계	문	문	회	계	반	별	계	무	장	사	계	
1	2	12	2	17	4	13	14	31	382	2	384	1	1	1	3	435

〈표 10-1-2〉

역대 문화원장 현황

대 수	원 장	재 임 년 도	비 고
초 대	이 윤 섭	1955	9년
2	신 봉 관	1964	4년
3	윤 병 수	1968	4년
4	옥 성 윤	1981	3년
5	김 한 상	1986	5년
6	이 윤 섭	1987	6개월 자퇴
7	윤 병 수	1987	6년
8	윤 병 수	1993	6년
9	원 철 회	1999. 3. 15	현 재

〈표 10-1-3〉

## 문화원 임직원 현황

대 수	원 장	재임기간	이사회 및 임원	사 무 국 직 원			회 원	
				총무이사	사무국장	간 사	남	여
제9대	원철희	1999. 3. 15 ~ 2003. 3. 15	부원장 : 하광열 윤병찬 이 사 : 노동희 최규협 임태성 김일곤 최태열 원재희 진영세 신 숙 원동주 이영우 김숙정 이성만 감 사 : 박춘광 오경국	원재희	강영봉	이금주	125	122

## 제4절 주 요 업 무

제3조(목적) 본원은 지역사회의 개발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① 지역고유문화의 개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 ②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보존
- ③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 ④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 ⑤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 ⑥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 ⑦ 지역환경 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 ⑧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5절 주요 사업실적

- ①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 제1회부터 38회까지 주관
- ② 향토 사료 자료집 발간(11권)  
옥포대첩과 거제의사, 환상의 섬 거제도, 거제도 설화전집, 거제도 3.1운동사, 거제지명총람, 거제농악, 임진왜란과 거제도, 거제향토 문화사, 거제사찰을 찾아서, 거제속담과 방언, 거제이야기 100선
- ③ 거제향토사연구회 발족(문화원 부설)
- ④ 1994년 거제문화원 전시장 개관
- ⑤ 1999신년 해맞이 축제 주관
- ⑥ 거제민속놀이 팔랑개어장놀이 거제농악 발굴
- ⑦ 거제해변문학축제 9회 개최
- ⑧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음악회 7회 개최
- ⑨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연극제 4회 개최
- ⑩ 정월대보름 달맞이 기원제 1996년부터 현재까지 개최
- ⑪ 청소년 농악 경연대회 현 5회까지 개최 중
- ⑫ 전통 벚짚공예품 경연대회 현 3회까지 개최 중
- ⑬ 한글날기념 백일장 20회 개최 중
- ⑭ 각종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 ⑮ 현 찾아가는 문화원 노래자랑 개최
- ⑯ 현 거제문화학교 종합문화대학 개강  
- 스포츠댄싱교실, 서예교실, 서양화교실, 수요문화 특강
- ⑰ 거제문화상 제정 전통문화·교육문화 봉사부문 시상

## 제2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거제지부

- 소재지 : 거제시 장승포동 410-1번지
- 설립배경

8·15 광복 후, 출현한 좌익 문화단체와의 이데올로기 차이와 그 대처로 인해 민족진영의 예술계를 수호하기 위해 문총(文總: 전국문화단체 총연합회)이 1960년대까지 존속했으나, 6·25를 전후하여 정치적 사회적 혼란속에서 이완된 기능을 재규합하여 예술인의 위상정립과 함께 단체의 기능을 되살리는데 참여한 예술인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민간단체로 발족하기 위하여, 1961년 12월 5일 공보부와 문공부의 후원아래 기존 문총의 대표 30여 명이 회동하여 문총을 해체하고, 예총의 결성준비위원회가 세종문화회관에서 발의되어, 예총을 구성하게 되었다. 1962년 1월 5일 국회의사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1963년 1월 30일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았다.

구 이태리병원에 임시 회관을 마련하고, 초대회장에 유치진, 부회장 윤봉춘, 김환기, 이유선이었고, 이사 전영택, 김광섭, 김동리, 박득순, 김세중, 한규동, 조상현, 박진, 이해랑, 복혜숙, 김성춘, 송범, 임성남, 조용자, 김연수, 박귀희, 김천홍, 박시춘, 송희선, 김재철, 정인국, 강명구, 정희섭, 김조현, 이해문, 감사 조연현, 김희춘, 김영규, 사무처장 양원달 등으로 구성하였다.

한국예총 총연합회 회관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있고, 예총산하 70여개 지부가 있다.

### 제1절 예총거제지부의 창립

고려 원종 때는 왜구의 침입으로 약 151년간 거창 가조현 등지로 피난가서 살았고, 임진란으로 약 71년간 통치 부재의 섬으로 있었다. 그리고 6·25동란으로 포로수용소가 설치되었고, 많은 피난민들이 몰려 왔다. 많은 외침과 섬이란 특성때문에 토착적인 문화가 형성되지 못하였다.

1971년 거제대교가 개통된 후, 대우조선소와 삼성조선소가 들어 오면서 외지 사람들이 대거 이주하여 삶의 질을 찾는 문화에 관심이 높았다. 이 무렵 대우조선에서 근로자 자녀교육을 위해 거제고등학교를 인수하여 아주지역으로 옮겼다. 이어서 대우초등학교



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때 외지에서 온 교사들이 이 지역의 문화 예술인들과 힘을 합하여 예술활동을 하면서 예총 발기를 하게 되었다.

1993년 4월 29일 문협을 주축으로 하여 이영호, 정용원, 이승철, 연협에 최태황, 김대운, 정호영, 미협에 강성중, 박종민, 허인수 9명이 옥포 다락원에서 예총 거제지부 창립 발기인총회를 가졌다.

1993년 5월 13일 옥포농협 2층에서 한국예총 거제지부 발기인 준비모임을 가졌다. 조직 추진위원장에 이영호, 부위원장 박종민, 총무 서원숙을 선출했다.

1993년 5월 26일 박종민 부위원장의 사회로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거제지부(가칭) 창립총회를 20시 서울회관 3층 회의실에서 가졌다. 초대 지부장에 문협 고문인 이영호, 부지부장 3인으로 김한석(문협), 박종민(미협), 최태황(연협)이 선출되었다.

## 제2절 예총 거제지부 연혁

- 1993년 6월 30일 제1차 간사회, 지부인준 요구서류 구비
- 1993년 7월 19일 임시 간사회에서 지부 승인서류 보안, 사무국장에 선출된 김정효가 구비서류를 책임 작성
- 1993년 8월 2일 한국예총 거제·장승포지부로 승인
- 1993년 8월 18일 제2차 간사회 창립대회 준비 김정효 사무국장 승인 5개항 토의하다.
- 1993년 8월 28일 임시 사무실을 장승포시 장승포동 416-4로 정함.
- 1993년 8월 31일 연극협회 장상훈 고문의 기증으로 책상, 쇼파, 타자기 등 사무용품 일부 구비
- 1993년 9월 14일 현판식에 이어 창립대회 개최, 서울 김송배, 예총 사무국장, 도지회 박종갑 지회장, 통영 임종안 지부장, 시장, 군수 기관장 다수 참석(약 120명)
- 1993년 10월 26~28일 '93 향토사랑 사진순회전(3일간 예총 도지회 주최) 옥포전시관에 전시
- 1993년 거제문화원에서 음협 창립총회 개최, 지부장 김형완 피선됨.
- 1993년 12월 18일 사무실 장승포동 410-1번지로 이전
- 1993년 12월 22~30일 본회주최 주관인 93명, 책의 해 기념 고서(한문서적)전시회 개최

- 1993년 12월 29일 사무실 이전식 및 송년의 밤 행사시 배길송 회장 책걸상 1조 기증
- 1994년 1월 6일 제1차 간사회 각 지부장용 책걸상 4조 구입
- 1994년 2월 23일 장승포시청에서 강철서류함 1조 기증
- 1994년 5월 4일 극단 '예도' 소극장 개관
- 1994년 5월 7일 제32회 옥포대첩기념제전 거제문화원과 공동 주최
- 1994년 10월 18일 거제예술상 제정, 시상
- 1994년 10월 20일 가족노래부르기대회
- 1994년 10월 21~22일 글로리아 오페라단 초청공연 [원술랑]
- 1995년 제2차 정기총회 개최(거제문화원 회의실), 사무국장 최창훈 승인, 예술제 명칭 공모
- 1995년 4월 20일 예총 거제회보 제5호 발행
- 1995년 5월 5일 거제시 출범기념 국립창극단 수궁가 초청공연(거제 실내체육관)
- 1995년 6월 4일 제33회 옥포대첩제행사 거제문화원과 공동 주관
- 1995년 6월 10~11일 광복 50주년기념 국립합창단 초청공연(대우종합직업훈련원 대강당)
- 1995년 7월 9~10일 경남도 예총주최, 거제 예총주관, 경남문예진흥 세미나 및 실무진 연수회 개최(학동분교)
- 1995년 9월 5일 제2회 거제예술상 본심 심사회(지부사무실)
- 1995년 9월 15일 예총 거제지부 운영자문위원회 발기인 구성
- 1995년 10월 11~15일 향토사랑 그림순회전 개막식(문화원 전시실)
- 1995년 10월 11~15일 제2회 거제예술제 전야제(거제 자연예술랜드)
- 1995년 10월 17일 제2회 예술제 개막식
- 1995년 11월 18~19일 제3차 연수회 및 친선대회(광주 비엔날레)
- 1995년 12월 27일 제2차 예술인의 밤 및 '예술거제' 제2집 출판기념회
- 1996년 1월 26일 회보 '예총거제' 7호 발행
- 1996년 6월 22일 옥포공원 준공에 따른 국립 국악관현악단 초청공연(대우직업훈련원 다목적 홀)
- 1996년 7월 26일 동량 청마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위원회 창립총회(위원장 이영호)
- 1996년 8월 2일 제4차 회원연수: 경북 안동·영주 2일간, 영주지부와 자매 결연
- 1996년 10월 20일 제3회 거제예술제 전야제 개막식, 거제예술상 시상, 회보 '예총거제' 제9호 발행
- 1996년 10월 21~26일 작고 예술인 심포지움

- 1996년 12월 23일 거제 예술인 송년의 밤(거제 프라자관광호텔)
- 1997년 1월 29~30일 경북 영주지부 내방, 거제도 관광
- 1997년 2월 15일 동랑 청마 생가복원 건립추진위원회 정기총회(거제문화원)
- 1997년 3월 1~9일 경상남도연극제 공연(대우 다목적 홀)
- 1997년 3월 11일 지부장 취임식(이임 이영호, 취임 원신상)
- 1997년 4월 4일 청마 유치환시인 30주기 추모세미나 개최
- 1997년 4월 5일 청마 유치환시인 내외분 묘소 고향으로 이장식
- 1997년 5월 15~17일 제12회 향토사랑순회 서예전 개최(문화원 전시실)
- 1997년 6월 10일 제35회 옥포대첩기념제전 예술행사 개최
- 1997년 8월 1일 전국연극인대회
- 1997년 9월 27~30일 4일간 예술제 개막식 및 거제예술상 시상식
- 1997년 10월 1일 서울레이디스싱어즈 초청공연
- 1998년 2월 3일 제4차 정기총회
- 1998년 4월 4일 제16회 경상남도 연극제 개최(통영문화예술회관)
- 1998년 5월 8일 향토사랑 순회그림전(시청 민원실)
- 1998년 5월 12~16일 향토사랑 순회전(문화원 전시실)
- 1998년 6월 16일 제36회 옥포대첩기념제전 각종 문화 예술행사 개최
- 1998년 7월 25~26일 제9회 경남문예진흥 세미나 개최(서당골 농원)
- 1998년 8월 20~21일 동랑 청마기념 실업회 문학기행
- 1998년 10월 17일 제5회 거제예술제기념 소극장 연극축제(예도극장)
- 1998년 10월 19일 제5회 예술제 개막식 및 거제예술상 시상(수상자 최태황)
- 1998년 10월 20일 제5회 거제예술제, 문학작품 야외전시회(거제시 복지회관)
- 1998년 10월 23일 제5회 경축음악회(대우 다목적 홀)
- 1998년 10월 24일 제5회 거제 예술제기념 안숙선 국립극단 초청공연(실내체육관).
- 1999년 1월 21일 제6차 정기총회
- 1999년 3월 3일 '예술거제' 제5호 발행
- 1999년 5월 10~15일 향토사랑 순회전
- 1999년 6월 16일 제37회 옥포대첩기념제전 각종 예술행사 개최
- 1999년 9월 30일 거제예술제 '나운규의 악곡 아리랑' 초청공연(실내체육관)
- 1999년 10월 6일 거제예술제 국악공연(삼성문화회관)
- 1999년 10월 19일 제6회 거제예술제평가회(고현)
- 1999년 12월 27일 '99 송년 예술인의 밤 개최(신현 코리아 뷔페)
- 2000년 1월 28일 정기총회 개최

- 2000년 3월 6일 동량, 청마 기념사업회 정기총회
- 2000년 4월 21일 한국예총 대표자대회 거제에서 주관
- 2000년 4월 28일 문학세미나 개최 거제관광호텔
- 2000년 5월 29일 제15회 향토사랑 순회 서예전(거제시청 전시실)
- 2000년 6월 7일 미술협회 기금 마련 작품 전시
- 2000년 6월 16일 옥포대첩 예술행사 개최
- 2000년 9월 27일 거제예술제기념 경남무용단 초청공연(대우 다목적홀)
- 2000년 9월 28일 제7회 거제예술제 개막식 및 예술상 시상식
- 2000년 9월 30일부터 문학세미나, 선묵회 전시, 소극장 축제, 야외 설치 미술 및 퍼포먼스, 시낭송대회, 초중고 독창대회, 청소년 연극제, 사진 전시 등 행사
- 2001년 1월 29일 제8차 정기총회 원신상 지부장 선출
- 2001년 3월 5일 제3대 원신상 지부장 취임식
- 2001년 4월 8일 경남연극제 거제연극협회 ‘달빛 속으로 가다’ 공연
- 2001년 10월 11일부터 제8회 거제예술제 개막식 및 예술상 시상식, 국립국악관현악단 초청공연, 소극장 축제, 미술실기대회, 뚜띠 앙상블 초청공연, 시화전, 사진전시, 시낭송대회, 독창경연대회, 가을음악회, 지역작가 초대전 등
- 2001년 10월 20일 경남예술 한마당 개최(고현 매립지)

### 제3절 임 원 현 황

역대 예총 거제지부 임원현황은 <표 10-2-1>과 같다.

<표 10-2-1> 역대 예총 거제지부 임원현황

대 수	연 도	지 부 장	부 지 부 장	감 사	사무국장
초 대	1993년	이 영 호	김한석, 최태황 박종민	서원숙, 이주근	김 정 효
	1994년	”	”	”	”
	1995년	”	김한석, 최태황, 최창훈	서원숙, 오창도	최 창 훈
	1996년	”	”	”	”

대 수	연 도	지 부 장	부 지 부 장	감 사	사무국장
제2대	1997년	원 신 상	김한석, 최태황, 신현수	서원숙, 오창도	최 창 훈
	1998년	"	이성보, 최태황, 신현수	김형대, 강영봉	"
	1998년	"	"	"	김 정 희
	1999년	"	이성보, 최태황, 허인수	최창훈, 권강래	"
제3대	2001년	원 신 상	최태황, 최창훈, 허인수	오경국, 이삼우	김 정 희

## 제4절 거 제 예 술 상

거제예술상은 거제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공이 많은 사람을 선정하여, 거제 예술행사 기간 내에 예총 거제지부에서 시상하며 연도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표 10-2-2〉

### 거제예술상 시상자 현황

회 수	수 상 자	수 상 분 야	수 상 일 자
제 1 회	김 현 봉	서 예 가	1994. 10. 18
제 2 회	이 윤 섭	시 인	1995. 10. 17
제 3 회	강 성 중	서 양 화 가	1996. 10. 20
제 4 회	이 영 호	시 인	1997. 9. 29
제 5 회	최 태 황	서 양 화 가	1998. 9. 28
제 6 회	허 인 수	서 예 가	1999. 9. 28
제 7 회	구 자 옥	한 국 화 가	2000. 9. 27
제 8 회	최 창 훈	음 악 가	2001. 10. 20

## 제3장 시 민 대 상

아름답고 살기좋은 내 고장을 세계속으로 발전시키는데, 사회 각 부문에서 기여한 공적이 있고, 그 업적이 귀감이 되는 자랑스런 시민을 발굴하여 거제시민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있음.

### 제1절 시상종목 및 심사

- 시상부문 : 교육문화, 체육진흥, 사회복지, 산업경제, 지역개발, 지역안정
- 추천과정
  - 시정 소식지 및 관내 지역신문에 추천공고
  - 거제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기업체의 장과 읍면동장, 출장소장, 재외 향인회장 및 시민이 추천함.
- 심사과정
  - 거제시민상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호선)
- 수상자 심사 결정방법
  - 심 사 : 수상 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참석위원 전원이 시상 부문별로 심사하여 무기명 투표
  - 결 정 : 심사위원 전원의 2/3이상의 득표자에 한하여 수상하고, 2/3이상 안될 시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결정
- 시상일 : 매년 시민의 날 행사시 시상

### 제2절 역대 수상자

역대 거제군민 및 거제시민 수상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0-3-1〉

## 거 제 군 민 수 상 자 현 황

대수	수상자	직업	생년월일	주소	수상장소 및 일시	공적내용	시상금
1회 (89)	신봉권	前경남도관재과장	'07.10.21	신현읍 고현리 194-8	운동장 '89.10.28	문화유산 보존헌신	금메달 20돈
2회 (90)	신용균	前거제군교육감 재건운동거제군축진회장	'12. 8.14	하청면 하청리 71	운동장 '90.10.27	향토문화예술 발전기여	"
3회 (91)	김임순	애광원장	'25. 3.20	장승포동 산 64-8	운동장 '91.10.26	주민복지증진 심신장애자 수용시설운영	금메달 20돈
4회 (92)	옥치상	前 거제군교육장	'12. 1. 7	신현읍 고현리 687-1	운동장 '92.10.23	지역교육발전 헌신	"

〈표 10-3-2〉

## 거 제 시 민 수 상 자 현 황

대수	시상 부분	수상자	직업	생년월일	주소	수상장소 및 일시	공적내용	시상금
'97년	교육 문화	박충길	前경남도교육위원	'34. 3. 1	신현읍 고현리 471-1	운동장 '97.10.26	교육발전	금메달 20돈
"	체육 진흥	박기용	체육회 부회장	'58. 2. 8	옥포2동 1289-1 한신 @ 107/302	운동장 '97.10. 1	체육진흥	"
"	지역 안정	강승남	경찰	'43. 9.13	옥포동 542-14	운동장 '97.10. 1	지역안정	"
'98년	교육 문화	김상욱	前 사등면장	'24. 1.10	사등면 지식리 1058	운동장 '98.10. 1	교육발전	"
"	체육 진흥	김형식	前 거제대우병원장	'29. 7. 8	옥포동 1629 로우하우스 2/3	운동장 '98.10. 1	체육진흥	"
"	지역 안정	고광덕	경찰	'49.10. 8	옥포동 510-21 수정빌라 301	운동장 '98.10. 1	지역안정 사회질서 확립	"
'99년	교육 문화	진수진	前 거제시교육장	'35. 7.15	거제면 외간리 932	운동장 '99.10. 1	교육문화 창달	"

대수	시상 부분	수상자	직업	생년 월일	주소	수상장소 및 일시	공적내용	시상금
2000 년	지역 개발	이창호	외도 해상 관광농원대표	'37.12.20	일운면 와현리 산 109	운동장 2000.10. 1	지역개발 관광산업 육성	"
2001 년	사회 복지	김말순	민들레집 원장	'27.11.11	장승포동 426-59	운동장 2001.10.21	사회복지	금메달 20돈
	산업 경제	김한운	수산업	'34. 9.28	장목면 장목리 319-17	운동장 2001.10.27	산업경제	"



## 제4장 경상남도 문화상 수상자

### 제1절 양달석(梁達錫)



- 문화상부문 : 미술
- 수상년도 : 1962년 1월 1일 미술부문 제1회 경상남도 문화상 수상
- 년 보 : 1908년~1984년
- 본 적 :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성내마을 815번지
- 주 소 : 부산시
- 본 관 : 남원양씨, 호는 여산(黎山)

#### 1. 학력 및 경력

- 1924년 통영사립강습소 1학년 입학
- 1925년 통영공립보통학교 3학년에 편입
- 1926년 김천에서 열린 조선소년전에 <통영>을 그려 최우수상 수상
- 1927년 5학년 때 진주농업고등학교에 입학그림을 그려 용돈을 마련
- 1929년 일본 중등미술전람회에 <농가>라는 작품을 출품, 특선
- 1929년 22세 때 진낙선과 결혼
- 1932년 가을 조선미술전람회 서양화부문에서 첫 입선을 한 후 동경유학, 유학 생활에서 행인의 초상화를 그리며 고학
- 1935년 고향 사등면 사무소 근무
- 1938년 제17회 조선미술전에 50호짜리 <관대패>를 출품
- 1939년 제18회 미술전에 <가두의 예술단>을 출품하여 호평을 받음
- 1940년 조선미술전에 <목동> 40호 그림을 출품
- 1941년 동경공업기술학교 제도과 1학년에 입학, 제도학 공부를 시작
- 1943년 제11회 동경독립미전에 출품, 입선.(35세)
- 1945년 조국해방의 가을 조선미술동맹산하 부산미술동맹을 조직.

- 1946년 3.1절기념 미술전과 동시에 부산미술동맹의 첫 회장에 피선
- 1950년 6.25 한국전쟁이 터지자 해군 종군기자
- 1953년 부산에서 해군 종군기자 양달석 개인전
- 1958년 부산시미술협회 부회장 겸 문충 부산지부장 겸직
- 1960년 서울에서 2번째 개인전
- 1962년 제1회 경상남도(부산직할시 이전) 문화상 수상
- 1961년 5.16 군사정부 탄생을 기해 부산, 대구, 마산, 광주에서 개인전
- 1973년 한국 현대미술관에서 개인전

## 2. 총 평

서양화가 양달석은 (소와 목동)을 그리는 화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36회의 개인전과 합동전을 가졌다. 경상남도 부산미술협회 지부장과 문충 지부장 겸직, 경남상업학교 미술교사, 한국전쟁 때는 종군기자로 활약, 제1회 경상남도 문화상 수상, 부산시장의 미술전 수상 등 많은 수상경력이 있다. 50여 년에 걸쳐 2,600여 점의 그림을 그렸다. 그의 대표작은 <목동>, <고향>, <통영>, <연꽃>, <풀밭>, <농가>, <광대패와 풍년>, <가두의 예인단>, <앵금타는 여인>, <산촌의 가을> 등이 있다.

1984년 향년 76세로 타계하였다.

## 제2절 김기호(金琪鎬)



- 문화상부문 : 사회교화(社會教化)
- 수상년도 : 1963년 1월 11일 제2회 사회교화부문 경상남도 문화상 수상
- 연 보 : 1912년~1978년
- 본 적 :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786-7141
- 주 소 : 위와 같음
- 본 관 : 김해김씨, 호 무원(無園)

○ 연보(年譜) (1912~1978)

본관(本貫) 김해(金海), 시조(始祖) 김수로왕(金首露王) 73세손(世孫), 중조(中祖) 목경공(牧卿公) 김녕군(金寧君)

1912년 9월 10일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사환마을 459번지에서 아버지 김종선(金鍾善)과 어머니 칠원윤씨의 3남 2녀중 장남으로 태어남.

## 1. 학력 및 경력

- 1912년 하청면 사환에서 출생
- 1930년 3월 5일 전주이씨 부인(李貞夫)과 결혼
- 1932년 중앙일보에 수필 [동생] 발표
- 1933년 3월 5일 동래 공립고등보통학교 5학년을 졸업하고, 이어서 경성사범학교 연수과에 합격하여 교사의 길로 들어섬.
- 1935년 3월 23일 2학년을 졸업하고, 그해 3월 31일 부산수영보통학교 훈도(교사)로 발령 받아 4년 근무
- 1935년 9월 30일 남부민공립보통학교로 전임되어 5년 근무
- 1944년 9월 4일 부산 좌천 우편국 근무
-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 왔다.
- 1946년 8월 13일 하청고등공민학교의 사학재단을 설립하고, 35세의 젊은 나이에 초대 교장으로 취임
- 1950년 6월 25일 6·25 동란으로 피난민이 몰려와서 그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위해 중학교 설립을 결심.
- 1951년 9월 25일 하청중학교 창설, 교장 취임
- 1952년 1월 1일 육영일지(育英日誌) 자진육년(自進六年) 발간
- 1953년 4월 12일 하청 사립고등학교의 인가를 받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장직을 겸임.
- 1953년 12월 23일 거제의 노래 작사
- 1954년 6월 4일 경상남도 교육위원으로 선임되어, 도내에서 처음으로 사학교육을 위한 하청중고등학교를 창립·개교.
- 1955년 2월 5일 부인 별세
- 1955년 동아일보 35주년 기념 현상문예에 시조 [옹화부] 당선
- 1956년 2월 16일 황인아(黃仁牙)와 재혼
- 1957년 1월 1일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조 [靑山曲] 당선
- 1958년 옥포 기념탑에 자작시 각인
- 1960년 2월 10일 하청고등학교를 거제농업고등학교로 개칭, 교장 취임
- 1963년 홍조 소성훈장 수훈(제840호, 대통령)

- 1963년 경상남도 제2회 문화상 수상
- 1964년 4월 14일 부친 별세(金鐘善)
- 1965년 제1회 경향교육상 수상
- 1965년 10월 5일 시조집 [風蘭] 간행
- 1967년 10월 30일 시조 서예전 개최(서울)
- 1973년 1월 1일 거제농업고등학교를 거제종합고등학교로 개칭, 교장 취임
- 1973년 시조문학지에 회갑 특집 작품 발표
- 1975년 한글 초서(草書) 국한조화체(國漢調和體) 발표
- 1978년 2월 26일 정년 퇴임
- 1978년 12월 4일 별세 [묘지 : 하청면 실전리 사환 망등산(望燈山) 선영하(先塋下)]

## 2. 총 평

무원 김기호는 교육자, 서예가, 시인으로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의 독특한 한글 초서체는 서예한글의 독보적인 필법을 개발하였다. 신용균(辛容均)씨가 거제교육감으로 있으면서 거제의 노래를 공모했는데, 무원선생의 거제노래가 당선되었다. 겸손과 예절을 바탕으로 한 교육자로 몸소 실천하는 선비적인 기상이 있었다. 시조시인으로 <풍난>시집을 발간하는 등 문학활동이 돋보였다.

## 제3절 김임순(金任順)



- 문화상부문 : 사회교화(社會教化)
- 수상년도 : 1966년 제5회 경상남도 문화상 수상
- 본 적 : 경북 상주시 신봉동 2031번지
- 주 소 : 거제시 장승포동 521-4번지
- 생년월일 : 1925년 3월 20일생

### 1. 학력 및 경력

- 1940년 3월 경북 상주 북정심상소학교 졸업

- 1944년 3월 김천고등여학교 졸업
- 1949년 7월 이화여자대학교 가정대학 졸업
- 1952년 11월 애광영아원 창설, 원장(현재)
- 1958년 4월 애광직업보도소 창설(15년간)
- 1963년 8월 경남농촌진흥원회 위원(9년간)
- 1967년 3월 애광유스호텔 개설(한국 1호)
- 1969년 8월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4년)
- 1970년 2월 애광기술학교 개설(5년)
- 1970년 9월 애광탁아소 개설, 소장(현 옥수어린이집)
- 1971년 11월 거제도기독교병원 개설(7년)
- 1972년 10월 장승포협동조합 창립멤버
- 1974년 3월 거제군여성단체협의회 회장(16년)
- 1975년 5월 장승포어린이도서관 설립, 관장
- 1980년 3월 거제애광중학교(정신지체아 특수학교) 설립
- 1980년 12월 재거이화동문회 회장(10년)
- 1983년 1월 거제시민방위교육훈련원 교관
- 1985년 10월 이화 베스트 100인 선정(이화여대 100주년 기념)
- 1986년 10월 장애인 요양시설(민들레집 개설)
- 1988년 7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거제지부 개설 소장
- 1989년 3월 장승포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2년)
- 1990년 3월 한국기독교장로회 경남노회 부회장
- 1990년 8월 거제 YWCA 창설
- 1990년 9월 한국기독교장로회 유지재단 이사
- 1992년 4월 NCC장애인운동위원회 위원장
- 1994년 3월 거제경실련 상임고문
- 1995년 2월 거제문화재단 이사
- 1995년 3월 거제환경연합회 거제기독교실천연합회 공동대표
- 1996년 3월 거제개발 정책자문위원

## 2. 상 훈

- 1963년 8월 공익표창 수상(대통령 제109호)
- 1965년 7월 제4회 향토문화공로상 수상(상록수상 문화공보부장관)
- 1966년 5월 제5회 경남문화상 수상(사회교화부문)
- 1970년 8월 국민훈장 석류장 수훈(제79호)
- 1971년 10월 용신봉사상 수상(전국여성단체협의회 제10호)
- 1972년 10월 보건사회부장관 표창
- 1976년 5월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90주년 사회부문 공로상 수상
- 1979년 7월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제1회 공로상 수상
- 1983년 10월 내무부장관 표창
- 1983년 10월 대한적십자사 박애장 은장 수상
- 1989년 8월 막사이사이상 사회지도부문 수상
- 1989년 11월 이화여대 가정대학 60주년 봉사상
- 1991년 4월 대한정신박약애호대상 수상
- 1991년 10월 거제군민 대상 수상
- 1994년 3월 제4회 호암상 사회봉사부문 수상
- 1995년 12월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인권옹호)
- 1996년 12월 경남매일 사회복지대상 수상
- 1997년 5월 이화여대 창립 111주년 제3회 자랑스러운 이화여인상 수상
- 1998년 10월 경남을 빛낸 여성상 수상

## 3. 총 평

김임순 여사는 6.25동란 때, 20대의 젊은 나이로 거제도에 와서 애광원을 개설하여, 전쟁으로 인한 고아와 신체 장애인을 돌보는 사업으로 일생을 바쳤다. 불우한 사람들을 돌보고, 장애인의 교육시설과 의료시설을 운영하여 사회에서 버림받는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정열을 쏟았다. 여성복지를 위한 여성운동과 사회복지운동 등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그의 공적으로 국민훈장을 비롯하여, 막사이사이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 제4절 김기용(金琪容)



- 문화상부문 : 지역문화개발(地域文化開發)
- 수상년도 : 1981년 제21회 경상남도 문화상 수상
- 연 보 : 1915년~1988년
- 본 적 :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사환마을
- 주 소 : 위와 같음
- 생년월일 : 1915년 4월 20일
- 본 관 : 김해김씨, 호 향파(香坡)

### 1. 경 력

- 1932년 난 재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난을 키우기 시작함.
- 1946년 농촌 진흥운동과 동양난 배양에 전념
- 1978년 10월 25일 마산 가야백화점에서 김종규 애란인과 동양난 전시
- 1981년 5월 12일 거제애란회 창립
- 1981년 10월 20일 동양난 재배와 감상 출판
- 1982년 12월 21일 제21회 경상남도 문화상 수상
- 1983년 10월 15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비영리사업으로 거제서예학원 개설, 원장
- 1988년 11월 16일 타계(他界)
- 1991년 12월 14일 제2회 한국난 문화대상 추서(追敘)

### 2. 상 훈

- 1982년 12월 21일 경상남도 문화상 수상
- 1998년 3월 29일 전국 28개 애란단체에서 애란비 건립

### 3. 총 평

김기용씨는 애란가로 난의 재배와 기술에 대한 보급과 난 사랑으로 일관해 왔으며, 농촌 계몽운동과 향토문화 예술의 발전을 위해 비영리적인 사업으로 거제서예학원을 개설하여 원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서예인을 배출시켰다.

## 제5절 박충길(朴忠吉)



- 문화상부문 : 사회교화(社會教化)
- 수상년도 : 1988년 제27회 경상남도 문화상 수상
- 주소 :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471-1번지
- 생년월일 : 1924년 3월 1일

### 1. 경 력

- 운룡(雲龍)국민학교 교사(3년)
- 장승포국민학교 교사(8년)
- 거제군교육청 장학사(14년)
- 계룡국민학교 교감(3년)
- 충무시교육청 장학사(3년)
- 장평국민학교 교장(3년)
- 1989년 8월 31일 정년퇴임
-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현재)
- 거제시인사위원회 부위원장
- 거제시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현재)
- 생활체육협의회 경상남도 이사
- B.B.S연맹 경상남도 이사
- 대한삼락회 경상남도 고문
- 경상남도 민방위훈련 교관
- 거제시체육회 고문
- 4H클럽거제시후원회 회장
- 장승포경찰서 치안협력 원로위원
- 거제문화원운영위원회 자문위원
- 거제군교육회장



- 국제인권옹호연맹 장승포시·거제군 지부장
- 새마을경상남도지부 거제군 새마을지도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시군위원장협의회, 경상남도협의회 회장
- 건강동우회 초대 회장
- 신현읍번영회 고문
- 민족통일거제시협의회 회장

## 2. 상 훈

- 국민훈장목련장(대통령)
- 경남교육대상(경상남도교육감)
- 경남문화상(경상남도지사)
- 경향師道賞(경향신문사)
- 모범공무원
- 교육장상 3회, 경상남도지사상 2회
- 국무총리상 2회, 교육부장관상 2회
- 모범선거관리위원(중앙선거관리위원장) 2회
- 年功賞(대한교육단체연합회 회장)
- 거제시 신현읍민상(읍장)
- 사회봉사상(거제청년회의소)
- 거제시민상(거제시장)

## 3. 저 서

- 교단회고(敎團回顧) “외길을 돌아보며”

## 4. 총 평

6. 25 동란후, 피난은 사람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 교단에 뛰어들어 후세교육에 일생을 몸바쳐 왔고, 특히 향토 발전과 시민건강 증진에 많은 공헌을 했다.

## 제6절 이성근(李成根:筆名 李承哲)



- 문화상부문 : 지역문화(地域文化)
- 수상년도 : 1998년 12월 경상남도 문화상 수상
- 연 보 : 1940년~
- 본 적 : 합천군 대양면 양산리 155번지
- 주 소 :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81-16
- 생년월일 : 1940년 10월 15일
- 본 관 : 경주이씨, 호 東溪, 鷄岩, 靑坡

### 1. 학력 및 경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1970년 2월 17일~1998년 12월 31일(29년) 거제시 문화공보실 근무
- 1982년 경남민속연구회 이사
- 1990년 <시와 의식> 수필 신인상
- 1991년 <수필문학> 수필 신인상
- 1991년 한국수필문학회 회원
- 1991년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 1992년 한국문인협회 회원
- 1993년 한국사협 통영지부 부지부장
- 1993년 <한맥문학> 소설 신인상
- 1995년 마산MBC방송국 시청자위원
- 1998년 <한국시> 시인신인상
- 1998년 경남수필문학회 회장
- 1999년 경남문학 감사
- 1999년 거제수필회 회장
- 1999년 거제사진작가회 회장
- 2001년 바다살리기시민연합 상임위원

### 2. 상 훈

- 1974년 7월 29일 지역사회 발전상(거제군수 6회)
- 1983년 8월 26일 평화통일기원 공로포상(평통회장)
- 1983년 12월 31일 문화재지정 발굴공로상(문화재 관리국장)
- 1985년 5월 25일 목민상(행정동우회 회장)
- 1989년 12월 15일 독로문화제 발굴육성상(독로문화제 대회장)
- 1989년 12월 16일 향토문화상(청년회의소)
- 1989년 12월 31일 문화재발굴 육성보호상(문화재 관리국장 3회)
- 1992년 12월 31일 문화재관리 우수 공무원상(경상남도지사)
- 1995년 국민 안보의식 고취(내무부장관)
- 1997년 12월 8일 문화유산 보존관리(문화체육부장관)
- 1997년 12월 27일 경남 사진예술상(사협 경남지부장)
- 1998년 3월 20일 향토 민요발굴 민요집 발간 공로(동아대학 총장)
- 1998년 5월 1일 거제역사 재조명 문화선양 공로상(경상남도지사)
- 1998년 12월 24일 경상남도 문화상
- 2000년 11월 9일 경상대학 총장상
- 2000년 11월 18일 통일안보 대상, 팔각회 회장상
- 2000년 12월 8일 효당문학상 수상

### 3. 저 서

- 1) 내고장 전통, 거제편(1980년, 한일출판사)
- 2) 역사의 한시집(1988, 아카데미출판사)
- 3) 전통혼례(1989년, 아카데미출판사)
- 4) 환상의 섬, 거제도(1995년, 한섬출판사)
- 5) 거제도 민요집 출판(1997년, 경남인쇄협동조합)
- 6) 독로국 고찰(논문집)(1997년, 신성출판사)
- 7) 한려수도 칠백리(1997년, 신성출판사)
- 8) 가을바다 해조음(2002년, 성진출판사)

### 4. 영상제작

- 1975년 16mm 새 거제 80분 칼라판

- 1979년 8mm 밝아오는 새 거제 25분 칼라판
- 1990년 VIDEO 밝아오는 새 거제 25분 칼라판
- 1993년 VIDEO 포로수용소 10분, 20분, 30분 흑백판 편집

## 5. 총 평

문학인으로, 사진작가로, 향토사학자로, 30여년간 거제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문화재 발굴과 지정, 관광지 소개 등 향토문화 육성에 헌신해 왔다. 특히, 포로수용소 복원과 거림리 유적지 발굴, 아주동 고분군 발굴로 새로운 거제 역사를 정립하였고, 문화재에 대한 애착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오량성 보호구역 및 사등성 보호구역 보존을 위해 국도(國道)가 보존구역 내에 개설되고 있는 것을 보호구역 밖으로 이설하는 등 문화재 보호와 거제관광의 길잡이로, 거제향토사 연구소장으로, 향토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 제5장 문 학(文學)

### 제1절 거제문학사의 전개

문학은 언어예술이다. 언어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다른 예술과 구별된다. 예술이라는 점에서는 언어활동의 다른 영역과 차이점이 있다. 문학이라 하는 문(文)은 글을 뜻하고, 학(學)은 예술성이 있는 문장(文章)이다.

문학은 말로 된 것이던 글로 적은 것이던 언어(言語)예술이다. 문학과 예술이 구별되지 않았을 때 문학이란 용어가 생겨 혼란이 생겼으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예술활동은 문학이라 하고, 학문활동은 문학연구라 한다.

이이(李珣)는 사람이 내는 소리로 뜻을 가진 글과 상념적인 주관성을 글로 나타낸 것, 그리고 쾌감을 주고 도리(道理)에 합당한 것을 문학이라 했다. 문학은 고전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으로 구분하였고, 서정(抒情), 서사(敘事), 교술(交述), 희곡(戲曲)으로 분류하였다.

서정적인 것은 서정민요, 서정무가, 한시일반, 사(詞), 고대가요, 향가, 고려속요, 시조, 잡가, 현대시 등이다. 교술적인 것은 교술민요, 교술무가, 속담, 수수께끼, 사(辭), 부(賦), 한문일반, 가전(假傳), 몽유록(夢遊錄), 시화(詩話 : 朗讀), 만록, 경기체가, 가사, 창가, 수필, 서간, 기행, 일기, 문학비평 등이다. 희곡적인 것은 탈춤, 꼭두각시놀음, 무당굿놀이, 창극, 신파극, 현대극 등이다. 상고시대의 문학은 건국 신화에서부터 삼국시대의 광개토태왕능 비문(414년), 을지문덕(乙支文德)이 수나라 장수에게 시로서 외교를 하였던 외교문, 정읍사(井邑詞), 처용가(處容歌) 등이 있다. 정서(鄭敳)의 정과정곡(鄭瓜亭曲)은 국문학의 시초가 된다. 한림별곡(翰林別曲), 관동별곡(關東別曲)에 이어, 1443년에 세종 임금이 훈민정음을 이룩한 후부터 국문학적인 문학으로 발전하였다. 용비어천가(1445년), 월인천강지곡(1448년) 등의 가사집이 우리 삶의 한편을 보이게 하는 문학성을 가지고 있다.

1576년 안민학(安敏學)이 자기 부인에게 보낸 어문편지가 산문적인 것이다. 거제에 문화예술(文化藝術)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다. 고려시대 이전에도 『삼』의 문화가 있었으리라고 믿어지나, 문헌(文獻)이나 구전(口傳)에서 찾을 길이 없다.

더구나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개화(開化)를 본 우리 거제도(巨濟島)는 다시금 임

진란(壬辰亂)을 겪음으로서 반세기동안 문화부문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쳐 아무런 기록이 없다. 이는 너무나 참혹한 큰 인적(人的), 물적(物的)인 전화(戰禍)를 입은 증거로서, 거제도민이 입은 상처가 좀처럼 가시지 못했음을 말한 것으로 특히, 문화면은 하나의 건축(建築), 한 장의 글마저 올바르게 남겨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화 그대로 불모지 세대화(不毛地世帶化)하였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가히 짐작되고 남음이 있다 하겠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축적되어 감으로써 문화의 불모지대(不毛地帶)에도 한 포기, 두 포기 푸른 문화의 싹은 트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200년 가까운 세월을 두고 잉태(孕胎)의 고통과 출산(出產)의 긴 준비기간이 필요했던 그 당시, 본도(本島)의 사회적(社會的) 형태와 입지적(立地的) 조건을 따져 본다면 여러가지로 나누어지겠지만, 이것은 본도 연구의 중요한 과제로 후일로 미루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동안 본도(本島)는 문화를 소유할 수 있는 시민사회(市民社會)의 구성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본도 문화활동의 주요한 것만을 추려 연대순으로 기술(記述)하여 보면, 1664년 현종(顯宗 5년) 현령(縣令) 이동구(李東耆) 때에 향교(鄕校)가 창설되었고, 1698년 숙종(肅宗 24년) 현령(縣令) 차의런(車義 ..) 때에 유양각(惟揚閣)이 건립되고, 1740년 숙종 30년에 유림(儒林)의 흥세(興世)를 자랑하는 반곡서원(盤谷書院)이 고고(呱呱)의 소리를 지르고 탄생하였던 것이다. 이어 1707년 현령(縣令) 윤의태(尹以泰) 때에 제승정(制勝亭)이 건립되었으며, 1711년 숙종 37년 현령(縣令)이 부사(府使)로 승진되어 첫 부사 변진영(邊震英)이 운주루(運籌樓)를 지었다. 그리고 1715년 숙종 40년 부사 양헌석(楊憲奭)이 허물어져 가는 향교를 이건(移建)하고, 1727년 영조(英祖 30년) 때에 부사 오성재(吳盛載)가 대변정(待變亭)을, 1773년 영조 49년에 부사 윤수인(尹守仁)이 진남루(鎭南樓)를 각각 지어 계속 문화시설이 정비되었다.

이것을 보면, 약 1세기동안 향교(鄕校)가 공립교육을 뒷받침하고 터전을 이룬 것이 거제문화의 황금시대라고 불리어 질 수 있는 절정을 고비로 하고, 사학(私學)의 권위(權威)인 반곡서원(盤谷書院)의 창건이 개화(開花)의 결실을 의미하는 문화의 최 전성시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반곡서원 창설을 전후하여 정(亭)·루(樓)가 다투어 설립됨으로 당시 거제도민의 양양(昂揚)된 문화적 의욕과 거기에 따른 지방의 교육열에 수반하는 경제적 뒷받침이 혼연일치(渾然一致)되어, 하나를 중심하여 원(圓)을 그리면서 번져 나갔다. 이러한 계기가 마련된 것은 역시 숙종(肅宗) 말년 부터이다.

『섬』이라는 배경 위에 이루어진 문화유산도 뒤를 이어 받들어 주는 받침이 없으므로 인하여 파손, 분실, 회진(灰燼)되어 유지되기 어려웠다. 여기에 수록된 것은 옛 문헌 혹은 구전에서 얻어진 향토의 문화예술의 여향(餘香)임을 말하여 둔다. 송유배불(崇儒排

佛) 정책을 국시(國是)로 한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거제에서도 어느 지방에 지지 않는 문화의 개화를 이루어 많은 학자와 문인이 나왔다.

숙종 때 출사하고 있던 김세명(金世明)이 입거하고 난 뒤부터 본격적으로 학단의 움직임이 보게 됨으로써 비로소 거제의 문학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풍운저미(風雲低迷)한 중사정계(中史政界)로부터 본도에 유배된 이름난 정객(政客), 학자(學者), 선비들이 남겨 놓았다.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죽천(竹泉) 김진규(金鎭圭)선생을 위시하여, 몽와(夢窩) 김창집(金昌集), 비석 민진요(閔鎭遼), 삼호(三湖) 이중협(李中協), 계산(溪山) 김수은(金洙銀), 최숙생(崔淑生) 등 여러 선비들이 직접·간접적으로 남기고 간 문화의 유산을 받은 지방문단의 활동은 자못 눈부신 바가 있었다.

우암선생을 사숙(私淑)하여 성리학(性理學)을 득달한 정훈성(鄭渾性)을 비롯하여, 문사의 저술이 많은 것으로 유명했던 성기화(成琪華), 경서(經書)와 사기(史記)의 저술(著述)에 득력(得力)한 원원휘(元元輝), 옥중환(玉仲煥), 대학문답편(大學問答編)의 저술자 윤영개(尹永介), 김형중(金亨重), 원도철(元道喆), 많은 저서를 가진 옥대유(玉大有) 등의 활약이 있었고, 시인으로서 많은 사숙생(私淑生)을 가졌던 강귀순(姜龜淳) 문하에 김형중(金亨重), 옥삼헌(玉三獻), 옥대준(玉大俊), 윤도원(尹道元), 김일채(金一彩), 신수오(辛受五), 윤원빈(尹元彬), 정태영(鄭泰榮) 등 많은 학자와 시인이 나왔다. 그리고 많은 묵객(墨客)들이 배출되었으나, 그들이 남긴 유고(遺稿)는 꼭 희소(稀少)하다.

이곳에서 특히 주목하여야 할 것은, 많은 선비들이 명리(名利)를 탐하지 않고 오로지 초야(草野)에 묻혀서 산수와 더불어 시(詩)와 창작(創作)에 몰두하였으나,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불우한 생활속에 일생을 끝마친 이면에는 섬의 문화가 멩에처럼 역사성(歷史性)의 중압을 피할 길이 없었던 까닭도 있었던 것 같다.

조선시대를 통하여 일관(一貫)된 파쟁(派爭)과 지방색(地方色)은 정계·학계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부문에 작용하여 문자 그대로 나라를 난도(亂刀)질 하였다. 더구나 봉건제도(封建制度)가 낳은 양반, 상민의 계급은 지방별까지 갈리어 민족을 여러 조각으로 분리시켜 놓았다. 조선시대 초에 편찬된 경상도심리지(慶尙道心理志)에 『도내속상(道內俗尙), 대개중체(大概重禮), 양숭질검(讓崇質儉), 숭문호무(崇文好武), 무경상(務經桑), 불사공상(不事工商), 변화부서(繁華富庶), 갑제타도(甲諸他道), 각문의족(各門右族), 만어조정(滿於朝廷)』이라고 찬미(讚美)한 것은, 경상도를 사랑하는 말도 되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경상도 전체를 대상으로한 말이지만, 조선 초에는 경북(慶北)보다 경남이 더 많은 문사가 있었다는 말이라고 하겠다.

그 이유로서는 성호사설초본권지일(星湖僊設抄本券之一) 천지문동방인문조(天地門東方人文條)에 『중세이후 퇴계(退溪), 小白之下 南冥 生於頭流之東 上道尙仁 下道主義 儒化氣節 於海闊山高 於是乎文明之極이』라 하여, 인문의 승화(昇華)가 영남쪽 경상도에

이르러 그 절경을 이루었다. 그런데 여기에 음미하여 둘 것은, 다 같은 경상도이면서 상도(上道) 경상북도(慶尙北道)와 하도(下道) 경상남도(慶尙南道)의 특징을 달리하여, 상도는 「人」을 숭상하고, 하도는 「義」를 주(主)로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북과 경남과의 생활기질 내지 학문경향의 차이를 말하는 이퇴계(李退溪)와 조남명(曹南冥)이 곧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다. 퇴계의 유화(儒化)를 해활(海闊)에 비긴다면, 남명(南冥)의 기질은 산고(山高)에 견줄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두 개의 학풍(學風)은 영남유학(嶺南儒學) 내지 이조유학(李朝儒學)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우리 하도(下道)의 인재양성에 기여와 공헌이 또한 컸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조선 건국과 더불어 하도 지방계 인물들의 진출과 활동은 실로 눈부신 바가 있었다. 성석봉(成石棒) 창녕(昌寧), 신극례(辛克禮) 영산(靈山), 하륜(河崙)·하연(下演) 진주(晉州), 변옥란(卞玉蘭)·변수양(卞秀陽) 밀양(密陽), 이원(李原) 고성(固城)과 같은 분들은 모두 지방 토착세력을 발판으로 중앙에 진출한 신흥 사대부계급(新興 士大夫階級)이며, 혹은 문학(文學), 혹은 장략(將略), 혹은 정치경론(政治經論)으로 빛나는 활약을 하였다. 그러나 중엽(中葉)에 내려 오면서부터 사대부 계급의 분열항쟁이 격렬해져서 을축사건(乙丑事件) 정여립(鄭汝立)에 수우(守愚) 최영경(崔永慶)이 옥사(獄死)하고, 인조반정(仁祖反正)에 래암(萊庵) 정인홍(鄭認弘: 합천)이 참육(斬戮)을 입는 등 연이어 삼제(芟除)를 받고 나서 경남지방의 시기는 소침(消沈)하여지고, 중앙정계(中央政界)로 진출한 이는 거의 형적(形蹟)을 감추다시피 하였다.

이중환(李重煥)의 말에 『我朝(朝鮮) 즉 宣祖이전 秉國者라 皆是道(慶尙道) 人……』

仁祖與 嶺南 兪곡(栗谷) 이이(李珥) 牛溪成揮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 子弟 정란(靖亂) 백시(白是) 편용경(偏用京) 성세가(城世家) 今年之間 自嶺南爲正鄉者二人 장향(匠鄉) 四十五人 無拜相者 高下過三品 不過州縣』(擇里志 慶尙道篇)

이리하여 선조 이전까지 국정(國政)을 담당해 오던 경상도출신의 인재들이 인조반정(仁祖反正)을 계기로 급격히 몰락하게 된 것을 예시해 주었다. 위에 말한 정향(正鄉) 판서(判書) 2인, 아향(亞鄉) 참판(參判) 四十五人이란 것도 대부분 경북(慶北)출신들이 차지했다. 이리하여 조선 후기로부터는 하도(下道)지방 인사와 중앙관로(中央管路)와의 길은 거의 두절되었다. 이것을 더 상세하게 분류하면, 파별(派別)과 지방색의 파쟁(派爭)은 실사(實事) 없었고, 녹토(鹿土)에 묻혀 자기유(自己流)의 생활에 일생을 넘기곤 하였다. 조선조 말기에 와서는 문학이 전국적으로 토대를 이루는 시점에 있었으나, 일본과 병합되므로 해서 우리의 문화는 일본속에 잠식되어 갔다.

1860년 최제우(崔濟愚)는 동학 농민운동을 널리 펴고자, 용담유사(龍潭遺詞)를 만들었다. 1896년에는 독립신문이 창간되었고, 1907년 장지연의 애국부인전에 이어, 1908년 신채호의 을지문덕, 이순신실기(李舜臣實記)를 내 놓았다. 황현(黃玹)은 1910년 망



국의 한을 달래는 절명시(絶命詩)를 남겼고, 1919년 3.1독립운동으로 식민지조건에서 의식과 문화에서 근대화가 추진되었다. 그해 창조(創造)문학과 폐허(廢墟)가 발간, 1922년 백조(白潮)문학에 이어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창간되었다. 1926년 한용운의 님의 침묵, 최남선의 백팔번뇌, 이은상의 노산시조집이 나오면서 문학의 열기는 일기 시작하였다.

1930년에 시문학(詩文學) 시 잡지가 나왔고, 1935년 정지용의 시집, 김영랑 시집, 이즈음 이상(李箱)이 시대적인 이해를 거부하는 난해시(難解詩)를 발표하였다. 1936년 시인부락(詩人部落)이라는 동인지가 생겼다. 이때 서정주(徐廷柱), 유치환(柳致環)이 생명의 의지를 추구하는 시풍을 보여 주기 시작하였다.

우리 거제 선비는 상술(上述)한 바와 같은 환경에서 「섬」사람이라는 또 하나의 관념 하에 천시 당하였으므로, 명리(名利)란 하늘에 별 따기와 같은 어려운 일이었다. 체념하고 초의(草衣)에 일월(日月)과 산수(山水)를 벗삼아 유유자적(悠悠自適)하며, 가슴에다 다른 하나의 태양(太陽)을 기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을 추려서 열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1. 김세명(金世明) : 金海人, 號 素庵, 禮曹參判 9世孫, 掌隸郡判決事 聖徹의 子

조행(操行)이 단정하고 학식이 뛰어났었다. 임창계(林滄溪), 권동계(權東溪) 두 선생을 사숙하여 당세(當世)에 들어났다. 숙종 무자(戊子)에 생원(生員)이 되고, 경인(庚寅)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홍문관 부교리에 이르렀다. 경종(景宗) 신축사화(辛丑士禍)에 물러나와 세상에서 숨어 살았으나, 조금도 괴로워하지 않고 초연(超然)하였다. 단성(丹城)에서 거제로 와서 살았다.

### 2. 정혼성(鄭渾性) : 草溪人, 號 東麓, 字 士成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고 믿음성이 있었으며, 힘써 배우고 행하여 세상의 사표(師表)가 되었다. 가난을 조금도 꺼리지 않고 수도(修道)를 즐겨 입산하였다. 학문은 성리학으로서 성정(誠正)과 궁격(窮格)을 근본으로 삼았으며, 더구나 동·식물학(動·植物學)에도 깊었고, 시(詩)에도 일가(一家)를 작성하였다. 고을 선비들이 동록(東麓)의 사람됨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사당(祠堂)을 세워 추모하고 제사한다.

### 3. 성기화(成琪華) : 昌寧人, 字 鐘彥, 號 晦圃

대제학(大提學)에 올랐으며,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고, 글을 좋아하여 침식(寢食)을 잊었다. 나이 삼십에 가까워 칠서(七書)를 두루 외웠으며, 혹 사람들의 뜻을 물으면 훈화(訓話)나 소화까지 물 흐르듯 대답한다.

#### 4. 여원휘(余元輝) : 宜寧人, 號 智川, 嘉義大夫 善才의 後 漢興의 아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슬기롭더니, 자라남에 남달리 영특하여 성리학에 찬심(讚心)하였고, 조회(彫繪)에도 힘을 넣어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평생을 통하여 저술(著述)에 정력(精力)하여 경서(經書)와 사기(史記)를 득력(得力)하였다. 그의 유고(遺稿)집이 있다.

#### 5. 옥대유(玉大有) : 宜寧人, 字 應會, 號 三竹堂

상형(尙衡)의 아들, 그 어머니가 미륵불(彌勒佛)에 기도하여 낙월(落月)이 품에 드는 꿈을 꾸어 아들을 잉태하였는데, 나면서부터 그 재질이 뛰어나 속인(俗人)이 아님을 짐작케 하였다. 선상자(善相者)가 이르기를, ‘낙월(落月)의 정신(精神)이 미륵(彌勒)의 후신(後身)’이라 하였다 한다.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하여, 하루에 수천자를 외워 신동이라 하였다. 양절사단(陽節史斷)이나 초사(楚辭)의 어소(離騷)같은 것은 한편을 거침없이 외웠으며, 구유백가(九流百家)에 있어서는 모르는 것이 거의 없었다.

늬으막에 세상과 불우(不遇)를 탄식하여 스스로 삼죽당(三竹堂)이라 하고, 산수와 경승을 찾아 두루 돌아다녔다. 경험록의 저서가 있다.

#### 6. 윤영개(尹永介) : 漆原人, 字 仁執, 小山 贈兵判 承輔 十一世孫, 斗誼의 아들

사자(四字)와 삼경(三經)을 되풀이 완미(玩味)하고, 제자백가(諸子百家)를 애송하였다. 특히, 시문(詩文)에 뛰어나 시인으로 일가를 이루었다. 대학문답편(大學問答編)을 지었고, 다수의 시작(詩作)이 있다.

#### 7. 김취채(金就彩) : 勵聲의 아들

어려서부터 슬기로우 시서(詩書)와 백가(百家)를 즐겨하여, 벌써 고을의 두성(斗星)이 되었다. 지현(知縣) 『敦』이 도훈강장(都訓講長)으로 청하였다. 경고관(京考官)이 진주에서 강을 받을 때 영남(嶺南)의 많은 선비들이 운집(雲集)하였는데, 모두 떨어져 갔다.

홀로 남아 도강(都講)의 추천을 받고, 물음에 칠서(七書)의 글 뜻을 서슴치 않고 외

위 회답하니, 교관이 감탄하여 이르기를, ‘하사(遐士)에 이러한 빈빈(彬彬)의 선비가 있는가?’ 하였다. 근학(勤學)의 뜻으로서 본군(本郡)의 고질인 오군마(伍軍馬)를 제하였다.

8. 옥중환(玉仲煥) : 宜寧人, 字 敬章, 號 晚窩, 贈戶曹參判 竹泉公 信卞 11世孫, 知足堂 相杓의 아들

재조(才操)는 민활(敏活)하였고, 침착하여 말이 적었다. 일찍부터 장옥(場屋)을 일삼아 조사를 되풀이하여 장마(莊馬)에 출입하니, 시문(時文)이 뛰어나 고을사람들의 추종을 받았다.

9. 이종인(李鐘仁) : 慶州人, 字 元集, 증통훈대부

경주문중의 선비집안인 익재 이재현(李齋賢)의 후예로, 이지창(李枝彰)의 7세손이다. 사등면 창호에 살았는데, 인물이 준수하고 학문이 뛰어났다. 어릴 때부터 총명하여 십오·육세에 사서삼경을 독파(讀破)했다. 글 읽고, 시를 짓는데 심취하여 호수같은 바다를 바라보며 자연을 노래하는 시를 지어, 통영·고성을 비롯한 문사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10. 강귀순(姜龜淳) : 晉陽人, 字 性道, 號 醉柳

성품이 기민하고 재주는 뛰어났다. 어려서부터 경서(經書)와 사기(史記)를 통달하였다. 시문(時文)에 익숙하여 많은 시작(詩作)을 남겼다. 후진(後進)을 교수(教授)하여 인재양성에 남다른 정력(精力)을 기울였다.

11. 김형중(金亨重) : 金海人, 字 明震, 號 湖愚, 訓練校正 希璉의 後 司僕寺正 光鉉의 아들

총명한 재질(才質)로서 나이 7~8세에 경사(經史)와 자집(子集)을 독파하였고 일찍이 장옥시(場屋詩)로 이름을 날리더니, 뒤에 낙사(洛社)에 놀아 학명이 멀리 떨쳐 경기도봉이 추천하여 제장(祭場)이 되니, 문원(文苑)의 재사(才士), 시인(詩人)들과 교우(交友)하였다.

12. 옥삼헌(玉三獻) : 宜寧人, 字 季寶, 號 良井, 竹泉公 信卞의 曾孫

풍채가 뛰어나고 학문이 깊어, 죽천(竹泉) 김진규(金鎭圭) 문하에서 배우고, 윤도원(尹道元), 김일채(金一彩)와 더불어 반곡서원(盤谷書院)을 세웠으며,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선생의 영정(影幀)을 모시고 갈 때, 북헌(北軒) 김춘(金春)이 옥공(玉公)을 반곡서원으로 보내는 시가 있어, 반곡지(盤谷誌)에 실려 있다.

### 13. 옥치옹(玉致傭) : 宜寧人, 號 菊村, 信卞의 後孫

연초면(延草面) 송정리(松亭里)에서 태어났다. 타고난 풍자가 건후(健厚)하고, 재질(才質)이 남달리 총명하여 15세에 사서(四書)를 통암(通暗)하여, 문세(文勢)가 숙취(夙就)하였다. 임천(林泉)에 갈희(鞫晦)하여 자연과 더불어 시령(詩靈)을 닦고 소영(嘯)하면서, 또한 논예(論禮)에 통달하여 고을 향당(鄉黨)의 사우들이 선생으로 추천하였으며, 유학교화(儒學教化)에도 헌신하였다. 국촌유집(菊村遺集)이 있다.

## 제2절 향토를 빛낸 문인

### 1. 청마(靑馬) 유치환(柳致環)의 생애와 연보

청마 유치환(1908년~1967년) 시인의 본관은 진주, 호는 청마(靑馬)로 둔덕면 방하리에서 유준수의 8남매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청마가 3살, 동량이 5살 때 통영으로 이사갔다. 11살까지 외가에서 한문을 배웠다.

1922년 통영보통학교 4년을 마치고, 일본 도요야마중학교(豊山中學校)에 입학하였다. 이 무렵 형 유치진이 중심이 된 동인지 토성(土聲)에 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가세가 기울어 4학년 때 귀국하여, 1926년 동래고등보통학교에 편입하여 졸업하고, 이듬해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하였으나, 퇴폐적인 분위기에 불만을 품고 1년만에 중퇴하였다.

당시 시단을 풍미하던 일본의 무정부주의자들과 싸우는 정지용(鄭芝溶)의 시에 감동하여, 형 유치진과 함께 회람잡지 소제부(掃除夫)를 만들어 시를 발표하였으며, 1931년 문예월간(文藝月刊)에 시 〈정적〉을 발표하여, 문단에 등단하였다. 그뒤 잡다한 직업을 전전하다가, 1937년 부산에서 문예동인지 생리(生理)를 주재하여 5집까지 간행하고, 1939년 첫 시집 청마시초(靑馬詩抄)를 발간하였다. 여기에 초기의 대표작인 〈깃발〉, 〈그리움〉, 〈일월〉 등 55편이 수록되었다.

1940년 가족을 거느리고 만주 연수현(煙首縣)으로 이주하여, 농장관리인으로 종사

하면서 5년 여에 걸쳐 온갖 고생을 하다가, 광복직전에 귀국하였다. 이때 만주의 황량한 광야를 배경으로 한 허무의식과 가열한 생의 의지를 쓴 시 절도〈絶島〉, 수〈首〉, 절명지〈絶命地〉 등이 제2시집 [生命의 書]에 수록되었다. 광복 후에는 청년문학가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민족 문학운동을 전개하였다. 6.25동란 중에는 문총구국대(文總救國隊)의 일원으로 보병 3사단에 종군하였다. 이 무렵에 [보병과 더불어]의 시집이 나왔다.

1953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줄곧 교직에 일관했다. 안의중학교 교장을 시작으로 경주고등학교 교장 등 여러 학교를 거쳐, 부산남여자상업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 교통사고로 일생을 마쳤다. 40년에 걸친 그의 시작(詩作)은 한결같이 남성적 어조로 일관하여 생활과 사연, 애련과 의지 등을 노래하고 있다. 그의 시 세계를 생명의 의지, 허무의 의지, 비정의 철학, 신채호적(申采浩的)인 선비기질의 시인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로 거제 산방산의 아름다운 정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생명의 긍정에서 서정주(徐廷柱)와 함께 이른바, '생명파' 시인으로 출발한 그의 시는 범신론적 자연애로 통하는 열애가 그 바탕을 이루며, 그 바탕 위에서 한편으로는 동양적인 허정(虛靜), 무위(無爲)의 세계를 추구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허무를 강인한 원시적 의지로 초극(超克)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시에 허무, 의지의 극치인 '바위'와 고고함의 상징인 '나무'가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허무에서 벗어나려는 다른 일면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

시집으로는 [울릉도], [청령일기], [청마시집], [제9시집], [유치환 선집], [뜨거운 노래는 땅에 묻는다], [미루나무와 남풍], [과도야 어찌란 말이냐] 등이 있고, 수상록으로는 [예루살렘의 닭]과 2권의 수필집, 자작시 해설집 [구름에 그린다] 등이 있다.(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연 보

- 1908년 거제시 둔덕면 방하리 507번지에서 음력 7월 14일 유준수(柳焜秀)와 박우수(朴又守)의 8남매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남
- 1918년(11세)까지 외가에서 한학을 공부
- 1922년(15세) 통영보통학교 4학년을 마치고, 일본 도요야마(豊山中學校)중학교에 입학
- 1923년(16세) 9월 형 치진, 아우 치상과 함께 동경 교위에서 자취하면서, 유치진이 토성회(土聲會)를 조직하여, 박명국(朴明國), 김성주(金星柱), 최두춘(崔杜春), 장허(張虛) 등과 시를 발표
- 1926년(19세) 豊山中학교 4학년 때 한의원을 하던 부친이 다른 사업에 손을 대어 실패하자, 귀국하여 동래보통학교 5학년에 편입
- 1927년(20세) 동래고보 5학년 졸업, 제4회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 이 무렵 '참세' (통영 참새모임회 간행) 제2권 제1호(제4집)에 토막시 '短歌,

## 외 9편 발표

- 1928년(21세) 연희전문 문과 1학년 중퇴, 다시 일본으로 건너 가서 사진학원에 다닌다. 이해 10월 11세부터 알고 지내던 경성 중앙보육원 출신인 권재순(權在順)과 결혼, 이 무렵 일본 아나키스트 시인과 다카무라 고오타로(高村光太郎), 쿠사노 심삐이(草野心平) 등과 정지용(鄭芝溶)의 시에 깊은 감명을 받아 시에 열중
- 1929년(22세) 일본에서 귀국, 동량을 중심으로 동심(童心) 치상아(稚想兒) 장춘식(張春植)과 함께 소제부(掃除夫) 회람지를 창간하였다. 장녀 仁쫐출생
- 1930년(23세) 동량의 이름으로 소제부(掃除夫) 제1시집을 프린트판으로 발간
- 1931년(24세) 시 '정적'을 문예중앙 제2호에 발표, 차녀 春妃출생
- 1932년(25세) 평양으로 이주, 몇달간 사진관을 경영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문을 닫고 농장관리인으로 있으면서 詩作에 전념, 3녀 紫燕출생
- 1934년(27세) 부산으로 이주, 이듬해 화신연쇄점에서 1년간 근무
- 1936년(29세) 일본 동경으로 떠나는 李箱이 부산시 초량동 집으로 찾아와 하룻밤을 보내며 詩教를 받음
- 1937년(30세) 통영으로 이주, 통영 협성상업학교 교사가 되다. 이 무렵 시인 동인지 '生理'를 崔上圭, 張應斗, 廉周用, 朴永浦, 柳致祥, 崔斗春, 金玘燮와 함께 부산 동구 초량동에서 발행. (제1집은 7월, 제2집은 10월 1일) 이후 51집까지 발행
- 1940년(33세) 3월 통영 협성고등학교 사임, 그해 봄 가족을 거느리고 만주 빈강성 연수현 유신구(濱江省 延壽縣 維新區)로 이주, 농장관리인 및 정미소를 경영
- 1945년(38세) 6월말 귀국, 통영 문화유치원을 부인이 1950년까지 운영. 청마는 통영문화협회를 조직. 10월에 통영여자중학교 교사로 부임
- 1946년(39세) 청년문학가협회 초대 부회장, 이어서 회장이 됨.
- 1947년(40세) 한국청년문학가협회 제1회 시인상을 수상. 5월 시집 '生命의 書'(行文社刊)를 펴내다. 그리고 시 '歸故'외 59편 수록 문화단체 총연합회 부산지부장이 됨.
- 1948년(41세) 3월 통영여자중학교 교사 사임, 4월 경남 안의중학교 교장으로 부임. 9월 시집 '울릉도'(行文社刊) 펴내다. 시 동백꽃외 34편 수록
- 1949년(42세) 5월 시집 '日記'(行文社刊) 펴내다. 시 '深山'외 65편 수록, 이 무렵 시인동인지 '駱駝'를 주재
- 1950년(43세) 6·25동란으로 부산으로 이사, 문인구국대를 조직, 육군 제3사단에 중군

- 1951년(44세) 9월 시집 ‘歩兵과 더불어’ 文藝社刊, 시 ‘好天’ 외 33편 수록
- 1953년(46세) 수상록 ‘예루살렘의 닭’ 산호장 간행, 경북대학교 문리대 강사를 지내다.(1953~1954)
- 1954년(47세) 4월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에 피선되다.(대구매일신문) 칼럼을 쓰다. 1957년 10월 시집(靑馬詩集) 문성사 간행, 시 낙화의 총 1백 11편 수록
- 1955년(48세) 경남 안의중학교 교장을 사임
- 1956년(49세) 3월 경상북도 제1회 문화상을 수상함.
- 1957년(50세) 3월 한국시인협회 회장에 피선, 4월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재피선, 12월 제9시집 한국출판사 간행, 시 ‘春朝’ 외 38수 수록
- 1958년(51세) 2월 아시아재단 자유문학상을 수상함, 12월 ‘柳致環 詩選’ 정음사 간행
- 1959년(52세) 3월 한국시인협회 회장에 피선, ‘동방의 느티나무, 신구문화사간행, 9월 경주고등학교 교장을 사임함, 12월 자작시 해설 ‘구름에 그린다’ 신웅출판사 간행
- 1960년(53세) 예술원회원 재피선, 12월 ‘뜨거운 노래는 땅에 묻는다’ 동서문화사 간행
- 1961년(54세) 3월 경주여자고등학교 교장에 취임(1961~1962)
- 1962년(55세) 7월 예술원상 수상, 12월 대구여자고등학교 교장으로 전임.(1962~1964)
- 1963년(56세) 한국예술단체 총연합회 경북지부장 역임, 수필집 ‘나는 고독하지 않다’ 평화당 간행, 7월 경남여자고등학교 교장취임(1963~1965)
- 1964년(57세) 한국문인협회 부산지부장, 11월 시집 ‘미루나무와 남풍’ 평화사 간행, 시 한 그루 백양나무 외 41편 수록, 부산시문화상 수상
- 1965년(58세) 4월 부산남여자상업고등학교 교장으로 전임, 한국예술단체 총연합회 부산지부장에 피선, 11월 시선집 ‘파도야 어찌란 말이냐’ 평화사 간행
- 1967년(60세) 2월 13일 하오 9시 30분, 부산시 동구 좌천동 앞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함. 부산대학병원으로 후송 중 운명하였다. 장지는 부산시 사하구 승학산 기슭이었으나, 그후 경남 양산시 백운공원 묘원으로 이장하였다. 1997년 4월 5일 한식날 동량 청마기념사업회와 한국문협 거제지부 회원들이 청마의 고향인 거제시 둔덕면 방하리 지전당 골로 이장하였다. 그리고 거제시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생가 복원사업을 하였다.

## 2. 전국에 있는 청마시비(靑馬詩碑)

### ○ 〈깃발〉 시비

청마의 시비 11기 중 〈깃발〉시비는 4기가 세워져 있다. 아마 청마의 시 중에서 〈깃발〉이 대중들에게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작품이다. 〈깃발〉시비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에덴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기단은 콘크리트, 비신은 오석(烏石)이다.

너비 87cm, 높이 90cm에 청마의 시와 그 인품을 기리기 위하여, 문인과 교육계 인사들이 성금을 모아 1974년 2월 13일 건립하였다. 글씨는 향파 이주홍이 썼고, 시비 건립위원장은 손경하이다. 통영시 남방산에 있는 시비는 기단이 화강석이고, 비신은 오석(烏石)으로 너비 155cm, 높이 140cm이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삼호 내 자빌딩에 위치한 시비는 기단이 화강석이고, 비신은 오석(烏石)으로 너비 94cm, 높이가 155cm이다. 1986년 11월 주식회사 삼호의 대표이사 윤기호가 건립하였다.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 2리 신천지미술관에 위치한 시비는 쇠파이프로 양쪽에 기둥을 세우고, 윗부분에 철판으로 비신을 부착하였는데, 신천지미술관에 건립하였다.

#### 〈깃 발〉 전문

유 치 환

이것은 소리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탈자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밝고 곧은 이념의 꺾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아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 ○ 〈바위〉 비석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남여자상업고등학교에 있다. 기단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비신은 화강암으로 너비 151cm, 높이 172cm이다. 1968년 10월 본교의 제11회, 제12회 졸업생들이 세웠다.

부산광역시 부산진역에서 서면쪽으로 50m지점 수정로공원에 위치한 시비는 화강석 벽에 너비 3m, 높이 110cm이고, 비신은 화강석으로 경재 조영조가 세웠다. 이 시비가 있는 곳은, 1967년 2월 13일 19시 청마가 교통사고를 당한 지점으로 그 의의가 크다.



〈바 위〉 전문

내 죽으면 한 개 바위가 되리라.  
아예 애련에 물들지 않고  
희노에 움직이지 않고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억년 비정의 함묵에  
안으로 안으로만 채찍질하여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  
흐르는 구름  
머언 원뢰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뜨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 〈교훈비〉

경주시의 불국사 후문에서 등산로를 따라가면 151m지점 우측에 위치한 〈석굴암 대불〉 시비는 자연석에 오석(烏石)을 부착하였다. 너비 135cm, 높이 285cm로 현대문학사에서 경주문협이 협조를 받아, 1968년 4월 15일 건립하였다. 이 시비는 건립연대나 비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자료 : 경주고등학교)

청마가 1955년부터 1962년까지 근무했던 경주여자중학교와 경주고등학교에는 청마가 지은 〈큰 나의 밝힘〉이라는 교훈비가 세워져 있다. 청마는 1963년 7월부터 1966년 4월 1일까지 부산광역시 수정동 경남여자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였는데, 이 교정에는 청마가 지은 〈겨레의 발〉이라는 교훈비가 세워져 있다. 이 비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오석(烏石)을 부착하였고, 너비 150cm, 높이 133cm이다. 시비 위에는 모자상이 조각되어 있다.

〈겨레의 발〉 전문

역세고 슬기로운 겨레는  
오직 어엿한 모성에서  
이루어 지나니  
이 커다란 자각과 자랑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닮는다.

○ 그리움시비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동 1가 용두산공원에 위치한 〈그리움〉의 청마시비는 자연석으로 너비 117cm, 높이 180cm로 이곳 부산의 문화거리로 지정하여, 매년 문화예술거리 축제

등 행사를 벌이고 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시의 거리를 조성하여,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부산시와 문화체육부·부산문인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1993년에서 1997년까지 5개년의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하여 시비 10기를 세웠는데, 그 중 청마의 〈그리움〉 시비를 소개한다.

#### 〈그리움〉 전문

오늘은 바람이 불고  
나의 마음은 울고 있다.  
일찍이 너와 거닐고 바라보던  
그 하늘 아래 길이언마는  
아무리 찾으려도 없는 얼굴이여  
바람 샌 오늘은 더욱 너 그리워  
긴 종일 헛되이 나의 마음은  
공중의 깃발처럼 울고만 있나니  
오오 너는 어디에 같이 숨었느냐?

### 제3절 현대문학의 시발

#### 1. 한국동란 속의 문학공간

6·25동란으로 1951년부터 거제도에 포로수용소가 생겼고, 흥남 등지에서 15만에 가까운 피난민이 거제에 왔다. 이들로부터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 장승포에는 갈매기다방을 비롯하여, 선술집 등에서는 이들과 지역의 문화 예술인들이 모여 문화교류를 하였다.(갈매기다방은 오래 전에 없어졌고, 그 자리는 고향다방이 오랫동안 있었다).

이범선은 1920년 평안남도 안주군 신안면에서 태어나, 진남포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6.25 동란이 발발하자, 30세 때 월남하여 거제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1955년 김동리의 추천으로 [현대문학] 4월호에 단편 암표[暗標]와 12월호에 [일요일]이 실림으로써 문단에 등단한다. 그후 계속해서 [학마을 사람들]을 발표하였고, 1958년 현대문학 12월호에는 피난시절 거제도 피난민들과 눈 먼 갈매기다방 주인 부부의 서민적인 일상의 삶을 민족적 비극인 6·25와 인간의 생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참담한 현실로 그려낸 소설의 그 배경이 장승포였다.

장승포 다방들은 이 시기에 문학공간으로 이용되었다. 1960년대~1970년대까지 길다

방, 심원다방 등은 문화예술인과 지역사람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시인백과)

## 2. 섬 문학의 태동

거제는 한·일합방으로 인하여 통영군에 예속되어 있었고, 문화 예술의 활동도 통영을 중심으로 하여 해 오고 있었다. 6.25 동란으로 포로수용소가 생기고, 피난민들이 몰려오면서 문학의 바람이 잠시 불었다. 그들이 떠난 후, 지역 사람들이 문학에 대한 열정을 가졌으나, 지도적인 바탕이 없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그럴 때 초등학교 교사들이 문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65. 12. 25~27 원신상 시화전(성포 황우다방)

거제 토박이의 명문가 집안으로 초등학교 교사로 있던 원신상(元信常)이 문우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1965년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성포 황우다방에서 시화전을 가졌다. 당시로서는 어렵고 힘든 문학 전시였다. 성포는 거제에서 유일한 육지와외의 통로 역할을 하는 교통의 관문이기 때문에, 그 시화전은 문학 저변확대에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때 많은 축하객이 다녀갔고, 55명이 축하와 격려의 글을 남겨 놓았다.

### 1) 교사문우회 조직

초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하여, 1964년 8월 27일 문학회를 조직하였으나, 불편한 교통 사정과 생업에 쫓기다 보니, 활동이 잘 되지 않았다. 조직으로서 끝난 결과였으나, 문학에 대한 의욕을 불러일으키는데는 도움이 되었다.

#### ○ 문학회 명단

- 고 문 : 천덕수 초등학교 교장
- 회 장 : 원신상
- 부 회 장 : 이정길
- 총무간사 : 이윤기
- 부 원 : 윤인진, 최돌수, 문정자

## ○ 회 원

제윤경(장승포), 이미자(장승포), 이정길(창호), 서기식(학산), 최돌수(일운), 강방원(울포), 박대철(울포), 이국자(기성), 김홍제(외간), 문정자(옥포), 허행남(옥포), 최호연(연초), 옥용찬(삼릉), 선덕구(망월), 김홍실(수월), 유인진(학동) 등 초등학교 선생으로 구성되었다.

## 2) 망파(望波)문우회 조직

1966년 8월 20일 옥문석이 주축이 되어, 망파문우회 조직을 위한 취지와 발기인 대회를 하였다. 발기인 대표 옥문석 외, 김종병, 윤재임, 손일성, 김종명, 양선애, 윤중호, 조경재 등이다. 망파문우회도 조직 구성을 한 후 활동을 하였으나, 어려움이 많았다.

1967년 3월 15일에는 새 회원으로 가입한 김한석, 옥순남, 이태훈, 김민현, 진선자와 발기인 옥문석, 손선일 등이 남아 있었다. 교사문우회와 망파문우회가 문학의 씨를 뿌려 놓았다.

## 제4절 한국문협 거제지부

○ 소재지: 거제시 장승포동 410-1번지 (예충건물 내)

## 1. 연혁 및 활동

1973년 옥포에 대우조선소가 들어섰고, 1974년 장평에 삼성조선소가 들어오면서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었다. 양대 조선소의 근로자 자녀 교육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성학원(至聖學園)에서 장승포에 있던 거제고등학교를 인수하여 아주에 이전하였고, 이어서 대우초등학교를 설립하였다.

거제고등학교 국어교사 이영호(李英護)와 대우초등학교 정용원(鄭鏞元) 교감, 조무근 교사 등이 부임하면서 문학단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을 주축으로 하여 거제지역에서 문학 활동을 하고 있는 김무영, 김광을, 이천섭, 김운향, 김경자 등이 문학단체를 만들게 되었다.

1982년 6월 12일 이들이 모여 문학단체 발기를 하였다. 그해 7월 10일 거제문화원에서 11명이 참석하여 창립총회를 하였다. '생활문학회'란 이름으로 발족하였다. 회장 이

영호, 부회장 정용원, 총무 김하영, 이사 최영이·김경자·옥남상·이천섭이 선임되었다. 그리고 김무영, 김광을, 김운항 등 젊은 회원들이 있었다. 1984년 이영호, 정용원, 최영이가 한국문인으로 (한국문인 3인이면 지부 인준) 한국문협 거제지부로 인준을 받았다.

## 2. 거제문협 연보

- 1982년 7월 10일 거제생활문학회 창립총회(회장 이영호, 부회장 정용원, 총무 김하영), 본회 회칙 제정
- 1982년 8월 10일 거제생활문학회 회보 창간호 발행
- 1982년 10월 9일 한글날 기념백일장(옥포정)
- 1982년 10월 30일 회보 2호 발행
- 1982년 11월 23일 제1회 문학의 밤(수협 회의실)
- 1982년 12월 16일 정기총회(회장단 유임, 옥남상 부회장 보선)
- 1983년 1월 22일 정용원 부회장 한국 현대 아동문학상 수상
- 1983년 1월 31일 회보 3호 발행
- 1983년 3월 15일 조무근 회원 제2동시집 『동그란 옥심』 발간
- 1983년 3월 31일 『거제문학』 창간호 발간(1,000부)
- 1983년 3월 31일 옥미조 동시집 『비닐하우스 안의 바람』 발간
- 1983년 4월 26일 『거제문학』 창간호 출간 기념회(거제문화원)
- 1983년 5월 1일 정용원 제2동시집 『어머니 우리 어머니』 발간
- 1983년 6월 20일 회보 4호 발행
- 1983년 6월 25일 조무근, 정용원 제2시집 출판기념회(대우초교 시청각실)
- 1983년 7월 30~31일 제1회 해변 백일장(와현해수욕장)
- 1983년 8월 14~15일 임간 백일장(구천계곡)
- 1983년 10월 20일 회보 5호 발행
- 1983년 10월 29일 제2회 문학의 밤(신협 예식장)
- 1983년 12월 5일 정기총회(회장 정용원, 부회장 최영이·옥남상, 사무국장 조무근, 감사 이승철)
- 1984년 6월 20일 제3회 해변 시 낭송회(능포)

- 1984년 7월 28~30일 한국현대아동문학가협회 세미나 본회 후원, 학동에서 개최, 원순련 전국 교사 수기 모집 당선
- 1984년 8월 10일 『거제문학』 2집 발간(1,200부), 회보 6호 발행, 회칙 1차 개정, 거제문인협회로 회명 개칭
- 1984년 8월 18일 제2회 해변백일장 및 『거제문학』 제2집 출간기념회(와현해수욕장)
- 1984년 10월 20일 회보 7호 발행
- 1984년 12월 28일 정기총회(회장단 유임, 간사 이국희, 감사 이승철) 4명의 고문에게 감사패 전달, 제3회 송년문학의 밤(미화다방)
- 1984년 12월 30일 무원 김기호 시조 시인 생가 탐방 및 묘소 참배(하청)
- 1985년 1월 21일 회보 8호 발행
- 1985년 4월 30일 『거제문학』 3집 발간(1,200부)
- 1985년 5월 11일 옥포대승첩 기념백일장(대우초등학교)
- 1985년 6월 15일 『거제문학』 3집 출간 기념회(거제문화원)
- 1985년 8월 1일 회보 9호 발행
- 1985년 9월 22일 제4회 시 낭송의 밤(고현 아리랑그릴)
- 1985년 10월 9일 한글날 기념백일장(거제문화원)
- 1985년 11월 16~18일 조무근 동시화전(거제문화원)
- 1985년 12월 16일 정기총회(회장 이윤섭, 부회장 조무근·최영이, 사무국장 김무영, 감사 이승철)
- 1986년 1월 13~17일 회원 합동시화전(2차, 고현 왕비다방)
- 1986년 2월 15일 회보 10호 발행
- 1986년 3월 31일 이영호 제2시집 『바다 연가』 발간
- 1986년 5월 7일 옥포대승첩 기념백일장 시상(거제문화원)
- 1986년 5월 24일 이영호 시화전(장승포 자이안트모텔그릴)
- 1986년 6월 30일 옥미조 수상집 『장사도의 겨울』, 『어린이 왕국』 발간
- 1986년 6월 31일 『거제문학』 4집 발간(1,000부)
- 1986년 8월 29일 『거제문학』 4집 출간 자축회(와현해수욕장)
- 1986년 10월 24일 제5회 거제 문학의 밤(고현 농협회의실)
- 1986년 10월 27일 한글날 기념백일장(옥포정)
- 1986년 11월 15일 진도선 고문 자서전 『해저문 바닷가』 출간

- 1986년 12월 12일 진도선 고문 자서전 『물새 발자국』 출판기념회(옥포관광호텔)
- 1986년 12월 23일 제6회 송년 시 낭송의 밤 및 시화전(옥수동 로얄그릴)
- 1987년 1월 22일 정기총회(회장 이영호, 부회장 김한석·최영이, 사무국장 김무영, 간사 이국희, 감사 이승철)
- 1987년 2월 20일 회보 11호 발행, 회칙 2차 개정
- 1987년 4월 4일 경남문인대회 참가(진해 김무영 외 3명)
- 1987년 5월 7일 제25회 옥포대승첩 기념백일장(옥포정), 시상식 22일 문화원에서 제7회 거제문학의 밤(옥수동 단위농협 3층)
- 1987년 5월 31일 회보 12호 발행
- 1987년 6월 30일 옥미조 동시집 『꿀벌새』 발간
- 1987년 8월 10일 회보 13호 발행
- 1987년 8월 15~16일 제3회 해변 백일장 및 친선의 밤(와현해수욕장)
- 1987년 11월 7일 한글날 기념백일장(옥포정)
- 1987년 11월 10일 『거제문학』 5집 발간(2,000부)
- 1987년 12월 23일 『거제문학』 5집 출간기념회 및 경남문인 송년회 회장 참가
- 1988년 1월 26일 정기총회(회장단 유임)
- 1988년 2월 20일 한국문예진흥기금 『거제문학』 6집 발간사업지원 확정 통보
- 1988년 3월 21일 회보 14호 발행
- 1988년 4월 9일 한국문협 거제지부 창립총회 개최(옥포관광호텔)
- 1988년 5월 7일 옥포대승첩 기념백일장 주관 개최(대우초등학교)
- 1988년 6월 28일 회보(지부창립 특집) 15호 발행
- 1988년 7월 2일 경남문협 정기총회 참석
- 1988년 8월 14~17일 88거제해변제 겸 월례회 개최, 제4회 해변 백일장 개최(와현해수욕장)
- 1988년 8월 29~9. 7일 경남문화예술회관 개관기념 및 올림픽 성화봉송 경축 경남문인협회 주관 시화전에 정용원·이용호 작품 출품 전시(진주)
- 1988년 10월 18일 한글날 기념백일장 옥포정서 개최
- 1988년 11월 30일 『거제문학』 6집 발간(1,000부)
- 1988년 12월 20일 회보 16호 발행

- 1988년 12월 22일 88거제문학인의 밤 개최, 그 일환으로 무원선생 10주기념 문화강좌, 제9회 거제문학의 밤 및 『거제문학』 6집 출간기념회 개최
- 1989년 2월 22일 정기총회(회장 이영호, 부회장 김한석·정용원, 사무국장 이승철)
- 1989년 5월 7일 제27회 옥포대승첩 기념백일장 옥포정서 개최
- 1989년 5월 15일 청마 고향시비 둔덕 소공원서 제막
- 1989년 6월 17일 경남문협 정기총회 참석
- 1989년 7월 29~30일 제5회 해변백일장 학동해변서 개최
- 1989년 7월 30~8월 2일 한국시간문학회와 공동주최 시인교실 학동해변서 개최
- 1989년 10월 22일 한글날 기념백일장 옥포정서 개최
- 1989년 10월 28일 제1회 독로문화제 백일장 본회 주관 충혼탑에서 개최
- 1989년 11월 4일 원신상 시집 『석류꽃 핀 빈 집』 출판기념회, 호반의 별장에서 개최
- 1989년 12월 10일 『거제문학』 7집 출간
- 1989년 12월 20일 회보 18호 발행
- 1990년 3월 31일 회보 19호 발행
- 1990년 4월 5~8일 정용원 동시화전 개최(옥포)
- 1990년 5월 7일 옥포대승첩 기념백일장 개최(옥포정)
- 1990년 6월 25일 진도선 고문 제3수필집 『이슬을 먹고사는 사슴』 출간
- 1990년 8월 3~5일 한국문협 해외문학 심포지움(미국) 이영호 전회장 참석
- 1990년 8월 18일 제10회 문학의 밤 개최(장목 김종석 고문 농장)
- 1990년 8월 25일 한국문협 제10차 전국지부장대회 이영호 전 회장 참석
- 1990년 8월 『경남문학』 여름호 출간 기념회 참석(최영이, 정용원)
- 1990년 8월 선상 문학의 밤 참가(이영호, 정용원, 윤창원, 윤지영, 정연포)
- 1990년 8월 신경남일보에 본회 활동 소개 게재
- 1990년 8월 마산 MBC ‘르포경남 거제편’ TV에 정용원, 이승철 출연, 거제소개
- 1990년 9월 5일 회보 20호 발행
- 1990년 10월 10일 한글날 기념백일장 개최(옥포정)



- 1990년 10월 27일 제2회 독로문화제 백일장 개최 주관(고현 충훈탑)
- 1990년 11월 30일 『거제문학』 8집 출간
- 1990년 12월 28일 『거제문학』 8집 출간기념회
- 1991년 1월 30일 회보 21호 발행
- 1991년 5월 7일 옥포대첩기념제 백일장 주관 개최(옥포정), 옥포대첩기념제 문학의 밤 개최(옥포농협)
- 1991년 7월 17일 정용원 회원 제2회 경남아동문학상 수상
- 1991년 7월 21일 이승철 수필신인상 『시와 의식』
- 1991년 7월 30일 회보 22호 발행
- 1991년 8월 5~10일 제2회 합동시화전 개최
- 1991년 8월 31일 원신상 본회 이사 제3시집 『바람과 수풀에서』 출간
- 1991년 8월 이정보 이사 시조집·수필집 출간, 출판기념회
- 1991년 배석권 고문 『월간문학』 신인문학상 수필 당선, 최진의 이사 『수필문학』 천료, 이승철 부회장 『시와 의식』 천료, 수필문학 추천, 윤지영 회원 『에세이』 수필초회추천
- 1991년 9월 1일 정용원 본회 지부장 제4동시집 『같이 있지요』 출간
- 1991년 10월 9일 정용원 제4동시집 출판기념회  
효당문학상 제정 기금 2천만원 전달  
545돌 한글날 기념백일장 주관 개최(옥포정)
- 1991년 10월 26일 제3회 독로문화제 백일장 주관 개최(충훈탑)
- 1991년 11월 2일 원신상 제3시집 출판기념회
- 1991년 11월 30일 『거제문학』 제9집 출간
- 1992년 5월 7일 옥포대첩기념제 백일장(옥포정)
- 1992년 5월 23일 회보 23호 발행
- 1992년 3~10일 강돈묵 회원 『월간문학』 수필신인상 수상, 이영범 회원 『문예사조』 소설 당선, 윤지영 회원 『문학예술』 수필 당선
- 1992년 7월 10일 『경남문학』 92여름호, 가을호에 이영호, 최영이, 정용원, 최진의, 이승철, 도리천, 옥미조, 김한석 회원 작품게재
- 1992년 7월 25일 정용원 창작 동화집 『통방울 눈을 가진 잠장 금붕어』, 위인 동화집 『어린이여 큰 뜻을 품어라』 출간

- 1992년 10월 10일 한글날 기념백일장
- 1992년 10월 16일 제3회 선상문학의 밤 행사 후원
- 1992년 10월 23일 제4회 독로문화제 기념백일장 개최
- 1992년 10월 30일 원신상 제4시집 『거제도 사람』 출간 및 출판기념회
- 1992년 12월 30일 『거제문학』 10집 발간, 출판기념회 및 제1회 효당문학상 시상. 수상자 이영호·정용원
- 1993년 2월 17일 정기총회 개최(다락원). 정용원 부회장 사임, 최진의 부회장 보선, 이사 및 회원 경질
- 1993년 『농민문학』 2월호 안영삼 시조부문 등단
- 1993년 『시세계』 봄호. 원신상 신인상 시부문·『농민문학』 3월호. 원신상 시 당선
- 1993년 5월 7일 옥포대첩기념백일장 개최
- 1993년 5월 이승철 소설 신인상 『한맥 문학』
- 1993년 6월 25일 김성호 회원 제1시집 『소리의 하늘』 출간
- 1993년 7월 4일 이영범 장편소설 『장미와 칼』 출간
- 1993년 7월 21일 작품 낭송회(다락원)
- 1993년 『한맥문학』 7·8월호 이금숙 신인상 시 부문 당선
- 1993년 8월 9~7일 여름시인학교 개설, 후원(대금초등학교)
- 1993년 10월 9일 한글날 백일장 개최(옥포정)
- 1993년 9월 반평원 회원 『한맥문학』 신인상 시 부문 당선
- 1993년 10월 29일 제12회 문학의 밤(거제군 노인회 회의실)
- 1993년 10월 30일 독로문화제 한글백일장
- 1993년 12월 제2회 효당문학상 시상, 수상자 김한석
- 1993년 12월 30일 『거제문학』 제11집 출판
- 1994년 2월 김운향 회원 『한맥문학』 신인상 당선
- 1994년 3월 윤창원 회원 월간 『문학공간』 신인상 당선
- 1994년 3월 김무영 회원 『한맥문학』 신인상 당선
- 1994년 3월 정기총회 임원개선(회장 정용원, 부회장 김한석·이승철, 사무국장 여영운)
- 1994년 4월 15일 회보 24호 발행

- 1994년 4월 20일 정용원 제5동시집 『산새의 꿈』 출간
- 1994년 5월 5일 옥미조 동시집 『순리동산에 핀 동시』, 『타자기 청소』 외 1권 출간
- 1994년 5월 7일 32회 옥포대첩기념백일장 개최(옥포정)
- 1994년 5월 2~8일 회원 합동시화전 개최
- 1994년 6월 20일 이윤섭 시집 『모닥불』 출간
- 1994년 6월 30일 배석권 제2수필집 『고향엔 무엇이 있길래』 출간
- 1994년 7월 23일 노여심 회원 제1시집 『꽃사과』 출간
- 1994년 8월 5일 원신상 회원 제5시집 『우리 조금씩 이별을 하세』 출간
- 1994년 8월 15일 최진의 수필집 『막대로 흰구름 가르키며』 출간
- 1994년 9월 24일 이영범 장편소설 『X와의 약속』 출간
- 1994년 10월 7일 한글날 기념백일장 개최
- 1994년 10월 18일 문학의 밤 개최(고현복지회관)
- 1994년 10월 20일 문학세미나(남송우교수 강의)
- 1994년 11월 5일 이영범 장편소설 『제5계절』 출간
- 1994년 11월 8일 이영범 소설 출판기념회
- 1994년 11월 20일 『거제문학』 12집 출간
- 1994년 11월 26일 金舞影 시집 『그림자戀書』 출간
- 1994년 11월 29일 金舞影 시집 『그림자戀書』 출판기념회(옥포관광호텔)
- 1994년 12월 9일 배석권 고문 “동포문학상” 수상(서울흥사단 강당)
- 1995년 2월 17일 원신상 시분과위원장 정년퇴임식(계룡초등학교)
- 1995년 2월 22일 『거제문학』 제12집 및 제3회 효당문학상 시상식(옥포관광호텔)
- 1995년 3월 『예술세계』 3월호 김정희 신인상 수필부문 당선
- 1995년 3월 10일 임시총회 임원개선(회장 김한석, 부회장 이승철·강돈묵, 사무국장 김무영)
- 1995년 4월 13일 품평회(서울회관), 안영삼 시인 작고(장승포 자택)
- 1995년 4월 21일 이승철 거제도 명승명물 에세이 『환상의 섬 거제도』 출판 기념회(옥포관광호텔)
- 1995년 5월 12일 제2회 이금숙 시화전(대우병원 잔디밭)
- 1995년 5월 29일 회보 제25호 발행

- 1995년 6월 4일 제33회 옥포대첩기념 백일장(옥포정)
- 1995년 7월 8일 제33회 옥포대첩기념 백일장 시상식(학동몽돌밭)
- 1995년 7월 15~16일 문학기행(전남 강진 김영랑 생가 및 다산 초당)
- 1995년 7월 23일 거제자연예술랜드 개장식(동부저수지 주변), 거경문학 제5집 『사람의향기』 출판기념회(거제자연예술랜드), 이정보 수필집 『蘭, 그 기다림의 美學』 출판기념회(거제자연예술랜드)
- 1995년 7월 『조선문학』 9월호 옥문석 신인상 시 부문 당선
- 1995년 8월 19일 제7회 경남문협 세미나(통영시청), 김한석·이승철·원신상·정용원·김무영 참석
- 1995년 9월 2일 제5회 선상 문학의 밤(마전동 물양장)
- 1995년 10월 17일 제15회 한글백일장(옥포정), 이윤섭 고문 제2회 거제예술상 수상(옥포관광호텔)
- 1995년 10월 20일 김한석회장 경남예술공로상 수상(도청광장), 경남문학의 밤(도청광장) 김한석·이영호·원신상 참석  
배석권 수필집 『묵은 생각속의 빛』 발간
- 1995년 10월 21일 작품낭송 및 황금찬 시인초청 문학강연회(옥포관광호텔)
- 1995년 10월 22일 배길수 시집 『홍포·여차』 출판기념회(거제문화원 전시실)
- 1995년 10월 28일 제15회 한글백일장 시상식(거제문화원 전시실)
- 1995년 12월 23일 『거제문학』 제13집 발간
- 1995년 12월 27일 『거제문학』 제13집 출판기념회(고현 다래웨딩부페)
- 1996년 2월 24일 정기총회 개최(회장 김한석, 부회장 이정보·원신상, 사무국장 김무영)
- 1996년 3월 2일 청마 고향시비 및 생가 방문(부산가톨릭문학회)
- 1996년 3월 20일 회보 제26호 발간
- 1996년 4월 3일 故 안영삼 유고시집 『바람꽃 흩날릴 그날』 출간기념회(장승포 성당)
- 1996년 6월 1일 원신상 제6시집 『고운 그리움 쌓여갑니다』 출간기념회(거제자연예술랜드)
- 1996년 6월 23일 제34회 옥포대첩기념 문학세미나 및 제16회 작품 낭송회(거제시복지회관)

- 1996년 6월 29일 『거제문학』 14집 발간
- 1996년 7월 7일 故 향파 김기용 선생 애란비 기공식 참석(고현)
- 1996년 7월 10일 김구림 시인 초청 류치환, 류치진 생가 확인 강연(거제문화원)
- 1996년 7월 24일 배길수 시집 『구름이 가는 길』 출간기념회(학동)
- 1996년 7월 28일 동량, 청마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위원회창립총회 위원장 이영호(거제시복지회관)
- 1996년 8월 2~3일 제2회 문학기행(경북, 안동, 영주)
- 1996년 8월 17~18일 96문학의 해 기념 거제해변문학축제 무원시조비 건립 추진 발기인 대회
- 1996년 10월 9일 한글날 기념백일장 주관(옥포정)
- 1996년 10월 20일 원신상 경남예술공로상 수상
- 1996년 10월 21일 신계전 시집 『이 세상은』 발간
- 1996년 10월 23일 제17회 시 낭송대회 개최(거제시복지회관)
- 1996년 10월 25일 무원시조비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정보) 창립대회 및 작품 발표·문학세미나(옥포관광호텔)
- 1996년 11월 15일 무원시조비 건립추진위원회 임원 선출(위원장 이정보, 부위원장 김백훈·원신상, 사무국장 김무영)
- 1996년 11월 23~24일 제3회 문학기행(전남 해남 보길도, 완도)
- 1996년 12월 고문삼 예술세계 시 부문 신인상 수상
- 1996년 12월 15일 김정숙 시집 『남녘 끝의 햇살』 출간기념회(서울롯데호텔)
- 1996년 12월 31일 『거제문학』 15집 발간
- 1997년 2월 22일 정기총회 개최
- 1997년 3월 15일 이금숙 시집 『쪽빛 바다에 띄운 詩』 출간기념회(옥포예촌화랑)
- 1997년 4월 4일 청마 유치환 30주기 문학세미나(거제프라자관광호텔 주제발표 오세영 서울대 교수·김준태·이하영·박철석 시인·남송우교수)
- 1997년 4월 5일 청마 류치환 묘소 이장(양산 백운공원묘지에서 거제시 둔덕면 방하리 선영)
- 1997년 4월 13일 제1회 대금산 진달래 축제 기념백일장 주관
- 1997년 6월 11일 옥포대첩 기념백일장 주관(옥포대첩기념공원)
- 1997년 6월 25일 배길수 제4시집 『내출리 풍경』 발간

- 1997년 6월 27일 이영호 산문집 『길손의 길』, 시집 『동백戀歌』 출간
- 1997년 7월 19~20일 제2회 해변문학축제 개최(와현해수욕장)
- 1997년 7월 25일 『거제문학』 16집 발간
- 1997년 9월 1일 효당 배석권 고회기념문집 『국사봉을 바라보며』 출간
- 1997년 9월 29일 석오 이영호 제4회 거제예술상 수상
- 1997년 9월 30일 제4회 거제예술제 기념문학세미나 개최
- 1997년 10월 1일 제4회 거제예술제기념 제2회 시낭송대회 개최(거제시복지회관)
- 1997년 10월 9일 제17회 한글날 기념백일장 주관(옥포정)
- 1997년 10월 20일 청마 유치환 시비제막(장승포 여객선터미널, 거진회)
- 1997년 11월 22~23일 문학기행(하동 평사리, 구례 화엄사, 순천 낙안읍성, 지리산)
- 1997년 12월 10일 청마 유치환 유품 임시전시관 개관(둔덕면 복지회관)
- 1999년 12월 21일 이승철 『거제도 민요집』, 『독로국 고찰』, 『한려수도칠백리』 출판 기념회
- 1997년 12월 26일 『거제문학』 17집 발간
- 1998년 2월 6일 정기총회(회장 이정보, 부회장 반평원·김정숙·윤창원, 사무국장 이금숙)
- 1998년 3월 8일 98거제동백축제 기념 백일장대회 개최(학동 동백숲)
- 1998년 4월 5일 청마 묘소이장 1주년기념식 및 제1회 청마시화전 개최(거제시 둔덕면 청마유물전시실)
- 1998년 6월 16일 제36회 옥포대첩기념 백일장대회 개최(옥포대첩공원)
- 1998년 8월 7~9일 해변문학축제(구조라해수욕장)
- 1998년 10월 9일 한글날 기념백일장(옥포정)
- 1998년 10월 19일 거제예술제기념 제2회 청마시화전 개최(거제시청)
- 1998년 10월 21~24일 거제예술제기념 문학작품 야외전시회(삼성문화관 야외 전시장)
- 1998년 10월 22일 거제예술제기념 시낭송대회 개최(거제시복지회관)
- 1998년 11월 7일 한국문협전국지부장대회 이금숙 사무국장 참석(충북 영동)
- 1998년 11월 14~15일 문학기행(경북 북부지방)
- 1998년 12월 17일 효당문학상 시상식(수상자 : 남송우 교수)

- 1998년 12월 24일 이승철 경상남도 문화상 수상
- 1999년 1월 15일 『거제문학』 제18집 출판기념회(고현 코리아뷔페)
- 1999년 2월 회원 정기총회(사업예산 및 결산심의)
- 1999년 4월 3일 제3회 대금산 진달래축제 백일장 개최
- 1999년 4월 5일 청마 묘소 이장 2주기 기념행사 참석(둔덕 생가)
- 1999년 6월 18일 옥포대첩기념 백일장대회 개최
- 1999년 7월 단비문학회 출판기념회 참석
- 1999년 8월 조성환 회원 문학세계 신인상 수상
- 1999년 8월 10일 동량·청마기념사업회 주관 제1회 청마시 백일장 주관
- 1999년 8월 15일 경주·안산문협 자매결연기념 청마생가 탐방 문학교류의 장 개최
- 1999년 9월 28일~10월 8일 제6회 거제예술제 문협·동인단체 시화전 개최  
(거제시청 민원실)
- 1999년 10월 8일 제4회 초·중·고 시 낭송 대회 개최(거제시복지회관)
- 1999년 10월 9일 제18회 거제문화원 주최 한글백일장 대회 주관
- 1999년 10월 10일 재거충청향우회 백일장 심사(삼성중공업)
- 1999년 10월 29일~11월 5일 이동시화전 개최(옥포 대우병원)
- 1999년 11월 26일 제1회 청마시 전국 백일장 시상식(거제문화원)
- 1999년 12월 16일 효당문학상 시상식(수상자 : 옥미조)
- 1999년 12월 거제문학 19집 발간
- 2000년 3월 26일 하동매화마을 문학기행
- 2000년 4월 28일 문학강연회(정진규 교수 초청 강연), 김정완 지부장 시집 “거제도” 출판기념회
- 2000년 6월 16일 옥포대첩기념 백일장대회
- 2000년 7월 16-17일 거경문우회 10집 기념 고향문화 순례
- 2000년 9월 29일 거제시민의 날 기념 거제예술제(6.25 50주년 문학세미나) 개최 거제문학 20집 기념특집호 출판기념회
- 2000년 12월 8일 효당문학상 시상식(수상자 이승철)
- 2001년 4월 14일 대금산 진달래축제 한글백일장 개최

## 3. 역대 임원 현황

연도	회 장	부회장	총 무	거 제 문 학	회 보
1982	이영호	정용원	김하영		창간호 : '82. 8.10, 2호 : 10. 30
1983	"	"	"	'83. 3.31 창간호	3호 : '83. 1.31, 4호 : 6.20, 5호 : 10.20
1984	정용원	최영이 옥남상	조무근	'84. 8.10. 2집	6호 : '84. 8.10, 7호 : 10.20
1985	"	"	"	'85. 4.30. 3집	8호 : '85. 1.21, 9호 : '85. 8. 1
1986	이윤섭	조무근 최영이	김무영	'86. 6.31. 4집	10호 : '86.12.15
1987	이영호	김한석	"	'87.11.10. 5집	11호 : '87. 2. 20, 12호 : 5.31, 13호 : 8.10
1988	"	"	"	'85. 4.30. 3집	14호 : '88. 3.21, 15호 : 6.28, 16호 : 12.20
1989	"	"	"	'89.12.10. 7집	17호 : '89. 6.26, 18호 : '89.12.20 19호 : '90. 3.31
1990	정용원	이승철	장외석	'90.11.30. 8집	20호 : '90. 9. 5
1991	"	"	"	'92.11.30. 9집	21호 : '91. 1.30, 22호 : '91. 7.30
1992	"	"	"	'92.12.30. 10집	23호 : '92. 5.23
1993	"	"	"	'93.12.30. 11집	
1994	정용원	김한석 이승철	여영운	'94.11.20. 12집	24호 : '94. 4.15
1995	김한석	이승철 강돈묵	김무영	'95.12.23. 13집	25호 : '95. 5.29
1996	"	이성보 원신상	"	'96. 6.29. 14집 '96.12.9. 15집	26호 : '96. 3.20
1997	"	"	"	'97. 7.25. 16집 12.26. 17집	
1998	이성보	반평원 김정숙 윤창원	이금숙	'99. 1.15. 18집	
1999	"	반평원 김정숙 윤창원	이금숙	'99.12.26. 19집	
2000	김정완	반평원 윤창원 김무영	양태철		



## 제5절 거제수필문학회

1997년 2월 22일 강돈묵, 최진의, 이승철 등 기성 수필가들이 주축이 되어, 25명의 회원으로 창립총회를 하였다. (회장 최진의, 부회장 정순애, 감사 이승철, 사무국장 이정순)

1997년 3월 21일 제1회 작품 합평회를 시작으로 매월 작품 합평회를 갖는다. 1997년 10월 제47회 개천예술제 한글백일장 산문부문 최우수상 임윤교, 가작상 오미옥, 1998년 10월 제48회 개천예술제 한글백일장 산문부 최우수상 정순영, 가작상 정순애였다.

1999년 3월 차은혜 「수필과 비평」 신인상, 1999년 5월 심인자 「수필과 비평」 신인상, 1999년 7월 「수필과 비평」 정순애 신인상을 받았다. 1999년 8월 5일 제1회 세미나(거제남 부해변), 1999년 11월 13일 거제수필 창간호 출판기념회, 2000년 2월 10일 정기총회 임원 개선(회장 이승철, 부회장 여영운, 감사 여형규, 사무국장 김양숙)

2000년 5월 임경숙 「문학 21」 신인상, 2000년 10월 우미순 「문학 21」 신인상

2001년 10월 23일 문학기행(청마 생가와 문화관광농원) 2001년 12월 거제수필 제3집 발간

2002년 3월 16일 정기총회(회장 이승철, 부회장 정혜숙, 여형규, 감사 정순애, 사무국장 김양숙)

## 제6절 문학 동아리

### 1. 단비문학회

- 명 칭 : 단비문학회
- 소재지 : 거제시 옥포 2동
- 회 원 : 시문학 동인 회원 10명

#### 1) 유 래

1988년 거제지역에 문학의 단비를 뿌려보자는 취지로 7명의 회원들이 모여 창립하였다. 대우조선에 근무하는 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과 학생 7명이, 1988년 4월 7일 「단비」 창간호를 시작으로 3권의 문학지를 출간하였다. 1989년부터 시, 소설, 수필 등에 활동하는 문학도를 회원으로 확대하여, 문학인구 저변 확대에 노력 하였다. 창설회원으로 김경곤, 민윤기, 이정태, 유동삼, 제영철, 허우련, 김덕래 등이며, 2000년 현재 회원은 민

윤기, 이정태, 유동삼, 제영철, 허우련, 백준웅, 황지영, 어수현, 정길섭, 강재호 등이다.

## 2) 주요업적 및 업무

- 연 1회 동인시집 발간(현재까지 16집)
- 연 1회 시화전 개최(거리시화전)
- 연 1회 문학의 밤 행사

## 3) 활동상황

- 1988년 5월 25일 단비문학창간호 「단비」 발행, 국판 500부
- 1988년 8월 31일 단비문학 2집 「문혀온 별빛 머금고」
- 1988년 12월 23일 단비문학 3집 「메마른 가을에 핏빛 영혼담아」
- 1989년 3월 21일 단비문학 4집 「아우라지」 당시 회원 41명
- 1989년 9월 23일 단비문학 5집 「서걱이는 풀잎에」
- 1990년 3월 10일 단비문학 6집 「풀잎이 이슬 털고」
- 1990년 10월 20일 단비문학 7집 「까만 꽃씨로 여물어」
- 1991년 4월 7일 단비문학 8집 「빛은 틈사이로」 1,000부 발행
- 1993년 2월 20일 단비문학 9집 「두번째 언덕배기」
- 1994년 5월 25일 단비문학 11집 「나무가 겨울을 이기는 비결은」
- 1995년 3월 30일 단비문학 12집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아침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저녁」
- 1996년 3월 25일 단비문학 13집 「땅으로 크는 나무」
- 1997년 9월 28일 단비문학 14집 「굼벵이의 여름」
- 1998년 4월 7일 단비문학 15집 「셋강이 셋별을 안고」 1,000부 발행
- 1999년 7월 22일 단비문학 16집 「달의 꼬리를 베고 자다」 1,500부 발행

## 4) 행사실적

- 1990년 5월 7일 옥포대승첩기념제전 ‘문학의 밤’ 행사 주관
- 1990년 10월 30일 단비문학회 사무실 개관
- 1991년 9월 2일 ’91 선상문학의 밤행사 공동주관
- 1992년 4월 7일 단비문학의 밤 행사
- 1992년 10월 16일 ’92 선상문학의 밤 행사

- 1993년 10월 20일 '93 선상문학의 밤 행사
- 1995년 9월 2일 '95 선상문학의 밤 행사
- 1996년 8월 '96 선상문학의 밤 행사
- 1997년 8월 9일 제1회 거제해변문학백일장축제, 제8회 선상문학의 밤 행사
- 1998년 4월 7일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15집 출판기념회
- 1998년 8월 8일 제2회 해변문학축제, 제9회 선상문학의 밤 행사
- 1990년 7월 22일 단비문학 16집 출판 및 시낭송의 밤 행사

### 5) 기타활동 사항

- 1989년부터 1993년 말까지 회원 및 독자 교육과 홍보를 목적으로 회보 40여회 발행
- 1994년 3월과 9월 작품회보(소시집) 「오직 하나된 둘로서」, 「쇠비를 지식으로」 발행

### 역 대 회 장 현 황

대 별	성 명	재직기간	연 수	중 요 업 적
초대회장	유 동 삼	1988~1989	1년	단비문학회 창단 거제문화 유적 답사
2대	최 왕 순	1989~1990	2년	정선아라리 답사, 단비회보 발간
3대	김 경 곤	1990~1992	2년	단비문학회 사무실 개설
4대	허 우 련	1992~1993	1년	양산 삼성전과 문학동인 교류
5대	민 윤 기	1993~1998	5년	거리시화전 개최
6대	제 영 철	1998~현재		고성문인협회 교류

## 2. 거제 시(詩) 사랑회

- 소재지 :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 회 원 : 28명
- 시사랑회 발기 : 거제에 생활터전을 둔 사람으로, 시를 사랑하고 우애를 다지기 위하여 원신상, 이영호, 반평원, 안영삼, 이행규, 조규근, 이금숙, 박근희, 김무영, 전기풍, 이영태, 제영철, 허우련, 민윤기, 이정아 등이 발기인 대회를 가졌다.

## 1) 연 혁

- 1992년 6월 2일 옥포 노을이진 바다에서 발기인 대회를 가짐.
- 1992년 7월 17일 고현 고려다방에서 창립총회.  
고문 이영호, 회장 원신상, 부회장 안영삼·반평원·김한석,  
총무 이금숙
- 1992년 10월 15일 제3회 선상문학의 밤 참가
- 1992년 12월 29일 고현 고려다방에서 제1회 시낭송회 개최
- 1993년 7월 12일 회보 창간호 발간
- 1993년 10월 2일 독로문화제 문학의 밤 개최(복지회관 대강당)
- 1994년 7월 KBS 창원방송국 문화가 산책 프로그램 출연 시사랑회 소개  
및 포로수용소, 서이말등대를 배경으로 촬영
- 1994년 10월 2일 회보 2호 발간
- 1994년 10월 제5회 선상문학의 밤 참가
- 1995년 5월 3일 정기총회 회장 반평원, 부회장 이금숙, 감사 전희준·김무영,  
총무 고영준
- 1995년 7월 16~17일 제1회 문학기행 전남 강진군 영랑 김윤식 생가 다산 초당 등
- 1996년 3월 7일 제2회 시낭송회 개최 고현 '석화촌'
- 1996년 4월 30일 회칙 제정 및 회보 제3호 발간계획 협의
- 1996년 6월 22일 회보 제3호 발간
- 1996년 7월 28일 동량 청마기념사업회 창립총회(거제복지회관), 회장 이영호 피선
- 1996년 11월 15일 무원시조비건립추진위원회 개최, 위원장 이승보 피선
- 1997년 10월 20일 청마 유치환 '그리움' 시비 장승포 여객선 터미널에 제막
- 1998년 10월 19일 청마기념사업회와 공동주최 주간 청마시화전 개최(거제시청 민  
원실)
- 1999년 8월 10일 청마기념사업회 제1회 청마시 전국백일장 본회 주관 학동에서  
개최
- 2000년 3월 26일 학동매화마을 문학기행
- 2000년 8월 10일 청마기념사업회 주최 제2회 청마시 전국 백일장 본회주관 학동  
에서 개최
- 2001년 2월 24일 정기총회
- 2001년 4월 30일 회지 창간호 '나목은 봄이면 펄럭인다' 500부 발행

### 3. 섬시 동인회

1983년 3월, 거제도에서 문학운동의 불씨가 되고자 「불씨글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어, 1985년 10월에 「섬시 동인회」로 명칭을 바꾼 시문학 동인회이다. 거제문인협회와는 다르게 거제 출신의 젊고 의욕적인 문인들이 주축이 되었으며, 섬으로서의 또한 유배지로서의 거제의 문화를 발굴하여 시의 형식을 통해 표현하고, 계승·발전시키겠다는 결의를 창립취지로 하고 있다. 이들은 부모형제의 땅, 그리고 자식들이 살아갈 땅 거제도에서 직접 생활하면서, 그 체험을 소중하게 시어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고집스럽게도 회원들에게 철저히 거제인이 될 것을 요구하고, 거제의 역사와 현실을 공부하며 느낄 것을 강조하면서, 회원 자격 또한 거제 출신자이거나 5년 이상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다. 1985년 12월 시집 창간호인 ‘불씨’를 발간한 이후 지금까지 4권의 시집을 내놓고 있다. 또한, 1987년 7월부터 타블로이드판으로 월간 회보를 9호까지 발행하였고, 1988년 5월의 10호부터는 회보 대신 소시집을 발간하여, 현재 27호(유월의 바다)까지 발행하였다.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몇번의 위기를 넘긴 섬시동인회는 현재 10명의 회원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주요 행사로는 매년 8월에 여름시인학교를 열어 타지역 문학인 초청강연과 시낭송, 우수작품 시상 등을 하고, 11월에 문학의 밤 행사를 통하여, 문학강좌와 시낭송 등의 활동을 벌여오고 있으며, 내부사업으로 회원간의 문학토론회와 야외습작 등을 하고 있다. 이들의 연락과 모임 장소는 회원이 운영하는 옥포동 소재의 카페 「노을이 지는 바다」를 사용하고 있다.

### 4. 글이랑

거제지역의 주부문학모임 단체로 윤지영이 주축이 되어 1990년 4월말부터 준비모임을 거쳐, 5월에 창립된 단체다. 어린 시절 모친이 땀 흘려 가며 가꾼 밭이랑에서 주먹만한 고구마가 줄줄이 나오듯이, 펜을 들고 글이랑을 설새없이 북돋우고 가꾸어서, 주부들의 내면세계를 성숙시키자는 취지의 모임이다. 처음 10명의 회원이 시와 수필을 쓰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론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문학단체이다. 매월 첫째 목요일 오전에 창작품 1편씩을 제출하여 낭독하고 감상하며, 작품에 대한 서로간의 의견을 교환한다. 그리고 셋째 목요일에는 중간모임을 갖고, 시와 수필에 대한 이론과 작문법을 공부하는 단체이다.

## 5. 등 지

1990년 1월에 창립된, 대우병원 내의 문학단체이다. 직장 내에 화목한 분위기를 유도하고 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취미활동으로 문학단체를 만들었고, 20명이 회원(간호사와 사무직사원)으로 구성되어, 대우병원 사보를 통하여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근무시간이 서로 다른 병원의 특수성 속에서 어려움이 많지만, 이를 극복하며 매일 저녁에 정기모임을 갖고 있는데, 주로 강사의 강의와 습작,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회원들의 작품과 병원에서 생활했던 환자들의 편지 등을 모아, '우리들의 병상일기'라는 소책자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 6. 갈무리

1987년 고현중학교 출신의 학생 7명이 학생문화 교류의 장으로써 설립한 학생문학단체이며, 지도교사와 32명의 회원(고현중학교 출신)들이 활동하고 있다. 회원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회지 '갈무리'를 1년에 2회씩 발행하여, 현재 5호까지 내놓았다. 또한 매년 초에 '길목에서'라는 문학행사를 갖는데, 창작발표, 노래, 기성작가 작품낭송, 연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짜여진다. 그러나 회원들이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고, 신분이 학생이라는 제약 속에서 항상 모임은 이루어지지 않고, 회지발간과 하계수련회 그리고 각종 해사 전, 후로만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아쉬움이 있다.

## 7. 햇 귀

1989년 1월에 옥포성당 청년들을 중심으로 17명이 모여 창립한 단체이다. 1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때 소책자를 발간해 왔고, 앞으로는 문학의 밤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창립 이후 회보를 3호까지 발행하다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중단된 상태이다. 자체적인 활동으로는 매주 월요일 저녁에 있는 정기 모임에서의 시 창작법과 비평, 토론 등과 와현 공고지와 문동폭포에서의 야외습작을 들 수 있다.

## 제7절 효당문학상(孝堂文學賞)

효당문학상은 효당(孝堂) 배석권(裴錫權)의 호를 따서 제정한 문학상이다. 효당은 고

향을 떠나 부산에서 사업가로 성공하였고, 문학가로 한국문단의 중견작가로 활약하였다. 이 상이 제정된 동기는, 1991년 5월 경남아동문학상 수상식장에 초대받은 효당이 고향 후배들의 문학발전을 위해 문학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정목일 수필가(경남문인협회 회장)와 의논하여 이 상을 만들게 되었다.

효당의 자비(自費)로 운영하는 이 상은 매년 12월경에 시상하며, 수상대상자는 거제문인협회 회원이나 거제출신 문인으로 작품성이 우수하고, 인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상에 따른 모든 운영금은 2천만원으로 시작, 5천만원까지 추가하여 운영위원회에 내어 놓았다.

## 1. 배석권(裵錫權)

- 호 : 효당(孝堂)
- 본 관 : 분성(盆城)
- 본 적 : 거제시 신현읍 수월리 964번지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3동 1200-14 번지
- 생년월일: 1927년 8월 15일(음 7월 16일)
- 1927년 신현읍 수월리에서 부(父) 배봉규(裵奉奎)와 모(母) 김월금(金月今) 사이에서 5남 2여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 1) 학력 및 약력

- 1932년 한학 수학
- 1938년 일운보통학교 졸업
- 1945년 釜山草梁實踐商業學校 卒業
- 1950년 南正企業社 대표
- 1951년 戰時 聯合大學 修學
- 1956년 港口劇場 공동대표
- 1962년 합자회사 대성건설 부사장
- 1965년 嶺南荷置場 대표
- 1973년 新都산업주식회사 대표
- 1975년 재부 일운공립보통학교 동창회장
- 1975년 부산 제1라이온스회장
- 1982년 재부 거제향인회 회장
- 1982년 거제문인협회 고문

- 1984년 동백빌딩 대표
- 1988년 재부 신현읍지 편집 및 발행인
- 1990년 한국문인협회 [월간문학] 신인상 수상, 문인으로 등단
- 1990년 학국문협 이사, 부산문협 고문
- 1990년 부산수산대학 산업대학원 최고 경영자과정 수료
- 1991년 효당문학상 제정
- 1992년 동구문화예술인협회 회장
- 1992년 가산(伽山)문학회장 동인지 발행
- 1993년 월간문학 부산동인회 회장, 동인지 발행
- 1994년 경남신문 칼럼위원
- 1994년 경남예술상 수상
- 1994년 동구문예지 발행
- 1994년 부산 동구 구민이 주는 (愛鄉大賞) 수상
- 1994년 한국문인협회 주관, 동포문학상 수상
- 1995년 동구문화예술인협회 회장
- 1998년 거제수필 고문

## 2. 연도별 효당문학상 수상자

회	연 도	수 상 자	장 르
1	1992	이 영 호	시
		정 용 원	아동문학
2	1993	김 한 석	시 조
3	1994	최 영 이	소 설
4	1995	원 신 상	시
5	1996	이 성 보	시 조
6	1997	박 철 석	시
7	1998	남 송 우	평 론
8	1999	옥 미 조	아동문학
9	2000	이 승 철	수 필
10	2001	옥 문 석	시



## 제6장 음 악(音樂)

음악은 악(樂)이라는 용어가 음악의 넓은 의미로 쓰여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대부터 악(樂), 가(歌), 무(舞)의 총체적인 개념이 음악의 일반적인 형태로 인식되어 왔는데, 여기에서 ‘악’이란 기악음악을 말하고, ‘가’는 성악을, ‘무’는 춤을 가리킨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음악이라는 용어는 서양의 뮤직(music)을 영어, Musica 독일어, musipue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성악과 기악을 모두 포함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 말과 글을 쓰면서 민족문화의 기본적인 동질성을 함께 누려온 음악이 우리 음악이다. 외국음악이라 하더라도 오랜 세월동안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나라 사람에 의하여 한국화된 음악은 한국음악의 범주에 속한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와 밀접한 문화교류를 가졌던 중국음악이나 그 밖의 외래음악들이 오늘날 한국음악의 범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은, 오랜 세월을 거치는동안 한국음악으로 되는 여과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1900년대 서양에서 들어온 양악(洋樂)도 언젠가는 한국음악이라는 범주에 넣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음악의 특징은 우선 음악의 구성요소에 잘 나타난다. 오늘날 서양음악에서 음악의 세 가지 요소라고 말하는 선율(멜로디), 장단(리듬), 화성(하모니)이다. 우리 음악에서는 화성에 해당하는 요소가 빠져 있다. 한국음악은 오랜 세월을 두고 중국과 교류하여 왔고, 중국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역사적 사실때문에 중국음악과 거의 비슷한 특징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으나, 사실상 한국음악은 동양권의 어느나라 음악과도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상고시대는 북쪽의 부여(夫餘), 옥저(沃沮), 예(濊)와 남쪽의 마한, 진한, 변한이 병존하였다. 5월 하종(下種)과 10월 추수 끝에 농사의 풍작을 감사하는 굿을 벌렸다. 농경사회에서 불렀던 민요는 지금까지도 우리의 노래로 이어져 오고 있다.

삼국시대부터 음악이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고구려의 속악이라고 기록된 “내원성”, “연양”, “명주” 등과 같은 지방의 민속악과 관련이 있다. 통일신라에서는 당악(唐樂)의 수용은 한국음악사에서, 한국음악과 외래음악을 구분하는 계기가 된다. 고구려에서는 종묘사직 등 국가의 중요한 제사에 사용된 아악은 중국 고대의 의식음악에서 가져왔다. 조선 세종 때 정간보(井間譜)의 기보법(記譜法)을 이용하여, 처음 악보가 만들어졌다. 1행 32절과 1행 16절의 정간으로 되어 있다.

## 제1절 거제 재인청(才人廳 : 神廳)

조선 말기에 거제면 서정리(현 거제초등학교)에 재인청이 있었다. 재인청은 지방에서 활동하였던 직업적인 민간 예능인의 연예활동을 행정적으로 관장하던 곳이다. 이곳을 광대청(廣大廳), 장악청(掌樂廳), 신청(神廳), 풍류방(風流房), 공인청(工人廳)이라 하였다. 재인청은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각 군(郡)에 두었다. 그런데 경남지방에서 유일하게 거제에 신청이 있었던 것은 통제영 관할에 있었고, 해안의 별신굿을 비롯하여 당제가 행하여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인청의 우두머리는 수청(首廳)이라 불렀다. 각도의 재인청 총수는 대방(大房)이라 하고, 그 아래 도산주(都山主)라 했다. 재인청의 행정적인 업무는 청수가 거느린 공원(公員)과 장무(掌務)가 담당하였다. 재인청의 주된 임무는 무당들의 반주와 음악을 담당하던 무부(巫夫)들의 무속음악 뿐 아니라, 그 당시 백성들을 상대로 펼쳤던 광대의 오락적인 연예활동을 행정적으로 다스렸다. 이러한 재인청은 일제시대도 그대로 존속을 했다. 반상의 계급에 의해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없어졌다.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신청이란 이름으로 전해져 오고 있으나, 풍류방으로 이름을 고쳐 놀이문화방으로 만들기도 했다. 풍류방에는 남자 해금잡이인 전악(典樂), 장구잡이인 계대(啓對), 여자 징잡이인 자비(自備)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무업(巫業)에 종사하였다. 통영에 별신굿이 전래되고 있다. 이들 역시 거제 신청에서 배웠다. 박복계를 비롯하여 이들의 고향이 대부분 거제였고, 율대로부터 전승을 받은 세습무다.

## 제2절 거제도 민요

민요는 언어문화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특히, 민중의 노래로 정신문화와 생활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민요의 흐름은 민족의 이동과 삶의 역사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거제도지방의 노래는 대부분 구전에 의해 육지로부터 전해 온 것들이다. 둔덕, 사등, 거제, 동부, 남부지역은 호남지역의 판소리가 많이 유입되었고, 고현, 연초, 하청, 장목, 장승포지역은 내륙의 농요가 흘러들어 왔다.

이런 농요가 거제에서 거제의 노래로 다시 태어나기도 하였다. 거제의 뱃노래, 귀양살이 노래 등이 대표적이다.(거제민요집 참고)

### 제3절 서양음악의 수용과 발전

서양음악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는 1885년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포교를 시작하면서, 그들이 가르친 찬송가에 의하여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삼국시대에 서역으로부터 유입된 공후(箏篳)라는 악기가 고대 이집트의 악기와 관련이 있다. 고려시대에는 원나라를 통하여 서양악기가 고려에 전해져온 기록도 있으나,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본격적인 서양음악의 유입은 조선 말기부터다.

### 제4절 한국음악협회 거제지부

#### 1. 개요

- 사무실 : 장승포동 410-1(예충건물 내)
- 창립배경

음악의 불모지인 거제에 대우·삼성조선소가 들어서고부터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 이들과 지역사람들이 음악을 통해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삶의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 음악인들이 모여 협회를 구성하여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있다.

#### 2. 연혁

- 1993년 11월 한국음악협회 거제·장승포지부 창립
- 1995년 1월 한국음악협회 거제지부로 개칭

#### 3. 임원 및 회원

대 수	지 부 장 (회 장)	부지부장 (부회장)	감 사	사무국장	임 기	회 원
1대	김영환	최창훈	최석기	지미나	2년	32명
2대	최창훈	임순복 배종철 한지경	한지경	권장래	중임 2년	28명

## 4. 주요 업적

행 사 명	일 시	장 소	내 용
가족노래부르기대회	'94. 5	옥포극장	가족 중창팀 구성, 경연
초·중 독창경연대회	'94. 10	복지회관	초·중학생들의 독창경연
회원 음악회	'94. 10	다목적홀	회원들의 연구발표회
거제합창제	'95. 6	다목적홀	거제지역 합창단의 축제 한마당
거제청소년 합창단	'96. 10	대우 남문홀	매년 회원친목 음악행사 및 음악동호인 단체
창단공연	'99~		음악지도(주부합창단, 시립합창단 등)
기타 행사	2001		거제청소년합창단 창단공연

## 제7장 연극(演劇)

연극은 배우가 특정한 연희(演戲)의 장소에서 관객을 앞에 두고, 극본 속의 인물로 분장하여 몸짓, 동작, 말로써 창출해 내는 예술이다. 따라서 연희자 또는 광대의 존재는 필수적이지만, 광대를 대신하는 인형(꼭두각시)을 사용할 수 있고, 얼굴에 탈을 쓰고 인물을 가장하는 경우도 있다. 연희의 장소 또는 놀이판과 굿판에서 고정된 극장무대에 이르기까지 다양각색일 수는 있으나, 특정한 장소의 개념은 연극에서 빼놓을 수 없다.

그리고 관객은 단순한 구경꾼에서 연희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들의 존재 없이는 연극을 생각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연극형성의 본질적 요소로 간주된다. 이상의 세 가지 즉 배우, 무대, 관객을 연극의 기본요소라 한다. 여기에 더 추가한다면, 극본이다. 연극의 생명체는 극본에 있다. 생명체가 아무리 잘되어 있어도 배우가 표현을 잘하지 못하면 생명체를 잃고 만다.

기록에 의하면, 삼한의 부족생활에서 1년에 한 두차례 국중대회(國中大會)를 열어 제천(祭天)의식을 했다. 이때 가무백희(歌舞百戲)를 하였다. 그 속에 원시적인 연극 즉, 무의식적인 연극이 들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부여의 영고(迎鼓), 고구려의 동맹(同盟), 예의 무천(舞天), 마한의 춘추농경제, 가락의 희락(戲樂)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고대의 제천의식의 실상은 동제(洞祭)의 민속에서 그 유풍을 찾을 수 있다. 그때 연희되었던 가무백희도 현존하는 동제의 농악이나 각종 탈놀이, 민속놀이 등에서 그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 거제지방에서 아직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삼한시대 두로국(濩盧國)의 치소가 있었던 곳으로, 천신계 국태민안(國泰民安)의 천신제를 올리면서 북을 치고, 제무(祭舞)를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동제를 비롯하여 해안마을마다 별신굿이 있었다. 그리고 오광대의 마지막 정착지가 거제라 한다.

조선시대 후기부터 광복 후까지도 줄타기, 꼭두각시놀이, 1인 창극 등이 마을을 돌며 공연을 하였다. 무대를 이용하여 연극을 한 것은, 1902년 고종황제의 즉위 40주년 기념식에 무회와 명창 170여 명이 출연하였다. 이때, 황실극장 격인 협률사가 공연을 한 것이 극장의 시초라 할 수 있다. 1908년에 협률사는 원각사라는 이름으로 민간대여 극장으로 바뀌었다. 이동백을 단장으로 하여, 남자 40명, 여자 24명의 단원을 가졌다. 신파극이 일본으로부터 들어 오면서, 원각사를 중심으로 한 창극은 지방으로 밀려 났다.

1931년에 본격적인 신극운동 단체인 극예술연구회(劇藝術研究會)가 유치진(柳致眞), 서항석(徐恒錫), 이현구(李軒求) 등 해외 문화파가 주류를 이루는 12명의 젊은 연극인

이 서구 근대극 수용을 통한 신극 수립을 내걸고 연극단체를 발족시켰다.

연극이 일반 대중 속으로 깊숙이 파고 들게 된 것은, 6·25동란 후 이북 피난민들에 의해 유랑극단이 생겨났고, 마을마다 명절 때 연극을 했다. 춘향전, 심청전 등의 고전을 비롯하여, 자유물결을 타고 있던 선진 외국의 유명작품을 번역한 작품도 있었다.

## 제1절 연극계의 대부 동랑(東朗) 유치진(柳致眞)

### 1. 약 력

유치진(柳致眞) : (1905~1974) 극작가로 거제시 둔덕면 방하리 산방에서 출생했다. 호는 동랑(東朗), 5살 때 충무로 이사가서 1918년 통영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그뒤 부산우체국 사무원이 되었다. 3·1운동 이후 일어난 교육열의 영향으로, 1920년 일본으로 건너가 도요야마중학교(豊山中學校) 2학년에 편입하여, 1925년에 졸업하고, 다음해 릿쿄대학(立教大學) 영문과에 입학하여, 1931년에 졸업하였다.

롤랑(Roland. R)의 <민중예술론>을 읽고 연극에 뜻을 두어 귀국, 해외문학과(海外文學派) 동인들과 함께 극예술연구회(劇藝術研究會, 약칭 극연)를 조직하여 본격적인 신극운동을 벌였다. 극연을 주도하면서, 극작·연출 등을 주로 맡았다. 일제의 탄압에 의하여 극연이 해산된 이후, 1941년에는 극단 현대극장(現代劇場)을 조직하여 한때 어용극을 직접 쓰기도 하면서, 총독부의 지시에 따른 연극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광복 이후 잠시 침묵하다가, 1947년 봄부터 연극계 전면에 나타나 좌익 연극과 대결하여 우익 민족극을 주도하였다.

이해랑(李海浪) 등을 내세워 극단 극예술협회(劇藝術協會)를 조직하였고, 한국무대 예술원을 창설하여, 초대 원장(1947)이 되었다. 1950년에 국립극장이 창설되자, 초대 극장장에 취임하였고, 자작극<원술랑(元述郎)>으로 개관 기념공연을 가졌다. 6·25 남침 때에는 은거하면서, 희곡 창작에만 전념하였다. 1958년부터는 국제연극협회(ITI) 한국본부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국제회의에 자주 참가하였고, 1960년에는 동국대학교 연극학과 창설과 드라마센터 건립공사에 전념하였다.

1962년 드라마센터가 완공되자, 초대 소장으로 취임하여 연극 진흥에 힘썼다. 그러나 드라마센터가 재정난으로 문을 닫게 되자, 인재 양성쪽으로 방향을 돌려, 1962년부터 드라마센터에 부설 연극아카데미를 설치하여, 배우·연출가·극작가 등의 양성에 힘

졌는데, 이것은 몇년 뒤 연극학교로, 다시 예술전문대학으로 승격되었다.

그의 작품은 초기에는 식민지 수탈과 민족의 궁핍화과정을 사실주의 수법으로 그렸으나, 일제의 탄압이 심하여지자, 역사극과 낭만주의 쪽으로 방향을 돌려 주로 애정을 주제로한 작품을 쓰는 등 현실도피를 꾀하였다. 광복 이후에는 주로 분단문제와 공산주의 비판, 전쟁의 참혹상 등을 주제로한 민족주의적 리얼리즘의 작품을 발표하였다.

주요 희곡작품은 《토막(土幕)》이다. 이어서 1933년 《버드나무 선 동네 풍경》, 1934년 《빈민가》, 1934년 《소》, 1937년 《마의태자》, 1938년 《제사》, 1946년 《조국》, 1947년 《자명고》, 1948년 《별》, 1950년 《장벽》, 1952년 《가야금》, 1953년 《처용의노래》, 1954년 《푸른성인》, 1955년 《청춘은 조국과 더불어》, 1958년 《한강은 흐른다》 등이다. 시나리오 는 1953년 「철조망」, 1957년 「논개」, 1957년 「단종애사」, 1958년 「개화전야」 등이 있다.

연극계에 끼친 공로로 예술원상, 문화훈장, 5월 문예상, 3·1 연극상 등을 받았다.

저서로는 유치진희곡전집 상·하권, 동량자서전 그리고 많은 연극관계 논문을 남겼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인 리얼리즘 희곡작가로서 역사극의 장르를 개척한 극작가이며, 극작, 연출, 연극비평, 연극교육, 연극행정 등 연극 전반에 걸쳐 활동한 근대 연극사의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된다.

자료 : 한국연극사

## 제2절 한국연극협회 거제지부

○ 소재지 : 거제시 옥포 1동 443번지 옥포극장

○ 창립배경

거제대교 개통과 더불어 대우조선이 들어 오면서 각지에서 다양한 인구가 유입되어, 예술에 대한 인식과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때 거제고등학교 교사, 최태황, 정효영을 비롯하여, 김대윤, 홍종갑, 김우섭 등이 경희미술학원에서 받기를 하였다.

예술발전의 근본이 되는 ‘예(藝)’자와 거제도의 ‘도(島)’자를 따서 예도(藝島)란 이름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연극을 통해 지역문화와 예술의 발전에 기여하였고, 극단으로서 거제도를 예술의 섬으로 만드는데, 그 일익을 담당하였다. 많은 지역인과 함께 문화의식 고취를 도모하고 있다.

## 1. 연혁

- 1990년 10월 극단 [예도] 창립
- 1991년 4월 창립공연 “일요일의 불청객”
- 1992년 2월 극단 [예도]사무실 및 연습실 개관
- 1992년 5월 한국연극협회 거제지부 인준
- 1994년 5월 극단 [예도] 전용 소극장 개관
- 1997년 3월 제15회 경남연극제 유치 (대우 다목적 홀)
- 1999년 5월 극단 [예도] 옥포극장 개관

## 2. 임원 및 회원

대 수	고 문	지부장 (회장)	부지부장 (부회장)	감 사	이 사	사무국장	임 기	회 원
초대부터 현재까지	전창수 이장표 장상훈 정영배	최태황	정효연	오창도		홍순선	4년	18명



## 제8장 미 술(美術)

넓은 의미에서의 미술(Fine arts)은 시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미적 표현 일체를 뜻하고, 좁은 의미에서 미술은 즉, 시각적 관례상 보통 건축, 회화, 조각, 공예같은 분야에서 얻어지는 특정한 감정과 심상(心象)을 평면 또는 입체적으로 구형(具形), 표현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작가의 작업은 형태, 면(面)·선(線)·색(色)·기호(記號) 등 갖가지 요소를 하나의 통일체로 종합하여 자기의 심정을 전달하고 미적 쾌감을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어느작가나 또 어떤 특정한 지역, 특정한 시대의 미술에서는 제작상의 특색, 즉 방법상의 개성이 있게 마련인데, 미술 창작상의 개성을 양식(style)이라고 한다. 개성을 사실주의와 이상주의로 나눌 수 있다. 사실주의는 객관적인 현상을 실제적인 현실로 받아들이는 표현방법이다. 미술은 시대적 변천과 민족적인 표현이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을 민족적 시대문화라 한다.

한국의 미술사는 선사시대부터 생활의 모든 것에서 이루어져 민족발달에 따라 변하기도 했고, 외부로부터 도입되기도 했다. 거제도의 미술사는 어디에서부터 어떤 부분을 정리해야 할지 기준이 어렵다. 미술이라 하면 조각이나 공예보다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는 것을 미술이라 생각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림과 글씨에 대한 것만 논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조선 중기에 그린 거제도 지도가 있고, 동양의 명필로 이름난 성파(星坡) 하동주(河東州)선생과 그 맥을 이은 김병욱, 이기현 그리고 독창적인 초서체가 일본, 중국 등지까지 알려진 국정 김현봉, 근세사에 농촌생활의 미풍을 남긴 양달석 화백 등이 있다. 설립배경은 향토미술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그 권익을 옹호하며, 우리지역 미술활동의 발전 및 창달에 기여함.

### 제1절 미술사적 유물

#### 1. 거제지도 및 그림

- 시대 : 조선 중기
- 작가 : 미상

동아대학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거제지도는 조선 중기에 그려진 거제도 지도다. 산과 강, 도로가 잘 나타나 있다. 거제면 지역이 거제현이 있었던 치소로 건물이 상세히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1663년 이후에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 2. 금동불화(金銅佛畵)

- 시 대 : 조선 중기
- 작 자 : 미상

장목면 장흥암에 소장하고 있는 금동불화는 가로, 세로 1.5m로 그려져 있는 불화다. 망사(網絲)에 섬세하게 금과 은분으로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는데, 1970년 중반에 도난당하였다가 되찾았다. 그때 많이 훼손되었다.

## 3. 민화병풍(옥정포 소유)

- 시 대 : 조선 말기
- 작 자 : 미상

연초면 송정리 옥정포 소유, 6폭 병풍이다. 뒷면은 사임당 시가 있는데, 목판으로 인쇄되어 있고, 채색이 고운 당채(唐彩)로 화조(花鳥)를 그린 침방용 병풍이다.

## 4. 민화병풍(김우식 소유)

- 시 대 : 조선 말기
- 작 자 : 미상

신현읍 양정리 김우식 소유, 민화병풍은 조선 말기에 쌀 한섬을 주고 그린 8폭 병풍이다. 당채(唐彩) 화조(花鳥)그림이 양호하다. 뒷면은 한시로된 글씨가 있다.

## 5. 기성관(岐城館) 단청(丹青)

- 시 대 : 조선시대
- 작 자 : 미상
- 소재지 : 거제면 동상리 546-1번지

조선시대 거제현의 부속건물인 기성관은 정면 9칸, 측면 3칸이다. 목조와가인 이 집

은 익공(翼工)식 우물마루 집이다. 건물 내부에 그려져 있는 단청은 불화식(佛畵式) 남아(南亞)단청의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승과 저승을 상징하는 윤회의 그림에서부터 천신과 지신, 용왕, 당산신을 숭배하는 토속적인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그림이다. 채색이 곱고 힘찬 용트림은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이 있다. 1975년 해체복원을 하기전에 있었던 단청은 조선 말기에 그렸던 것인데,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 그림을 묘사하여 복원을 하였지만, 옛날처럼 화려하지 못하다.

거제는 산자 수려하여, 많은 문사와 서예가가 탄생되었다. 섬이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했다. 특히, 거제의 남·서부지역은 산방산이 필봉으로 그 영향을 받아, 서예가가 많이 탄생하였다.

## 제2절 미술협회

### 1. 한국미술협회 거제지부

- 소재지 : 거제시 장승포동 410-1번지(예충건물 내)
- 창립배경 : 향토예술인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그 권익을 옹호하며, 미술활동의 발전 및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술은 1973년 대우조선소가 들어오고부터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어 들어왔다. 그들 가운데 그림에 취미가 있는 사람들과 지역민들이 동우회를 만들어 미술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초대 회장에 동양화가 김성택이었다. 이때 대우조선소 내에서는 허인수, 조재규 등이 심상회를 조직하였다. 허인수는 묵향회를 조직하여, 서예보급에도 힘썼다.

거제미술은 강성중, 허인수, 박종민, 조재규, 박영숙, 강영봉 등이 주축이 되어, 법인 단체를 만들었다. 매년 동인전을 비롯하여, 바다미술제를 비롯한 소품전을 가졌다.

#### 1) 임원 및 회원

대 수	고 문	지 부 장	부지부장	감 사	사무국장	임 기	회 원
초 대	.	강 성 중	박 종 민 허 인 수	조 재 규	김 정 득	2 년	22명
제2대	강 성 중	박 종 민 조 재 규	허 인 수	박 영 숙	석 흥 권	2 년	28명

대 수	고 문	지 부 장	부지부장	감 사	사무국장	임 기	회 원
제3대	강 성 중	신 현 수	김 형 태	여 형 규	강 영 봉	2 년	28명
제4대	강 성 중	허 인 수	구 자 옥 박 영 숙	석 홍 권 정 현 주	이 재 구	2 년	36명
제5대	강 성 중	박 영 숙	정 현 주 석 홍 근	신 영 미 김 광 수	이 재 구	2 년	38명

## 2) 주요 업적

행 사 명	일 시	장 소	내 용
정기 회원전	'93~'99년	거제문화원	거제미협 회원
거제, 통영 교류전	'95~'96년	거제 및 통영	거제 및 통영미협 회원전
향토사랑 작품전	'94~'99년	경남도내 순회전	경남일원 미술원
거제예술제	'94~2001년	거제 일원	야외설치전 및 퍼포먼스

## 2. 거제서예학원

동양의 명필 성과 하동주를 배출한 거제도에, 서예에 대한 보급이 뒤떨어지고 있었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해 오던 김기용, 주만복, 신현학, 이승철 등이 거제 서예학원 창립을 위하여 1983년 9월 10일 동아대학 우석(于石) 김봉근 교수(서예가)를 초빙하여 우석 선생의 서예 작품전을 개최하여 거기서 판매된 돈으로 고현리 122-3번지에, 1983년 10월 15일 거제서예학원을 개설하였다.

이 학원에서 매년 4~5명의 서예인이 도전에 입선하여 서예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1988년 11월 16일 김기용 학원장이 세상을 떠남으로 집주인인 이승철이 인계를 맡아 청파서예학원으로 이름을 바꾸어 운영하다가 1991년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다.

## 3. 거제미술회

거제지역의 미술문화 발전과 미술인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13명의 미술인들이 모여 1981년 6월 1일에 발족한 단체이다. 1982년 10월 2일 제1회 회원전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2회 회원전을 열었으며, 매년 5월 옥포대승첩기념 사생대회를 주관해 오고 있다. 현재 20명의 회원 대부분이 개인화실을 가지고, 서양화·수채화·한국화 부문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성과를 모아 회원 개인전을 열기도 한다. 또한 월례토론회와 야

외스케치를 통하여 미술세계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고 있다. 일부 회원들은 지역별로 미술동우회를 만드는 등, 미술문화의 대중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4. 장승포미술회

1989년 10월에 교사작품전을 계기로 미술 전공자들의 모임에 관한 논의가 구체화되었고, 그 결과 8명(교사 4명, 대학 미술전공자 4명)이 모여 장승포미술회를 창립한 후, 1990년 3월에 창립전을 열었다. 현재는 9명의 회원이 서양화·한국화·도예 부문에서 활동하면서 제2회 바다미술제를 주관하였고, 11월에 정기 회원전을 열 계획이며, 거제 지역 미술작가 연합전을 구상하고 있다. 전문성을 지닌 작가들로 구성된 단체이기에, 지역미술의 발전을 위한 주도적인 노력이 기대된다.

#### 5. 심상회

1984년 봄에 옥수동에서 대우조선 회사원 4인 작품전을 계기로 하여, 당시 미술활동이 극히 미미했던 거제지역에서 미술문화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고자, 1985년에 서양화·한국화·서예를 중심으로 창립되었다. 1986년 창립전을 가진 이후 현재까지 4회째 회원전을 개최하였고, 현재는 대우조선 직장인과 거제지역민 등 50여 명의 회원들이 각 분야별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화·서예·사군자를 중점으로 하고 있다. 이들의 수준은 전국노동문화제와 일반 공모전과 도전 등에서 매년 많은 입상자를 내고 있다.

#### 6. 대우조선 미술동호회

1980년 2월에 대우조선 직장인 30명의 회원으로 창립하여, 1981년에 창립전을 가졌다. 그후 나름대로의 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거의 해체되다시피 하였고, 1989년에 재건된 단체이다. 현재 15인의 회원들이 서양화와 수채화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5회의 동호회원전을 가졌고, 1주일에 2차례의 미술이론 공부와 습작을 하고 있다. 전국노동문화제에 출품하여 입상한 경력도 있으나, 내부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 7. 갯빛회

옥수동에서 미술학원에 다니던 주부 10명이, 여가시간을 미술(그림)에 투여하고자 미술단체 구성에 동의하면서, 1990년 3월 20일에 발족한 단체이다. 현재 서양화와 수채화 작품경력이 4년~10년 되는 6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5월 11일~13일동안 옥명부인회관 전시실에서 창립전을 가진 갯빛회는, 1992년 여름에 도장포에 야외스케치를 다녀오기도 하고, 연습화실인 한아뜨리에서 정기모임과 함께 시간 날 때마다 작품연습에 몰두하고 있다.

## 8. 엑스사이즈

1987년 11월에 옥포아파트에 거주하는 대우조선 부인 10명이 모여 만든 단체로, 1988년 가을에 창립전을 연 후, 지금까지 회원작품전을 단독으로 2회, 거제미술회와 공동으로 2회를 개최하였다. 서양화와 수채화 부문에서 1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연습은 주로 집에서 하고, 아파트 내 부인회관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에 정기모임을 갖는다. 또한, 매년 초청강연회와 야외스케치, 경남도전 출품 등 자체행사를 벌이고 있다.

## 9. 노란돌

옥포아파트 대우조선 부인들이 모여 1989년 7월 24일에 발족한 단체로, 서양화와 수채화 부문에서 10명이 활동하고 있다. 정기모임은 매주 화요일 오전에 부인회관에서 하고 있으며, 도장포에 야외스케치를 다녀오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펴고 있다.

## 10. 까시리

옥포 아파트에 거주하는 대우조선 부인 11명이 취미활동으로, 1989년 11월 1일에 창립한 단체이다. 정기모임은 매주 화요일 낮에 부인회관에서 가지며, 도장포에 야외스케치를 다녀왔다.

## 11. 거제여성미술회

주부미술모임인 갯빛회, 엑스사이즈, 노란돌, 까시리 등이 한데 모인 연합체적 성격의 단체로서, 1990년 9월 6일 창립되었다. 올해 11월 중으로 창립전을, 내년 봄에 회원전을 열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 12. 해성미술동문회

해성고등학교 미술부 출신들이 지역미술 활성화와 모교미술 지원을 위해 만든 단체이다. 1980년대 초에 창립되어 활동하였는데, 중간에 소멸되었다가, 1990년 3월에 재창립을 발의하였고, 현재 13명의 회원이 모여 9월에 창립전을 열기 위해 준비 중이다.

## 제3절 거제를 빛낸 서화가

### 1. 이방환(李邦煥)

전주인, 號 아정(鵝亭)·서호산인(西湖散人), 성종왕자 영산군(寧山君) 충위공(忠偉公) 9세손으로 대대로 상주에 살다가, 거제에 우거(寓居) 하였다. 해서(楷書)와 죽필(竹筆)에 능하였고, 그가 쓴 통제사 비명이 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본가장두시오책(本家粧杜詩五冊)과 초서가병풍(草書歌屏風) 2좌, 한성시해액(漢城詩解額) 2권이 전해져 왔는데, 그 유품은 후손들에 의해 지금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다. 그 시대에 이름이 났던 서예가였다.

### 2. 배극문(裵克文)

분성인, 字 윤장(允章), 목사 월정(月汀) 명원(明遠)의 9세손 영호(永湖)의 아들로 필법이 능하고, 해서(楷書)를 잘 썼다. 고을 선비들이 스승으로 모시고 섬기었다. 동록(東麓) 정훈성과 더불어 명필로 일컬었다. 그리고 학문은 대를 이어왔고, 고을과 문중이 빛났다.

### 3. 하지호(河志灝)

진양인, 字 성장(聖章), 성과(星坡)의 아버지로 일찍이 병조판서 추사 김정희의 휘하에서 십가장(十家長)인가 백가장(百家長, 지금의 분대장)의 벼슬을 하면서, 글씨를 잘 써서 추사의 귀염을 받았다. 그때 추사의 서첩을 가지고 와서 아들 성과에게 추사체를 전수케 하여, 성과는 추사체를 이어받게 되었다. 해서체(楷書)에 뛰어났고, 선천적인 필체는 성과보다 더 잘 썼다고 한다.

### 4. 박대훈(朴大薰)

밀양인, 字 면지(勉之), 號 일호(一湖)로 성품이 호탕하였다. 일에 얽매이는 집념이 강하였고, 늘상 쾌활한 생활을 하였다. 특히, 초서(草書)체에 능하였다.

### 5. 최용기(崔容基)

경주인, 字 정우(定友), 號 아천(我泉), 수봉관(守奉官) 영제(榮縉)의 아들로 재주가

뛰어났다. 배포가 크고, 남을 포용하는 힘이 있었다. 모습이 단정하여 선비의 품위를 갖추었다. 다양한 필법에 능하였다.

## 6. 하동주(河東州)

성파 하동주는 서기1865년 2월 1일 거제면 동상리 437번지에서 하지호(河志灝)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1943년 11월 5일 세상을 떠날 때까지 추사체를 쓴 동방의 명필이다. 그의 묘는 거제면 서정리 들판의 작은 독뢰산 양지바른 곳에 있다.

추사체를 전승하게된 동기는 성파의 아버지 하지호(河志灝)가 추사말에 있을 때, 서첩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전해 준 것이, 추사체의 필맥을 있게된 동기다. 추사의 분신이라 할만치 서법이 같았다. 성파는 5척 단구에 음성이 찌렁찌렁하고, 성질이 괴팍하고 고집스러웠다. 그의 활동무대는 대부분 영남과 호남지역이었는데, 사천 다술사와 진주 의곡사에서 여생을 보냈다. 그리고 고성 박부잣집에서 식객(食客) 노릇을 했다. 다술사에 있을 때는 주지 최범술(崔凡述), 제헌 국회의원과 김범부(金凡父) 전 동래 국회의원, 김법린(金法麟) 문교부장관 등과 교류하였다. 그리고 진주 의곡사에 있을 때는 의재 허백련(許百鍊), 풍곡 성재휴(成在休), 예전 허민(許珉), 산강 변영만(卞榮晩), 소곡 변관식(卞寬植), 벽산 정대기(鄭大基), 계남 김영배(金永培), 야동 오복근(吳福根) 등과 문인으로는 과성 설창수(薛昌洙), 구상(具常), 조지훈(趙芝薰), 장덕조(張德祚), 박화성(朴花城), 노천명(盧天命), 모운숙(毛允淑) 등과 교류를 맺었다.

그의 제자로는 청람 오제봉(吳濟峰), 우강 김병욱(金秉旭), 도연 김정(金正), 은초 정명수(鄭明壽) 등 국내 유명한 서예가를 탄생시켰다. 그의 글씨는 합천 해인사와 함벽루, 진주 축성루, 밀양 영남루 등지를 비롯하여, 사찰의 현판과 주련에 남아있다. 고성 박부잣집 객실에는 그의 작품이 사방에 걸려 있다. 시서유업(詩書遺業), 담박명지(澹泊明志), 영정치원(寧靜致遠), 근급시보(勤給是寶)의 글씨는 전성기에 썼던 가장 힘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작품이다.

추사보다 앞서 출생하였다면, 추사보다 더 좋은 글을 썼던 명필로 알려졌을 것이라는 평을 한다. 사곡 삼거리에 성파선생의 목적비(墨蹟碑)를, 1989년 11월 18일 제막하였다. 목적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금을 받아 건립하였다. 비문은 이가원(李家源)선생, 글씨는 삼현 김진희(金鎭禧), 조각은 박윤석(朴允奭)이다.

다음은 이완용(李完用)이 성파선생에게 보낸 편지내용이다.

古語云意 合則不見而 相親果爲 今日君我 兩人而準備語也



옛 말에 이르기를 뜻이 맞으면 만나보지 않아도 서로 친할 수 있다 하였는데 이것이 필연, 오늘날 그대와 나와 두 사람 사이를 두고 한말 같습니다.

雖無前日之相晤 今承先施惠書忙 手奉覽恨如合席弟

비록 전일에 서로 만난 일은 없으나 이번에 먼저 혜서를 반가운 나머지 얼른 받아 보오니 황홀하여 마치 합석하는 것같은 착각을 일으킬 지경이었습니다.

謹審此辰靜體連 護萬禧遠用仰喜且賀

삼가 살피건대 선생께서는 연일 건강하시고 맑고 고요한 정신으로 나아가시기를 멀리에 있는 이완용은 축하를 드립니다.

弟衰相日 侵無定仰塵者也

저는 쇠약한 몸이 날로 더하여 언제 진도에 묻힐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朴鄭兩童之筆 但從新聞上見 之心甚奇之矣

박·정 두 아이의 글씨는 신문 보도에서 본 것만으로도 매우 기특하게 여겨지는 터입니다.

晉州鄭雲暎君卒 其允鐘秀而上京 來訪鄙所故

진주 정운영군이 죽고 아들 종수가 상경하여 저희 집에 래방하였습니다.

使之試筆於面前 則其弄筆之法 雖是天賦之才 若非先生之教 術何以至此

면전에서 글씨를 시험하여 본즉 그 운필하는 법이 비록 타고난 재능이라 할 수도 있지만 만약 선생의 교술이 없었다면 어찌 여기에 이르겠습니까?

既有此方則來 頭成家可謂事 半功倍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 성가는 적은 노력만 더 하여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世上萬事 有始而有終 每是難定故 再三勤勉於鄭君耳

세상 만사가 시작만 해놓고 끝맺는데 어려움이 더러 있어 예측을 할 수 없는 바이니 이 점을 각별 유념하라고 정군에게 재삼 근면하였습니다.

先生之揮毫 今有所得在幾 片將作傳家之珍寶耳

선생의 글씨를 지금까지 얻은 것이 몇편 있는데 앞으로 우리 가문의 진귀한 보물로 소중히 간직할 생각입니다.

餘不備謝禮

이만 줄이고 사례합니다.

大正 11월 16일 경성부 옥인동 19 이완용 拜謝

거제면 동상리 437번지 河東州 殿

윗 글의 내용은 당시 이씨왕조의 왕권을 가진 사람이 하동주의 글씨를 극찬한 편지다.

## 7. 김병욱(金秉旭)

1901년 5월 9일 거제면 남동리 115번지에서 태어나서, 성과 하동주의 제자로 성과가 돌아가실 때까지 제일 가까이에서 모셨다. 1970년 12월 9일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서울, 부산, 개성, 청진, 진주, 양산, 울산, 포항, 통영, 거제, 김해, 함안, 칠원, 방어진, 통도사 등 29회에 걸쳐 전시를 하였다.

## 8. 이기현(李琪鉉)

1922년 9월 27일 거제에서 태어났다. 성과와 인연을 맺게된 것은, 이기현의 큰 고모가 성과의 자부가 된다. 기현은 진주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부터 성과의 글씨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그의 글씨는 성과체에 자신의 독특한 필법을 첨가하여 힘이 있고, 개성이 뚜렷하였다. 해인사에서 오랫동안 작품활동을 하였다. 그때 가야에서 생산되는 도자기에, 기현의 글씨가 많이 새겨져 호평을 받았다. 부산, 마산, 진주, 거제 등지에서 개인전을 가졌고, 후배 양성을 위해 거제면에 서예학원을 설립하기도 했다.

## 9. 양달석(梁達錫)

1908년~1984년, 본관은 남원(南原), 호는 여산(黎山)으로 거제시 사등면 성내리에 서 태어났다. 어려서 양친을 여의고, 친척집에서 농사일을 거들며 불우한 소년기를 보냈는데, 16세 때에 고학을 결심하고 통영의 사립 청년학원을 거쳐, 진주농업학교에 진학하여 그림에 뜻을 두게 되었다.

1932년 조선미술전람회에 수채화가 입선되어 미술인의 꿈을 키우게 되었다. 그뒤 동경(東京)에 건너가, 제국미술학교에서 한때 수학하면서 어렵게 화가의 길을 개척하였다. 그 사이 조선미술전 입선도 수차례 거듭하였고, 동경의 여러 공모전에도 출품하였다. 해방 후, 조국으로 돌아와서 부산에 정착하여 작품생활에만 전념하였다.

그의 작품은 외롭고 불우했던 소년시절을 동심적으로 미화하려고 한 듯, 시골의 자연환경과 농촌생활의 서정을 동화처럼 정겹고 평화롭게 전개시키는 독특한 세계로 일관하였다. 화면에는 〈소년·소녀〉, 〈아낙네와 풀밭〉, 〈소〉 등이 등장한다. 대표적인 그림은 〈피리부는 목동(牧童)〉이다. 이런 표현기법이 매우 동심적이어서, 동심의 화가로

불렸다. 1963년 경남문화상을 수상하였고, 1974년부터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추천작가, 초대작가로 활동하였다. (참고문헌 한국현대미술전집)

## 10. 김현봉(金顯奉)

본관 김해, 수로왕(首露王)의 원손 김녕군(金寧君)의 7세손 영정(永貞) 휘 김안경(金安敬)공의 증손 김희선(金希善) 성균관 진사공이 사화(士禍)에 연류되어 죽음이 두려워 강개(慷慨)하여, 대낮에도 골방에 숨어서 자탄하다가 여환이 두려워, 1700년경 숙종 때 강원도 원주에서 거제 궁농(宮農)으로 피난왔다.

공의 7세손 휘 김리자(金履字)는 한학자(漢學者) 선비로 시문(詩文), 서체(書體)가 뛰어 났다. 그의 아들 휘 김제형(金濟馨)도 시서(詩書)에 능통하여, 유림의 칭송이 높았다. 국정의 조부가 된다. 국정은 이러한 가문에서 어릴 때, 조부로부터 한문을 배우면서 서예를 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교육자로, 서예가로, 국·내외에서 활약하였으며, 독특한 초서체의 대가로 이름이 났다.

## 제4절 GG (갤러리 거제)

- 소재지 :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988-8번지
- 규 격 : 100평
- 용 도 : 종합예술전시공간
- 착공 및 준공 : 착공 2001. 5. 10, 준공 2001. 11. 5
- 유 래

갤러리 거제는 미협 지부장인 박영숙씨가 지역미술의 활성화 및 지역민의 문화예술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공간을 마련하여 그로 인한 종합예술의 쉼터를 마련하고자 설립함.

- 주요업적 및 업무
- 지역예술의 종합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

## 제9장 사 진

### 제1절 거제 사진의 역사

사진의 역사는 짧다. 그러면서도 엄청난 발전을 가져 왔다. 사진의 시초는 18세기 초였다. 프랑스의 니에프스 형제(niepce, J.N.)와 1829년 다게르(Daguerr, L.J.M.)에 의하여 발전되었고, 다게르는 니에프스의 헬리오그래피의 현상술을 개선하여 그의 스튜디오에서 선명한 사진을 제작하는데 성공하였다. 다게르의 사진방법은 1839년 8월 19일 프랑스 과학아카데미에서 아라고(Arago, F.)에 의하여, 공식 발표되었다. 이때부터 사진의 원년을 기록하게 된 것이다. 1851년 아처(Archer, F.S.)가 콜로디온법을 발명할 때까지 경쟁없이 독보적으로 걸어 왔다.

콜로디온법의 발명은 초기의 사진발명에 여러가지 부분이 개선되는 단계에 왔다. 한 장의 음화에서 원하는 대로 사진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또 감광도가 빨라 짧은 시간에 촬영이 가능해 졌다. 1840~1850년은 초상 사진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1867년 영국에서 개발된 건판과 1880년대 코닥이 등장함으로써 크게 발전되어, 사진은 대중화하였다. 1886년 영국의 에머슨(Emerson, P.H.)이 예술에 대한 인정을 최초로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사진이 들어온 시기는 1871년 신미양요 당시 미해병대의 전투기록과 역관이나 해외시찰에 나선 사신들에 의하여 사진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접촉이나 소개가 사진문화의 직접적인 수용은 아니었다. 1884년 2월 14일자 [한성순보]에 의하면, 저동에서 살고 있는 우후를 지낸 김용원(金鏞元)이 촬영국을 설치하였으며, 외무아문 주사를 지낸 지운영(池運永)이 일본에 가서 사진기술을 배워 왔다. 이때, 황철(黃鐵)이 상해와 일본에서 사진기를 구입하여 사진관을 설립하였다.

1884년 갑신정변 때는 사진을 일본 문물로 오인한 민중들에 의하여, 사진관이 수난을 당하기도 하였다. 1895년 단발령이 선포되자 옛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사진이 유행되기 시작하였다.

거제에 사진이 들어온 시기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어느 시기에 누구에 의하여 보급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한일합방 후 일본사람들에 의해 사진기술이 본격적으로 파급되었다.

1904년경에 장목 송진포에 일본 해군기지를 만들면서 일본인에 의하여 사진에 대한

첫 선을 보였다고 한다. 그후 한일합방과 더불어 일본사람들로부터 사진기술을 배워, 장승포와 거제 구읍(거제면 소재지)에 사진관이 설치되었다.

그 당시 사진은 가족사진을 비롯하여, 증명사진 등 기록사진에 중점을 두었다. 1930년부터 1948년까지 김종민이 거제면 동상리 443번지에서 기성사진관을 경영하였고, 1956년부터 1963년까지 서상리에서 김찬영이 사진관을 경영했다. 1948년~1968년까지 황상두가 거제면 동상리 543번지에서 사진관을 경영했고, 이어서 정정부, 정태중, 김동주, 유치곤, 김성식이 사진관을 경영했다.

장승포에서는 이장섭이 일제시대부터 장승포사진관을 경영했다. 거제 김종민과 더불어 거제사진의 원조라 할 수 있다. 6·25동란 후, 피난민에 의해 사진관이 많이 생겼다. 고현에 이원석, 장승포에는 최중환이 화랑사진관을, 이석조가 평화사진관 또, 장미사진관을 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성포에서 이정명이 사진관을 경영했다. 지역민으로는 아양에서 이주옥이 청춘사진관을, 일운에서 이명춘이 문화사진관을, 고현에서 백문기가 백씨사진관, 옥갑종이 월광사진관을 경영하다가, 거제군청 사진기사로 들어갔다. 마산 심씨가 조광사진관, 이범수가 은파사진관, 추영복이 청춘사진관, 김병선이 금탑사진관, 김소정이 백조사진관을 경영했으며, 일운 지세포 반문석이 백조사진관, 둔덕 옥수복, 장목 김기주·한재훈·고이남, 외포 김영덕, 연초 옥주영 등 읍면소재지에 사진관이 생겼다.

1970년 초반 대우·삼성조선이 들어 오면서 사진 인구가 늘어나, 사진관과 현상소가 생기게 되었다.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영업소는 여러 곳 생겼으나, 작품사진을 하기 시작한 것은 윤의도가 고향에 정착하면서 부터이다.

사진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은 있어도, 예술에 대한 눈을 뜨지 못했다. 그럴 때 고향이 거제인 윤의도는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는 사진작가로 활약을 하였다. 윤씨는 해군사관학교 정훈부에서 보도사진을 하다가, 부산시청에서 홍보사진을 담당했다. 그때 부산상공(釜山商工)에 대한 칼라판 책자 상·하권을 만들어 전국은 물론, 일본에까지 홍보하기도 했으며, 그후 1970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거제관광 소개를 위한 관광문화유적지 사진전을 전국을 순회하면서, 20여 회에 걸쳐 소개하였다.

천주교 순교자 후손인 윤씨는 종교관계 사진을 비롯하여, 풍물사진 등을 전국에 순회 전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1972년에는 관광거제란 칼라판 책자를 제작하여, 보급하기도 했다. 당시 거제군 공보실 사진기사로 있던 이승철을 비롯하여, 많은 사진인이 그의 지도를 받았다. 이씨는 윤씨가 제작한 관광거제 홍보책자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였다.

윤씨의 창작기법은 생동감이 넘치는 새로운 소재를 발굴하였고, 사진의 구도를 생명으로 여겼다. 교통사정이 어려울 때,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거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물을 촬영하였다. 특히, 배를 이용하여 바다의 절경을 촬영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윤의도는 작가협회에 가입은 하지 않고, 독자적인 작품활동을 왕성하게 펼쳤으며, 평

생을 사진과 함께 살아왔다. 뿐만 아니라, 향토문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거제 문화원 활성화와 예총 거제지부 창립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대단했다. 향토에 대한 애착과 예술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일해 왔다.

윤씨는 마지막 정열을 쏟아 옥포에 민속박물관을 건립하였으며, 평생 모아놓은 자료와 사진을 전시할 계획이었다. 박물관이 완성단계에 있을 때, 병으로 인하여 그 건물을 대우조선에 팔았다. 매매조건은 윤씨의 뜻이 이어질 수 있는 박물관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집과 자료를 넘겨 주었는데, 그것이 모체가 되어 거제박물관이 서게 된 것이다.

## 제2절 사진작가회 및 동아리

### 1. 거제사진동호회

- 소재지 : 거제시 장승포동 거제문화원 내
- 회 원 : 16명

#### 1) 유 래

거제사진의 활성화를 위하여 1985년 3월 1일 정영현, 신현두, 박한용 등이 거제사진 동호회로 발족하여 누드 촬영대회, 옥포대첩기념제전 기념제전 사진 촬영대회 등과 회원전을 개최하여 사진 예술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 2) 주요업적

- 전국 누드 촬영대회 7회
- 옥포대첩기념제전 사진 촬영대회 7회
- 사진 강좌 8회
- 거제예술제 사진전 2회
- 거제동백축제 전국사진전 1회
- 제1회 거제풍물사진 전국 공모전 1회
- 거제도관광 사진집 출판(1994)
- 회원전 19회

### 3) 연혁

- 1985년 3월 1일 정연현, 신현두, 故 박한용 받기  
3월 10일 창립총회(거제사진동호회로 발족)  
5월 7일 제23회 옥포대첩 기념제전 사진촬영대회  
8월 5일 제1회 누드 촬영대회 주최(구조라 운동섬)
- 1986년 7월 23일 제2회 누드 촬영대회 주최(해금강 일원)
- 1987년 4월 29일 제1회 초보자 사진강좌 개설(거제문화원)  
8월 2일 제3회 누드촬영대회 주최(해금강 일원)  
12월 11~17일 제2회 회원전(옥포관광호텔)
- 1988년 9월 10일 제2회 초보자 사진강좌(거제문화원)  
9월 11일 제4회 누드 촬영대회(해금강 일원)
- 1989년 5월 6~8 제27회 옥포대첩 기념제전 기록사진 촬영대회 주최  
8월 24일 옥포대첩 기념제전 기록사진 촬영대회 수상작품 전시(거제문화원)  
9월 14일 제3회 초보자 사진강좌(거제문화원)  
10월 15일 제5회 누드 사진 촬영대회(계룡산)
- 1989년 12월 8일 제4회 회원전 및 누드 촬영대회 작품전시회(거제문화원)
- 1990년 1월 9~15 제5회 회원전(거제문화원)  
5월 6~8 제28회 옥포대첩 기념제전 기록사진 촬영대회  
10월 13일 제4회 초보자 사진 강좌  
10월 14일 제6회 모델, 제1회 가족사진 촬영대회  
10월 26~31 제16회 모델 및 가족사진 촬영대회 수상작품 전시회
- 1991년 5월 6~8 제29회 옥포대첩 기념제전 기록사진 촬영대회, 제7회 회원전  
(거제문화원)  
6월 5일 제5회 초보자 사진강좌
- 1992년 5월 6~10 제30회 옥포대첩 기념제전 사진촬영대회  
6월 26일 제8회 회원전(옥포관광호텔)  
10월 18일 제6회 초보자 사진강좌(농협 회의실)  
11월 10일 제6회 누드촬영대회(계룡산 중턱)  
12월 16~20 제9회 회원전(거제문화원)
- 1993년 5월 4~9 제10회 회원전 및 제8회 초보자 사진강좌

10월 27~31 제1회 거제도 사진인 연합 사진전

제11회 회원전

제12회 회원전(옥포관광호텔)

- 1994년 5월 4~9 제32회 옥포대첩 기념제전 문화행사 참가  
거제도 관광사진집 출판 기념
- 1995년 9월 3일 제7회 누드 사진 촬영대회(양정관광농원)  
10월 18~21 제13회 회원전 제2회 거제예술제 사진전시
- 1996년 6월 19~23 제14회 회원전 제34회 옥포대첩 기념제전 문화행사
- 1997년 5월 10~13 제15회 능포동민의 날 사진전시  
9월 30~10월 제4회 거제예술제 사진전시(회원전)
- 1998년 3월 8일 제1회 동백축제 사진 촬영대회 주최  
12월 8일 제17회 회원전(거제문화원)
- 1999년 11월 26일 제18회 회원전(거제문화원)
- 2000년 10월 24일 제19회 회원전(거제문화원)

4) 거제사진 동호회 현황

대수	초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고 문 회 장	박한용	남상수	남상수	류기해	이승철	차현진	황송주	황송주	황송주
부 회 장	남상수				차현진		정영현	정영현	신경식
총무간사	정영현	정영현	정영현	지영식	정영현	김순호			
재무간사	김종원	김종원							
지도간사	김주선	김주선	김주선						
운영간사	남상철	손용화	차현진	오경국	오경국	김인만	신경식	정도길	오경국
운영간사	차현진	차현진	남상철	서성원	신경식	김종택	오경국	오경국	김창복
운영간사	임영수	임영수		송준자	김종택	오경국	서성원	신경식	방인철
운영간사					서성원	정도길	방인철		이재현
감 사	손용화	남상철	이승철	차현진	옥순룡	신경식	김순호	김순호	김순호
감 사			류기해	임영수					
사무국장							정도길	방인철	박경택
홍보간사									이영도
지도위원				정영현		정영현			정영현



임원	대수	10대	11대	12대	13대	14대	15대	16대	17대
고문		황송주	황송주						
회장		오경국	정도길	박경택	이재현	오경국	박경택	박경택	노동희
부회장									
총무간사									
재무간사									
지도간사									
운영간사		이계아	김계만						
운영간사		김창복							
운영간사		이영도							
운영간사		김계만							
감사		신경식	오경국	정도길	박경택	이재현	원용삼	원용삼	
감사									
사무국장		박경택	이재현	이재현	안영수	노동희	방인철	김창복	김창복
홍보간사		김순호						노동희	
지도위원		정영현	정영현	정영현	정영현	정영현	정영현	정영현	

## 2. 계룡사진동우회

- 소재지 :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 창립회원 : 이승철, 옥천석, 김복률, 김재청, 옥순룡, 이정준, 박주섭, 박행석, 옥윤석, 김춘락, 이정희, 여영준, 박기룡 15명

### 1) 연혁

장승포 지역이 시로 승격되면서 시·군이 분리되어, 거제군 지역에서 새로운 문화예술단체가 발족되었다. 계룡사진동우회는 사진작가 이승철을 고문으로 하여 거제지역의 사진문화 창달을 위한 단체로 구성하였다. 초대회장 옥천석, 부회장 이정희, 총무 박금선, 운영간사 김재청, 지도간사 옥순룡, 감사 이정준, 고문 이승철 등이다.

### 2) 업적

- 제1회 창립전 : 1990년 신현읍 고현리 삼성다방에서 창립회원전을 가졌다.

- 제2회 회원전 : 1991년 12월 7~13일 신현읍 고현리 애영빌딩 5층  
회장 김복률, 부회장 이정희, 총무 박금선, 운영간사 김재청, 지도간사 옥순룡, 감사 이정준, 고문 이승철
- 제3회 회원전 : 1992년 10월 22~25일, 장소 복지회관  
회장 김복률, 부회장 김재청, 총무 박금선, 감사 이정준, 고문 이승철
- 제4회 독로문화제 기록사진 촬영 대회  
일시 : 1992년 10월 22~25일 각종행사 전반에 대한 것
- 제5회 독로문화제 기록사진 촬영대회  
일시 : 1993년 10월 1~3일 각종행사 전반  
회장 김재청, 부회장 곽영명, 총무 박주섭, 감사 이정준, 고문 이승철
- 제4회 회원전 1994년 10월 1~3일  
장소 : 신현읍 고현리 복지회관  
회장 곽영명, 부회장 성양규, 총무 박주섭, 고문 이승철
- 제5회 회원전 1995년 10월 1~3일  
장소: 신현읍 고현리 복지회관  
회장 곽영명, 부회장 성양규, 총무 박금선, 고문 이승철
- 제6회 회원전 1996년 10월 1~3일  
장소 : 신현읍 고현리 복지회관  
회장 성양규, 부회장 김종규, 총무 유인수, 고문 이승철
- 제7회 회원전 1997년 10월 1~3일  
장소 : 신현읍 고현리 복지회관  
회장 성양규, 부회장 김종규, 총무 유인수, 고문 이승철
- 제8회 회원전 1999년 11월 22~30일  
장소 : 거제시청 민원실  
회장 김재청, 부회장 옥순룡, 총무 강응현, 고문 이승철
- 제9회 회원전 2000년 12월 5~30일  
장소 : 시청 민원실  
회장 김재청, 부회장 옥순룡, 총무 강응현, 고문 이승철

### 3. 거제시청 사진동우회

- 소재지 :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717번지

○ 회 원 : 10명

### 1) 유 래

1988년 10월 6일 거제군청산하 직원으로, 사진에 뜻이 있는 사람이 모여 사진 창작 활동을 하였다. 이 모임은 사진작가 이승철의 지도로, 매년 3~4회씩 야외촬영 및 친목 도모를 하였다.

### 2) 업 적

- 1988년 4월, 10월 2회 야외촬영
- 1989년 5월, 11월 2회 야외촬영
- 1989년 10월 1일 독로문화제 행사 촬영대회 주관
- 1990년 제1회 전시회(거제군청 회의실)
- 1991년 5월, 10월 2회 야외촬영
- 1992년 10월 9일 거제도 자연경관 촬영
- 1997년 함양관광 공모전 촬영대회 참가
- 1998년 11월 9일 계룡사진동우회와 합동 사진촬영
- 2000년 10월 22일 전시회 준비 합동 야외촬영
- 2001년 4월 2일~30일 제2회 회원전(거제시청 민원실)

## 4. 사진작가협회 거제지부 결성준비

사진작가협회지부 결성은 사진작가 7명이 있어야 하므로, 이웃 통영지부에서 작가로 활동하여 인원이 충원되면 지부 결성을 하기로 노력해 왔다. 그러던 것이 1990년 중반 기부터는 7명에서 15명의 작가가 있어야 하는 중앙 정관 변경으로 인하여, 지부결성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통영지부에 예속되어 있다. 맨 처음 정영현이 작가로 통영지부에 입회하였고, 다음 김영광, 유기해이다. 이어서 이승철, 유인수, 김복률, 김재청, 옥천석, 옥순룡, 채한준, 김동규, 성양규, 변청수, 김종규, 박영명 등이 작가로 입회하였고, 또 오경국, 강응현, 변청수, 김창복, 노동희, 김윤용, 오창환, 최희동, 김석동 등이 입회하였다.

이날 준비위원으로 이승철, 정영현, 김복률, 김재청, 유인수, 옥천석, 채한준 7명이었다.

사협지구 구성 요건으로 작가 7명이었던 것이 15명으로 정관이 변경되면서, 거제지부 결성을 위한 작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부 결성을 위한 작가 확보를 위한 지도적인 모임이 필요했다. 1998년 2월에 사진 작가로 활약하고 있는 이승철, 정영현, 김복률, 옥천석, 유인수, 김재청 7명이 모여, 거제사진작가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사진 작가 외 사진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영입하여 30여 명으로 구성하였다. 초대 회장 김복률, 총무 이승철, 지도위원 정영현이 모체가 되어 예총 거제지부에 준회원으로 가입하였다. 그해 10월 1일 거제 시민의 날 회원전을 가졌다.

제2대 회장으로 이승철, 부회장 오경국, 총무 유인수, 감사 옥천석, 지도위원 정영현 등이 제2회 회원전을 거제 시민의 날에 가졌다. 그해 11월에 전북 정읍시 정읍사(井邑詞) 영상회와 자매결연을 맺어, 회장 이승철, 지도위원 정영현·채한준·김석동이 참석하였으며, 정읍사 영상회 회원전에 거제 회원의 작품을 함께 전시하였다.

제3대 회장에 이승철, 부회장 오경국, 총무 변청수, 감사 옥천석, 지도위원 정영현이 제3회 회원전을 거제 시민의 날 10월 1일~3일까지 거제시 복지회관에서 가졌으며, 이때 정읍사 영상회원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하였다. 제4대 회장에 이승철, 부회장 오경국, 총무 변청수, 감사 옥천석, 지도위원 정영현이다. 2001년 시민의날 거제시 복지회관에서 회원전을 가졌다.

## 5. 장승포사진동호회

- 소 재 지 : 거제시 장승포동 499번지 옛 장승포시청 별관
- 회 원 : 16명
- 창립년월일: 1995년 12월 대우사진동호회, 미래사진동호회, CRS사진동호회가 사진에 대한 열정을 한층 더 승화시키기 위하여, 사진인의 화합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회원 27명이 통합하여 장승포사진동호회가 설립되었다.

### 1) 업 적

- 1996년부터 매년 회원전을 개최하였다.
- 매년 어린이날 가족사진 촬영대회를 가졌다.
- 거제지역 예술행사 참석

### 2) 역대 회장

- 제1대 김동규-1996년 임기 1년 회원전 및 가족사진 촬영단체 통합

- 제2대 채수향-1997년 임기 1년 회원전 및 각종 예술행사 참가
- 제3대 김윤용-1998년 임기 1년 회원전 및 각종 예술행사 참가
- 제4대 이원영-1999년 임기 1년 회원전 및 클럽활동 활성화
- 제5대 김윤용-2000년 임기 1년 회원전 및 각종 예술행사 참가
- 제6대 김종영-2001년 현재

## 6. 삼성 FOCUS 동호회

- 소재지 :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530번지 삼성중공업(주) 내
- 창립 동기 : 삼성조선 내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사진예술에 뜻을 가진 동호인들이 매월 출사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사진예술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회원은 39명이며, 1983년 4월 10일 발족하였다.

### 1) 주요활동

- 사내 모델 촬영
- 매년 1회 거제 성로원 방문 위문 및 사진촬영
- 매년 어린이날 회원 자녀 무료 사진촬영
- 매월 1회 야외 사진촬영
- 매년 1회 사진 전시

### 2) 회장단 성명

- 김외철-1982년~1984년 임기 2년 조직활성화
- 홍대용-1985년~1987년 임기 2년 사진전시 활성화
- 왕규욱-1988년~1990년 임기 2년 야외촬영 중점지도
- 정운곤-1991년~1992년 임기 2년 모델촬영 지도
- 김승호-1993년~1994년 임기 2년 동호인 사진전시 중점지도
- 김두부-1995년~1996년 임기 1년 어린이 사진 촬영지도
- 채한준-1987년~1988년 임기 1년 야외사진 촬영 중점지도
- 김우중-1999년~2000년 임기 1년 동호회 활성화
- 권순혁-2001년 현재 동호인 활성화 야외촬영 중점지도

## 7. 전국영상인연합 거제지부

- 소재지 : 거제시 옥포 2동 1565
- 창 설 : 제진호, 한명한, 이원영 3명이 발기하고, 김일권, 주홍식이 참여하여, 5명이 사진 발전과 친목 도모를 위해 1990년 12월 10일 'ILS' 사진동호회를 창설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야외촬영과 사진교육을 실시하여, 회원들의 왕성한 창작활동과 의욕을 증진시킴.

### 1) 변동사항

- 1993. 12. 9 대우조선 영상동호회로 명칭 수정
- 1995. 1. 10 대우중공업(주) 옥포조선소 영상동호회로 명칭 수정
- 1996. 12. 6 영상동호회로 명칭 수정
- 1998. 7. 22 전국영상인연합거제지부로 명칭 수정

### 2) 목 적

정기 출사와 사진교육 그리고 전국영상인연합 각 지부와 교류전 및 촬영대회를 통하여 사진예술의 창작의욕과 활동을 고취시키고 회원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자 하며, 꾸준한 창작활동과 사진예술에 대한 지원으로 거제지역의 문화활동을 육성·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3) 전국영상인연합거제지부 소개

서울에 중앙회를 둔 전국영상인연합은 전국 20여 개 이상의 지부를 둔 조직으로, 각 지부에서 주최하는 촬영대회와 전국공모전(전국 생태사진 공모전-금상 : 환경부 장관상 수상)을 실시하여, 회원들의 사진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사진 정보교환 및 회원간의 상호 협력을 위해 영상뉴스라는 신문을 발행하는 단체이다.

영남권에는 진주지부, 마창지부, 울산지부, 거제지부, 사천지부, 통영지부가 현재 인준되어 활동중이며, 거제지부는 거제박물관에서 사무실과 작업실을 두고 현재 12명의 회원이 활동중이며, 회원들의 활동상황은 전국공모전에서 대상(농촌사진공모전) 및 각종 공모전과 촬영대회에서 많은 입상 및 입선의 성적을 얻었으며, 사진예술의 학습서인 사진예술과 월간여성에 추천작가를 배출하는 등, 많은 실력 있는 작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 4) 주요업적 및 업무

- 1992. 11. 21 제1회 사진전시회 개최(거제박물관)
- 1994. 4. 30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제2회 사진전시회 개최(거제박물관)
- 1995. 5. 13 제3회 사진전시회 개최(거제박물관), 사진판매수익으로 산달도 소재 산달초등학교 학용품 및 운동기구 전달
- 1996. 5. 1 낙도 어린이에게 도서 보내기 운동을 위한 제4회 사진전시회 개최(거제박물관), 수익금 전액을 산돌초등학교에 도서로 기증
- 1997. 5. 1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한 제5회 사진전시회 개최(거제박물관), 소년·소녀가장 6명에게 장학금 전달(해성, 거제, 옥포중)
- 1998. 5. 2 제6회 사진전시회 개최(거제박물관)
- 1999. 10. 30 제7회 사진전시회 개최(거제박물관)
- 2001. 4. 29 제4회 영남권 촬영대회 개최(노자산 자연휴양림)
- 2001. 6. 23 제8회 사진전시회 개최(거제박물관)

#### 5) 역대 지부장

대수	성명	재직기간	재직년수	중요업적
1	옥광일	1997.6.20~1998.12.4	1년 6월	제6회 전시회 개최
2~3	송영환	1998.12.5~2000.12.4	2년	제7회 전시회 개최
4	이병준	2000.12.5~2002.2.		제4회 영남권촬영대회 개최 제8회 전시회 개최
5	송영환	2002.2. ~현재		

#### ○ 임원 및 회원명단

임원 : 황수원(고문), 이병준(지부장), 송영환(자문위원), 정만수(지도위원), 주홍식(감사), 문선경(홍보부장), 김영진(총무부장)

회원 : 옥광일, 석인영, 조현영, 박용석, 고석암

## 제10장 축제 및 민속보존 활동

### 제1절 지역 축제

#### 1. 해맞이 행사

- 일 시 : 매년 1월 1일
- 장 소 : 장승포 몽돌개 해안

##### 1) 추진경위

새해 첫날을 맞아 시민의 화합과 발전을 기원하고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우리지역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한 행사로 1997년 개최한 이후로 매년 계속하고 있다.

##### 2) 행사내용

만여명의 시민, 관광객이 참여하여 신년인사, 시루떡 및 유자차 시음, 사물놀이 공연에 이어, 일출을 관람하며 일년간의 안녕과 개개인의 희망을 기원하고 있으며, 읍·면 단위로도 신현읍의 계룡산 해맞이, 동부면의 학동 해수욕장 해맞이, 남부면의 해맞이와 둔덕면의 산방산 해맞이 행사들도 개최되고 있다.

#### 2. 독로문화제

- 일 시 : 1989년 10월 25~27(3일간)
- 장 소 : 거제군 공설운동장 및 보조경기장

##### 1) 설치배경

1989년 1월 1일부로 장승포 지역이 시로 승격되어 옥포대승첩기념제가 시의 주도로



장승포 지역의 문화행사로 발전함에 따라 거제지역 사람들은 거제군에서도 그와 같은 문화행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였다.

## 2) 추진경위

1989년 3월 23일 군정자문회의에서 군민의 날을 지정하자는 결의에 따라 신문공고, 군민 각계 각층의 설문조사를 했다. 그것을 토대로 하여 1989년 7월 20일 군정자문회의를 통하여 매년 10월 1일을 군민의 날로 정하고 축하 행사를 10월 중순경에 하기로 하였다.

축하행사에 따른 명칭을 독로문화제(瀆盧文化祭)로 정하였다. 문화제에 대한 의견은 여러 가지 있었다. 해금강문화제, 동백문화제, 계룡문화제 등의 명칭이 거론되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군민 화합을 위해서는 역사성이 있는 명칭이 좋다는 의견에 따라 삼한시대 독로국이었던 부족국가의 나라 이름을 따서 독로문화제로 정하였다.

독로의 역사적인 고증은 동아대학교 심봉근(박물관장)이 하였다.

1989년 9월 18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거제군민의 날”을 선포하고, 10월 25일부터 3일간 독로문화제를 성대히 거행하였다.

이어서 화합하는 거제, 살기좋은 거제 건설을 위한 애향심 고취와 민주화, 지방화 시대의 구현에 구심적인 지주가 될 군민헌장 제정 및 헌장비 제막식을 거제군청 정원에서 가졌다.

헌장비의 석재는 동부면 학동 해안변의 자연석으로 비대를 만들었고 헌장문은 충남대학교 윤형원 교수, 글씨는 국정(菊井) 김현봉, 석각은 연초 윤정규이다.

## 3) 행사내용

전야제 행사에는 선박 유등행사, 학생·시민의 축등행렬, 제례봉행, 거제번영기원제, 불꽃놀이, 경축연 등이다.

개식 행사는 군무, 사물놀이, 군민대상 시상, 가장행렬, 의장대 시범, 태권도 시범, 축하비행, 향우만남의 장, 전통혼례 석전, 윷놀이, 그네뛰기, 노젓기대회, 팔씨름, 궁도, 줄다리기, 어요시범, 농악놀이, 축구, 배구, 탁구, 육상, 단축마라톤, 씨름, 공구르고 달리기, 어린이 과자 따먹기, 모래주머니 던져 넣기, 낚시질, 신랑신부 꾸미기, 유치원생 재롱, 바구니 터뜨리기, 테니스, 시조경창, 백일장, 사생대회 기록사진 촬영대회, 군민노래자랑, 거제아가씨 선발대회, 서예전, 난전시, 수석전시, 우표전시, 반공사진전

시, 사진전시, 튜부통과 풍선 터뜨리기, 가마니 메고 달리기, 경로잔치, 고적대 시범, 농산물 품평회, 향토음식, 야외차집, 화합 한마당 등으로 다채로운 행사를 하였다.

독로문화제는 1995년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없어지고, 시민의 날로 다시 시작하였다.

### 3. 시민의 날 행사

- 장 소 : 거제시 공설운동장 및 보조경기장
- 일 시 : 1995년 10. 1~2(2일간)

#### 1) 개최배경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1995년 1월 1일 6년만에 다시 통합 거제시가 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거제군에서 매년 해왔던 군민의 날과 독로 문화제는 통합시로 인해 자동 해산되고, 1995년 9월 초에 문화제소위원회에서 10월 1일 시민의 날로 정하였다.

#### 2) 추진경위

시민의 화합과 자율적인 참여로 순수 민간행사로 알찬 경축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통합시의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축제행사로 시민의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시켜 시민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원동력이 되게 하였다.

#### 3) 행사내용

식전행사, 농악놀이, 민속놀이 한마당, 개식행사, 축하비행, 강강수월래, 석전, 줄다리기, 윷놀이, 그네뛰기, 제기차기, 줄넘기, 팔씨름, 공 굴러 달리기, 육상, 단축마라톤, 축구, 배구, 탁구, 테니스, 씨름, 여자피구, 게이트볼, 궁도, 화합행사, 전통혼례, 가을이 오는 소리, 우리가락 좋을씨고, 향토음식 개발, 농경유물전시회, 석전대회, 가마니 메고 달리기, 청소년놀이한마당, 시조경창대회, 바둑대회, 스포츠댄스, 국악한마당, 사진전시, 우표전시 등이다.

### 4. 해양스포츠 “바다로 세계로”

- 행사기간 : 7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 1) 개최배경

1994년 마산문화방송국에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여름철 피서지에서 각종 스포츠 행사를 하였다. 1998년까지는 통영시 동호항 주변에서 행사를 해 오다가 1999년부터는 거제 해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시민 및 관광객이 참여한 세계적인 행사를 해오고 있다.

### 2) 행사내용

세계여자 슈퍼비치발리볼 대회, MBC배 국제제트보트 경기대회, 전국 윈드스핑대회, 전국 바다장사 씨름대회, 전국 에어로빅 경연대회, 한·중·일 크루즈 레이서, 바다음악회, 블랙홀 여름콘서트, 바다영화 상영, 단축 마라톤 등이다.

## 5. 대금산 진달래축제

- 일 시 : 4월 중순
- 장 소 : 거제시 장목면 대금산

### 1) 개최배경

거제의 북악이라 불리는 대금산은 신령스런 산이다. 이 산의 북단에는 진달래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진달래는 진달래과에 속하는 낙엽관목이다. 일명 참꽃이라고도 한다. 한자어로는 두견화(杜鵑花)라 부른다. 우리나라 각처의 산에서 많이 자생하고 있는 이 나무는 3월 중순부터 4월말까지 꽃이 핀다. 꽃은 분홍색, 진분홍색, 자주색, 흰색이 있다.

찹쌀 가루에 꽃잎을 수놓아 떡을 해먹는 것을 화전(花煎)이라 한다. 또는 약 떡이라고도 하는데 조경(調經), 활혈(活血), 진해(鎮咳)에 효험이 있다.

삭막하고 메마른 겨울의 무미 건조한 생활에서 벗어나 새 봄은 희망이 넘친다. 온갖 나무들이 움이 터기 시작할 때 맨 먼저 화사한 꽃을 피우는 진달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봄의 전령처럼 기쁜 소식을 가져다 준다. 대금산의 진달래는 다른 지역보다 일찍 꽃이 핀다. 산 중허리에는 억새밭이 있고, 그 아래는 대금산 약수가 솟아난다. 1977년부터 꽃이 만개하는 4월 중순 토·일요일에 이곳에서 진달래 축제를 갖는다.

## 2) 행사내용

산신제를 올린 후 사물놀이와 무용이 있고, 한글 백일장, 윷놀이, 널뛰기, 연날리기, 어린이 씨름대회, 향토음식점, 화전시식 등 다채로운 행사를 한다.

## 6. 삼방산 참꽃축제

- 일 시 : 4월 중순
- 장 소 : 거제시 둔덕면 산방산

### 1) 개최배경

산방산은 거제의 서쪽에 위치한 명산이다. 이 산은 바위산으로 삼봉(三峰)을 이루고 있는데 그 생김이 붓과 같이 생겼다고 하여 필봉이라 한다. 그래서인지 그 산 아래는 문화 예술인이 많이 났다. 동랑 유치진과 청마 유치환이 이 산의 정기를 받았다.

산의 정상에는 오색토(五色土)가 있고, 임진란 때 옥씨가 피난했던 옥굴, 삼존 부처굴, 무지개터 등 명소가 있다. 옛날에는 칠월칠석과 백중날에 전남 선녀들이 이 산에 모여서 약수터에서 목욕하고 산의 정기를 받아 갔다. 1997년부터 산방산 참꽃축제 위원회에서 둔덕문화와 역사의 발원지인 이 산에서 호연지기의 기상을 키우며 둔덕 발전을 위해 참꽃 축제를 매년 4월 중순에 갖는다.

### 2) 행사내용

선행자 포상, 초·중생 사생대회 및 백일장, 산악단체 등반대회, 각종문화 단체 등반대회, 자연보호캠페인,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다채롭다.

## 7. 고로쇠 축제

- 일 시 : 1월 20일경부터 2월말까지
- 장 소 : 동부면 구천리 거제자연휴양림 내

### 1) 개최배경

단풍나무과에 속하는 고로쇠나무는 낙엽 활엽 교목이다. 깊은 산속에 자생하는데 높이가 15~20m정도로 자라며 잎이 피기전에 꽃이 핀다. 이른 봄에 이 나무에서 수액(樹液)을 채취한다. 수액은 희뿌옇한 것이 막걸리를 풀어놓은 듯하다. 그리고 맛은 달짝지근하다.

이 물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탈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며, 위장병, 신경통 등과 주취를 푸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제의 남쪽 지역인 노자산, 가라산, 북병산 일대에서 많이 자생하고 있는 고로쇠는 다른 지역보다 일찍 수액을 채취한다. 매년 1월 20일부터 2월말까지 수액이 나오는데 다른 지역보다 빨리 나오면서 그 맛이 진하고 약효가 뛰어나서 그 약수를 먹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몰려온다.

1997년부터 고로쇠 수액 채취 기간에 거제시에서는 새 봄맞이 축제를 한다. 만물이 생동하고 원기가 솟아나는 고로쇠 수액은 건강에 이바지 하고, 새 희망을 갖게 한다.

## 2) 행사내용

2월 중순쯤에 동부면 노자산 자락에서 고로쇠 약수제를 지낸다. 이 때 식전 행사로 농악놀이, 약수제(산신제), 고로쇠 약수 시음회, 고로쇠 직판장 운영 등으로 고로쇠 약수를 판매하여 소득을 올리고 관광객 유치에 힘쓴다.

## 제2절 거제민속보존회

- 주 소 : 거제시 사등면 지식리
- 대표자 : 회장 박순점, 부회장 윤주철

거제민속보존회는 1979년 경상남도 민속 경연대회 참가를 위하여, 거제향토사연구 소장이었던 이승철에 의해 거제민속 용왕굿, 풍어놀이, 거제칠진농악이 발굴되어, 박순점 회장을 비롯하여 거제 전역에서 민속에 대한 취미와 소질이 있는 사람이 모인 단체다.

이 단체는 박순점 회장의 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지식리 마을 회관 앞 마당과 사등 초등학교에서 연습을 했다.

교통이 좋지 못할 때, 멀리 장목 지역과 칠천도에서 아침 일찍 와서 연습을 하고 돌아가기 어려워, 박 회장 집과 이웃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연습을 했다.

사면이 바다인 거제 지역에서 오랫동안 전래되었던 용왕굿은 배를 만들어 처음 바다에 띄울 때(進水) 풍어와 안락의 고사를 지낸 후, 마을 사람들이 농악을 치면서 신명나게 노는 놀이이다. 바다를 의지하고 살아왔던 어촌 문화의 단면이다. 경상남도 민속경연대회에 여러 번 출전을 하여 수상을 하기도 하였다.

이것이 굿이란 이름으로 전해져 오기 때문에 미신이라고 하여 종교인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므로 중단하고, 풍어놀이를 발굴했다. 이 놀이는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면서 부르는 어요(漁謠)다. 우리의 어요는 일본 사람들에 의해 없어진지 오래다. 연초면 한내리 김두민 옹에 의하여, 전해져 오는 것을 민속으로 발전시켰다.

장승포 지역이 시로 승격되면서 장승포 시에서 경남민속 경연대회에 출전할 민속 놀이를 풍어 놀이에서 근원을 따와서 팔랑개 어장놀이를 발전시켰다.

거제 칠진 농악은 임진란때, 외적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거제 칠진에서 성 주위를 돌면서 농악을 쳤던 것이, 마을과 마을끼리 청진과 흥진으로 나뉘어 상대방의 깃발을 빼앗는 농악놀이를 발전하였다. 이 놀이는 농악이 힘차게 울리면서 상대방의 기세를 제압하는데 있다. 그래서 상쇄의 리더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

상쇄는 지식마을 김관석옹이다. 김옹은 어릴 때부터 진풀이 농악팀의 상쇄에 매료되어 산에 나무하러 가서 지게 목발에 장단을 치면서 가락을 익혔고, 쇠죽을 끓일 때 부작지로 솔 뚜껑을 두드리면서 상쇄의 셋가락을 배웠다.

김옹의 진풀이 상쇄 소리를 들으면 흥이 절로난다. 청진과 흥진이 싸울때는 폭풍우가 쏟아지는 듯 광란의 소리로 지축을 흔든다. 사물놀이 하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배우려 해도 도저히 흉내도 내지 못할 정도였다. 거제 민속팀에서 여러 해 따라 다니면서 배운 사람들이 그 맥을 이어 나가고 있다. 전통민속농악보존회 정옥식 회장도 거제민속팀 회원이었다.

### 제3절 전통민속농악보존회

- 주 소 :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160(공설운동장 실내공간)
- 전 화 : (055) 637-0695
- 설립목적

외래문화에 밀려 잊혀져가는 조상들의 얼이 담긴 전통 민속농악을 계승, 발전시키고 옛것을 발굴하여 거제 칠진농악을 보존, 육성하여 지속적으로 전수함으로써, 내고장 문화를 바로 알게 하고자 함.

## 1. 사업 및 활동사항

- 매주 월요일 자체의 실력향상을 위한 지속적 전수활동
- 월 3주(화~금) 종목별 연수(자체)
- 년 1회 10일간씩 종목별 연수(외부인사 초청)
- 지역민 대상으로 경로위안잔치 및 봉사활동(연 2~3회)
- 1개월씩 기초 강습으로 20차례에 걸쳐 800여 명 배출
- 현재 지속적으로 전통 민속농악 교실을 열고 있음

## 2. 임 원

- 회 장 : 정옥식(신현읍 장평리 160)
- 부 회 장 : 김정미(신현읍 장평리 신주공②)
- 기획실장 : 김수연(신현읍 양정리 고려②)
- 운영위원 : 이군자(연초면 오비리 신우②)
- 감 사 : 문기해(신현읍 장평리 60-12)
- 감 사 : 김명자(옥포2동)
- 총 무 : 양기순(신현읍 장평리 333-2)
- 부 총 무 : 강선애(연초면 이목리 364)

## 3. 연 혁

- 1983. 11. 11. 옛 장평 두레농악을 재조직
- 1994. 2. 8. 장평 노인정회관에서 장평농악 발대식
- 1996. 8. 10. 신현읍 부녀농악대로 개칭
- 1996. 12. 12. 거제시전통민속농악보존회로 창립총회

## 4. 활동사항

- 1996. 10. 29. 장평 그린파크장 개업 축하공연
- 1996. 11. 14. 경상남도 제1회 농업인의 날 행사 창원운동장 공연
- 1996. 11. 22. 거제시농업인의 날 행사 축하공연
- 1996. 11. 25. 진삼석 개토지고사 지신밟기

- 1997. 2. 6. 연초면 한내리 모세도로 개통식 공연
- 1997. 2. 13. 구정 거제시민 안녕기원 지신밟기  
거제 고로쇠 약수물 제1회 행사 축하공연  
거제 동백축제 행사 축하공연
- 1997. 3. 8. 보존회원 단합대회
- 1997. 4. 23. 축협 냉동공장 신축 준공식 축하공연
- 1997. 6. 16. 옥포대승첩 기념식 축하공연
- 1997. 8. 23. 대우조선 노조 10주년 기념식 축하공연
- 1997. 9. 27. 경상남도생활체육대회 축하공연
- 1997. 10. 1. 거제시민의 날 행사 칠진농악 재연
- 1997. 10. 2. 전통 민속농악 축하공연
- 1997. 10. 6. 전국체육대회 성화봉송식 시청서 축하공연
- 1997. 10. 10. 거제중앙고등학교 제1회 새들빛 축제공연
- 1997. 10. 12. 연초중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 축하공연
- 1997. 10. 13. 거제시여성단체 및 전통민속농악 내장산단합대회
- 1997. 10. 16. 거제활어센터 확장개업 축하공연
- 1997. 10. 19.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거제지대 발족 축하공연
- 1997. 10. 20. 해성고등학교 전교 축제 축하공연
- 1997. 11. 17. 사등면 사곡 리마트가구점 신장개업 공연
- 1997. 11. 18. 신한국당 결의대회 실내체육관서 축하공연
- 1997. 12. 1. 전통민속농악보존회 창립 1주년 기념식 공연
- 1997. 12. 15. 고현 가로파크장 신장개업 축하공연
- 1997. 12. 16. 신현농협 중곡동분소 신축개장 축하공연
- 1997. 12. 29. 보존회원 전체 송년의 밤 행사
- 1998. 1. 13. 일주일간 상모연수(외래강사 초빙)
- 1998. 1. 21. 거제시 문화예술회관 기공식 축하공연
- 1998. 2. 7. 제2회 거제시 고로쇠 수액 축제공연
- 1998. 2. 9. 거제시민 안녕기원 및 지신밟기
- 1998. 3. 8. 거제 동백축제 학동서 축하 공연
- 1998. 5. 12. 전통민속농악보존회 회원 단합대회
- 1998. 6. 16. 옥포대승첩 기념행사 축하공연
- 1998. 6. 22. 고현 홈마트 신장개업 축하공연
- 1998. 7. 1. 양정식시장 취임 축하공연



- 1998. 10. 1. 거제시민의 날 행사 칠진농악 공연
- 1998. 11. 26. 전통민속농악보존회 회원 마이산단합대회
- 1998. 11. 26. 전통민속농악보존회 창립 2주년 기념식 및 거제 칠진농악 기능보유자 전수식을 사등면 김관석옹으로부터 정옥식 회장이 받음
- 1999. 2. 6. 제3회 거제시 고로쇠 수액채취 축하공연
- 1999. 3. 2. 전통민속농악보존회 거제시민 안녕과 지신밟기
- 1999. 3. 11. 시민의식선진화운동 결의대회 공연
- 1999. 4. 22. 신 거제대교 개통식 축하공연
- 1999. 4. 26. 전통민속농악보존회 회원 거창수성대단합대회
- 1999. 5. 5. 전통혼례식 때 신부축 축하공연
- 1999. 6. 16. 옥포대첩행사 축하공연
- 1999. 11. 11. 거제시농업인의 날 행사 축하공연
- 1999. 12. 13. 전통민속농악 보존회원 단합대회
- 1999. 12. 24. 신현읍 상동회관 준공행사 축하공연
- 2000. 2. 8. 거제시민 안녕기원 및 회원 집 지신밟기
- 2000. 2. 12. 제4회 거제시 고로쇠 수액채취 축하공연
- 2000. 3. 11. 실내체육관서 한나라당결의대회 축하공연

## 제4절 풍물놀이 가락패

- 소재지 : 거제시 아주동 1번지
- 규 모 : 1층(가건물) 60m<sup>2</sup>

### 1. 유 래

이 단체는 1989년 10월 김귀복, 홍진식, 박동호, 한상일, 이금수, 박만규 등이 '거제문화 계승발전보존회'로 발족하여, 1991년 5월 거제시 공연단체 10-8호로 등록, 동년 12월 '풍물놀이 가락'으로 개칭하여 창단공연을 옥포극장에서 열고, 지역문화를 널리 보급하고 있다.

- 풍물놀이 가락 창단공연('91. 12. 11)  
〈단원〉 김귀복, 홍진식, 박동호, 한상일, 이금수, 박만규, 표미숙, 최경운, 김숙란, 최경애, 갈중근 등이다.

## 2. 주요 업적

- 1991년 12월 11일 풍물놀이 가락 창단공연
- 1992년 5월 8일 장승포풍어제 시연
- 1992년 10월 7일 제23회 도민속예술경연대회(팔랑개 어장놀이에 처녀출전, 노력상)
- 1993년 5월 26일 영·호남 친선문화의 밤 개최(정음농악패 출전, 고성오광대 출전)
- 1993년 10월 13일 제24회 도민속경연대회(팔랑개 어장놀이에 동참, 우수상)
- 1994년 8월 13일 '94 국악한마당 개최(옥포)
- 1994년 10월 10일 제25회 도민속경연대회(팔랑개 어장놀이에 동참, 최우수상)
- 1995년 10월 11일 전국민속경연대회(팔랑개 어장놀이에 동참, 장려상)
- 1995년 11월 4일 제26회 도민속예술경연대회(팔랑개 어장놀이에 동참, 장려상)
- 1996년 6월 9일 용왕수륙대제 개최(옥포매립지)
- 1997년 5월 4일 한량농악 전수(한내)
- 1998년 10월 30일 거제농악 시연발표회(옥포매립지)
- 1999년 6월 20일 제30회 도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남해: 거제농악 처음 출전).
  - 창단부터 지금까지 정월 대보름 달맞이 및 지신밟기 공연 10회
  - 창단부터 지금까지 경로위안잔치 개최46회
  - 창단부터 지금까지 각종행사 참석공연 67회

## 3. 역대 회장명단

대 수	성 명	재 직 기 간	년 개월	주 요 업 적
1대	홍진식	'91. 12. ~'95. 12	5년	팔랑개 어장놀이 발굴
2대	박동호	'96. 1. ~'96. 12	1년	정월 지신밟기 발굴 및 용왕제 발굴
3대	홍진식	'97. 1. ~'97. 12	1년	한량농악 전수
4대	김귀복	'98. 1. ~'00. 12	1년	거제농악 발굴
5대	박용식	'01. 1 ~ 현재		제31회 도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준비

※ 창단부터 '97년까지 김기복회원이 사무, 총무, 기획 등 관리하였다.(정회원, 준회원 30명)

'98년 말부터 2000년 12월까지 정원수 증가 및 조직기구 정리(정회원 : 54명)

#### 4. 2001년 현 조직

- 회 장 : 박 용 식
- 총 무 : 서 치 숙
- 감 사 : 조 광 신
- 홍 보 : 조 규 석
- 기 획 : 박 희 령
- 공 연 : 최 경 운
- 교 육 : 김 경 식
- 오 락 : 장 칠 원
- 공동대표 : 김귀복, 홍진식, 박동호

### 제5절 바르게살기 여성농악대

- 소 재 지 :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 인 원 : 54명
- 발대취지 :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바른 마음, 바른 자세로 건강하고 유쾌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 1. 활동사항

- 1990년 9월 29일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및 학교폭력배 근절 캠페인 및 농악보급
- 1999년 10월 26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및 농악보급
- 1999년 12월 31일 2000년 새해맞이 경축행사(도청주관)에 거제시문화단체 대표로 출연
- 2000년 1월 1일 칠천육교 개통식 축하출연
- 2000년 1월 3일 새해지신밟기행사 출연
- 2000년 2월 8일 교통사고와의 전쟁 선포식에 가두 축하출연
- 매월 1회 거제 옥산 사랑의 집을 방문하여 경로위안 공연을 하고, 그외 각종 행사 및 캠페인 장소에서 민속농악에 대한 문화보급

#### 2. 역대 회장단

- 초대 회장 : 김영성 1999년 ~ 2000년 12. 31
- 제2대회장 : 김둘자 2001년 1. 1 ~ 현재

## 제6절 거제문화패 소리울

1994년 12월 우리가락, 우리문화를 사랑하는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 우리의 멋과 그 옛날 신명난 놀이판을 되살려 지역의 공동체적인 삶의 문화를 만들어 내고, 발전시키는데 한몫을 하고자 만든 순수 문화단체로서, 1995년 2월 9일 거제시에 공연단체 등록(거제시 10-10호) 하였다. 현재 정회원 20명과 강습회원 300여 명, 학생부 풍물패 7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직업으로 하는 전문 풍물잡이는 아니며, 우리가락, 우리문화를 전승·보급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 연 300여명의 시민 풍물강좌를 통한 우리문화의 저변확대 보급에 기여함과 동시
-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한 학생부 풍물패 “한울림” 육성(70명)
- 연 4회이상의 경로당 방문 풍물공연
- 여름, 겨울 정회원의 정기적인 연수활동
- 해마다 가을 큰 풍물관 “가을이 오는 소리 우리가락 좋을씨고”를 개최(2000년 4회째)하여, 풍성하고 당당한 우리문화 알리기에 앞장 서 왔다.
- 지역 토속문화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활동으로 “거제농악”으로 경남도민속 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하는 등
- 지역내에서 우리가락, 전통문화 기능보급에 올곧게 자리 매김하고 있다.
- 특이하게도 다양한 직업의 직장인들이 이끌어 가는 단체이다.

### 1. 소리울 정회원 명단

연번	성명	연령	직업	비고	연번	성명	연령	직업	비고
1	김상출	45	교사(거제여상)		11	서동근	31	공무원(외국어학원)	
2	김형호	40	공무원(거제시청)		12	위재원	30	교사(거제제일중)	
3	이철환	40	교사(거제공고)		13	이미분	37	교사(계룡초등)	
4	옥영문	40	자영업		14	류정숙	30	교사(계룡초등)	
5	차상용	38	경찰(통영해경)		15	김숙향	45	주부	
6	배성국	34	근로자(대우조선)		16	윤금봉	46	주부	
7	심상화	34	”		17	김혜주	21	회사원(거성해운)	
8	박재성	37	은행원(농협)		18	박정리	28	교사	
9	장철우	33	교사(장평초등)		19	이은주	29	공무원(거제시청)	
10	위재수	33	교사(거제여상)	회장	20	김병기	33	근로자(삼성조선)	

## 제7절 직장 민속 농악회

### 1. 대우조선 민속농악회

1988년 3월 5일에 대우조선 노동조합 농악대로 구성, 행사 때 출연하다가, 1989년 12월에 정식으로 대우조선 민속농악회라는 이름으로 발족하였다. 현재 18명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거제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진풀이 농악을 전수받았고, 옥포대첩기념제에 참여하면서, 전야제·기념식·민속경연대회 등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다. 그리고, 농악경연대회 시범연주와 풍어제를 재현하는 실력을 발휘하였으며, 또한 사내 큰 행사나 거제문화원 행사 때 한바탕 흥겨운 농악을 한다. 앞으로 거제지역에 남아 있는 당산제·지신밟기 등 고유민속놀이를 계속 발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 2. 멍석마당

역사 속에서 민중들의 건강한 삶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풍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노동자 문화와 접목하려는 취지에서 대우조선 노동자들과 거제지역민이 결합하여, 1988년에 창립된 풍물패이다. 창립 이후 거제도내의 각종 민주단체의 행사와 노동자 행사에 참여하였고, 거제 지역민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거제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회 20여명씩 풍물강습회를 실시하여, 올해 3월에 4기생을 배출하였다. 옥수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매일 저녁 정기모임과 연습을 하고 있다.

### 3. 대우조선 풍물패연합

대우조선 사업장의 각 부서별 풍물패들이 각종 행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연합체 건설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어, 1989년 5월에 준비모임이 결성되고, 그해 7월 22일 공식적으로 창립된 단체이다. 현재 총 53명의 회원으로 산하에 백두(조립선수미부), 신명(조립판넬부), 들불(특수선부), 얼쭉(플랜트철구부), 도리깨(기관의를장부), 두레(탑재부), 소리(사무직) 등의 풍물패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자문화와 전통문화의 결합이라는 취지아래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자체행사로는 신입회원에 대한 풍물강습, 문화교육, 강연회를 진행하며, 대풍연 회보발간과 올해 연말 지역민을 위한 공연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 매일 저녁 능포동에 있는 사무실에 모여 정기모임을 갖고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 4. 대우불교청년회 사물놀이단

한국의 소리(가락)를 우리 몸으로 직접 느끼고, 이를 전파하여 지역민들과 함께 하며, 불교사상에 입각한 포교활동의 일환으로 1987년에 창단되었다. 야외에서 웅장하게 펼쳐지는 농악과는 달리 좁은 실내 공간에서도 연주할 수 있기에 현재에는 실내음악으로 정착되고 있는 사물놀이는 팽과리·장고·북·징을 연주하는 4인으로 구성된다. 창단 이래,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경로잔치 등 불교청년회 행사와 대우조선 송년잔치에 출연하였고, 그 외에도 각종 단체의 행사장에 불러 다녔으며, 지금은 충무지역으로까지 진출하고 있다. 사물놀이의 그 특유한 가락은 기교와 함께 구성원간의 완전한 호흡일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연습시간을 투여해야만 한다. 현재 15명의 단원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에 정기모임과 연습을 진행하고 있다.

## 제11장 체 육

### 제1절 거제 체육의 변천사

체육의 역사를 시대적으로 구분한다면, 1894년 갑오경장(甲午更張)을 중심으로 하여 그 이전을 전통 체육 시대라 하고, 그 후를 근대체육 시대로 구분한다.

전통 체육은 노동적인 것과 무예적인 것이 있고, 근대 체육은 학교 체육이라 할 만큼 교육적인 것이다.

전통 체육의 노동은 생활 속에서 삶을 추구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논매기, 보리타작, 물 퍼기 등, 모두가 힘과 관계되는 것으로 작업을 하면서 힘 겨루기를 한다. 여기서 민속놀이가 생겼다. 줄다리기, 씨름, 그네뛰기, 널뛰기, 연날리기 등이다. 무예적인 것은 활쏘기, 검술, 창술, 격봉(擊棒), 기사(騎射), 격구(擊毬), 수박(手搏), 원기(猿騎), 석전(石箭), 수희(水戲), 검무 등으로 무예와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근대체육은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교육을 내용으로 한 체조, 유희, 교련 등이 일반화되면서 전통 체육은 밀려나기 시작하였다.

무예적인 것이나 전통적인 것은 신체 건강, 예의(禮儀), 용감, 인내 등의 덕성을 연마하는 훈련적인 것이었다. 반면 근대 체육은 유희적인 것으로 축구, 배구, 농구, 권투, 유도, 수영, 탁구, 정구 등으로 취미를 겸한 운동이다.

#### 1. 거제 체육의 유래

거제 체육은 전통적인 씨름과 석전(石箭), 궁술이 대표적인 것이었다. 팔월 한가위날이나 백중날, 단오날에 씨름을 했다. 활은 선비들의 정신 무예로 시작하여 대중화되면서 궁도(弓道)란 이름으로, 활을 통해서 건강 유지와 도를 닦는데 근본을 두었다.

거제면은 거제 구읍이라 한다. 1663년부터 조선말기까지 거제부(巨濟府)의 치소(治所)가 있던 곳이다. 거제의 문화 예술과 체육이 그때까지는 이 지역이 중점적인 활동을 해왔다. 거제면에는 조선시대부터 해방 후까지 궁도장이 있었다. 그리고 아주동 해안면에는 1970년 이전까지 궁도장이 있었다.

근대 체육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축구다. 짚으로 만든 공을 찼다. 운동장이 없

어서 바닷가 어장 터나, 개천변, 보리밭 같은 데서 편을 갈라 축구를 한 것이 시초다. 어린이들은 짚으로 만든 축구공 대신 돼지 오줌통에 바람을 넣어서 공대신 차기도 했다.

축구, 배구, 육상 같은 운동은 해방을 전후하여 많이 보급되었다. 학교 운동회에서 빠질 수 없는 인기 종목이 되었다. 축구와 배구는 단체적인 경기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다.

축구가 대중적인 경기로 인기를 얻게 되면서 농한기를 이용하여 읍면별 축구 경기가 종종 있었다. 상품으로 염소나 송아지를 걸어 놓고 시합을 했다. 상품 보다, 마을간의 자존심 싸움으로 언제나 막판에는 싸움이 벌어졌다. 그럴 때마다 옥포 사람들이 세가 우세하여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우승기와 상품을 가져가는 일이 종종 있었다.

1914년 거제군이 통영군에 통합되었다가 1953년 복군과 더불어 행정과 교육 업무가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때 재경 학우회가 조직되어 초대 회장 최창일(동아대학 재학)이 회장을 맡았다. 1953년 8월 1일 장승포 초등학교에서 광복 기념과 더불어 군민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많은 군민이 참석한 가운데 축제 분위기로 상황을 이루었다.

읍면대항 축구와 배구대회를 비롯하여 마라톤 대회가 있었다. 거제 교육청에서 출발하여 장승포 시장을 한바퀴 돌아서 장승포 운동장에 들어오는 코스다. 육상행사 주관은 신봉관(해운업 대표)이 했다. 육상에서는 마라톤이 인기 종목이었다. 제1회 때 우승자는 백승도였고 제2회 때는 이주리였다.

1959년 7월 장승포 지역이 주축이 되어 장승포 초등학교에서 거제군 체육행사를 하게 되었다. 민간인 주도로 개최되었으며, 체육회장에 운행일이었고 육상협회장에는 신봉관이었다.

장승포 아주, 아양, 옥포는 거제에서 개화 문화가 제일 먼저 들어온 곳이다. 주민들은 축구와 육상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당시 거제를 대표한 축구 선수는 백금석(아양), 옥근석(연초), 강순백(장승포), 진도영(아양), 진도철(아양), 이정석(옥포) 등이고, 윤철규(장승포)는 한국청소년 대표선수로 선발되었다.

## 2. 전국 초등학교 축구대회 개최

장승포는 거제에서 문화와 체육이 외부로부터 가장 먼저 도입되어 발전을 가져온 항구 도시다.

장승포 문화원이 이곳에 있었고 윤병수 원장은 문화와 체육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문화원 주최로 읍면 대항 축구대회를 1971년부터 3년간 개최하였고, 다음 해는 전국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장승포 초등학교에서 2일간에 걸쳐 개최하기도 하였다.



### 3. 거제군체육회 발족 및 운영

1961년 제1회 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되면서부터 거제군 체육회가 발족되었다.

열악한 재정과 선수 부족으로 경남도내 제2부에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당시 선수들은 장승포 옥포에서 70%이상을 차지했다.

경남체육대회는 학생을 위주로 하는 경기였기 때문에 1970년까지는 거제교육청에서 담당했다. 당시 담당자는 이기우(현 : 교육부 기획실장)이었다.

체육 전반에 대한 경기 진행과 운영은 윤병수(문화원장)가 경기이사와 전무이사로 일했다.

1971년 체육 업무가 거제군 교육청에서 거제군으로 이관되면서 거제군 공보실에서 그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면서 민간단체 체육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하여 그 기초 작업으로 체육회 기간 동안 상근 간사를 두는 것으로 하였다. 이때의 전반적인 운영은 경기 이사(전무이사) 윤병수가 전담하였다.

1977년 옥성선 군수 재임시에 체육 기반 활성화를 위한 협회를 구성하였다. 민간 단체 체육회의 첫 작업으로 무보수 사무국장에 정규정, 경기 기간 동안 유보수 간사에는 이주리였으며 당시 협회장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육 상 : 배정섭, 신현학, 이정태
- 축 구 : 이진규, 박동규, 윤신국, 정영배
- 배 구 : 원길상, 김홍률, 권영철
- 테니스 : 모기휴
- 유 도 : 김광덕, 이유환
- 탁 구 : 박남정, 김길성, 김두환, 박종원, 김정용
- 연식정구 : 모기휴, 이광시
- 궁 도 : 김대규
- 태권도 : 김태진, 신인환, 김덕용
- 복 싱 : 김한운, 이정준, 이용길
- 사 격 : 홍학수, 손대용, 곽영명
- 수 영 : 박종식, 강희중
- 족 구 : 조상도
- 씨 림 : 윤병수
- 싸이클 : 원철희

구성은 군수가 당연직 대회장이 되고, 부회장은 교육장, 고등학교 교장, 그리고 일반

인으로 체육에 관심이 있거나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부회장이 되었다.

각 협회별 협회장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반인으로 하였다. 육상연맹 회장은 능포수산 배정섭 사장이었다. 당시는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체나 독지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거제군 체육예산에서 6백만원, 정진수산(능포수산) 배정섭 3백만원, 대한조선공사 30만원, 박명길 5만원 등의 협찬금으로 경남도체에 출전하여 2부에서 3위를 했다.

배구 협회장은 원길상(거제식품, 거제산업) 사장이었다. 거제 배구의 발전을 위하여 선수 훈련기간 동안 숙식을 비롯하여 출전 경비 전반을 자비로 부담하였다. 외지에 있는 거제 출신 선수를 영입하는데도 많은 돈을 투자하기도 했다. 오랜 기간 동안 거제 체육을 위해서 협회장과 부회장으로 일했다.

이때까지는 체육회 업무를 대회기간 동안 간사(이주리)가 맡아서 했고 협조 업무는 거제군 공보실에서 했다. 그 후 1983년 박창기 군수 재임시 도민체육회를 대비하여 그 해 9월 1일부터 상군 거제군 체육회가 발족되어 사무국이 설치되었다. 사무국장에 이주리가 임명되었고 그 해 도민체전 2부에서 종합 2위를 했다. 배구 1위를 비롯하여 육상에서 많은 점수를 획득했다.

1987년 도민체전 2부에서 2위를 하였고, 그 후 1부에서 6위의 성적을 올렸다. 1부는 경남도내 시단위 체육단체와 전년도 3위까지 성적을 올린 시군이다.

이 밖에도 협회장이 자비(自費)로 선수 선발과 훈련에 노력하여 출전케 하였다.

거제 체육 발전을 위해 협회장과 기업체, 독지가의 협찬이 있었고, 이주리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관계 체육인의 노력이 컸다.

#### 4. 거제군민체육대회 개최

군민체전은 1968년부터 개최해 오다 1973년 고현 계룡초등학교에서 제5회 거제군민 체육대회를 2일간에 걸쳐 범군민적 대회로 개최하였으며 체육전반에 대한 읍면대항 체육행사였다. 그 가운데 육상 선수 선발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도민체전에서 점수를 획득하는데는 육상이 유리했기 때문이다.

육상협회장 배정섭은 단축 마라톤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아시아 뉴델리 대회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최윤철 선수를 초빙하여 심판장을 시켰다. 이때부터 거제의 육상은 많은 관심속에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1977년 장승포 초등학교에서 제7회 대회를 하였고, 1983년 10월에 장승포 초등학교

에서 제11회 대회를, 1985년도에 거제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제12회로 막을 내렸다.

## 5. 장승포시체육회 발족

1989년 1월 1일부로 장승포가 시로 승격하면서, 장승포시체육회가 그 해 2월에 발족하였다. 장승포 체육회는 생활체육회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체육 전반에 대해 단일화하였다. 협회장은 당연직 일반 이사가 되었다. 장승포체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지역이 장승포, 아양, 옥포였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체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대우조선소 설치로 인해 외부에서 유입된 체육인도 있었다. 당시 체육회 이사회 및 협회장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 장 : 장승포 시장(당연직)

부회장 : 서영철, 원철희, 최백희, 김주경, 박종식, 김철수, 배길송, 이동현, 김용환,  
김규영

상근부회장 : 원철희

사무국장 : 윤철규

이 사 : 권순옥, 이근춘, 황수현, 김태진, 임태성, 김두환, 이성도, 정태만, 김원주,  
윤병찬, 강공주, 정성도, 이병문, 이이단오, 김학겸, 김쾌보, 이재환, 도영만

협회장

축 구 : 김철수

배 구 : 이성길

육 상 : 윤병희

테니스 : 장상환

복 싱 : 이 호

골 프 : 이광시

정 구 : 엄수훈

태권도 : 김덕용

유 도 : 김광덕

씨 림 : 김양덕

배드민턴 : 최필종

궁 도 : 김대규

## 6. 도농통합 거제시체육회 발족

1995년 1월 1일부로 도농 통합시로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통합하여 거제시가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거제시 체육회가 발족되었다.

회장은 당연직 거제시장이다. 통합으로 인하여 장승포시 사무국과 거제군 사무국이 합치므로 유급 사무국장에 대한 처리 때문에 논란이 있었다. 처음에는 사무국장이 둘이었다. 체육회가 차츰 제자리를 잡으면서 사무국장 윤철규, 간사 옥영윤이었다. 초창기 통합 체육업무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상임부회장은 이정준이었고, 윤철규, 고영윤 후임에 신봉민 사무국장이었다.

## 7. 체육기금 조성

그동안 체육회 운영과 출전 경비 등에 필요한 예산은, 기업체와 독지가의 성금과 시의 예산으로 충당하였다. 통합시가 되면서 장승포시체육회에서 약간의 잔여금과 거제군 체육회에서 3천2백만원의 잔여금이 기반이 되어 첫 출발했다.

거제시체육회가 발족되어 체육기금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4년동안 10억원을 수협에 정기 예탁하였고, 1억7천만원을 운영 기금으로 조성하였다.

이 기금을 조성하는데는 체육인과, 기업체, 독지가 그리고 체육회 이사와 협회장 등 거제 체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협찬과 노력이 컸다.

자료제공 : 윤병수, 배정섭, 원길상, 이주리, 이정준, 윤철규

## 8. 연도별 거제시체육회 임원현황

### 거제시체육회 임원현황(1995~1996년도)

직	위	성	명
회	장	거제시장	
상	임 부 회 장	이정준	
부	회 장	정 영, 진수진, 김주경, 옥남석, 강인성, 곽원열, 김주식, 김영후, 엄수훈, 반응안	
사	무 국 장	신봉민	
감	사	김종기, 김동기(당연직감사)	
이	사	신현학, 성원길, 이주리, 박용화, 양일웅, 백주동, 이정태, 원용석, 손종길, 김정효, 강계근, 이정호, 김일곤, 백주기, 정인옥, 황일광,	

직 위	성 명		
이 사	박명철, 윤진국, 권민호, 심문수, 이희기, 원용은, 설종열, 김길성, 류문학, 신용비, 김상욱, 김이환, 장세민, 정태식, 손종목, 박춘광, 장철수, 최영식, 윤정관, 장정백, 강공주, 권순옥, 박기용, 윤양호, 박영호, 전태수, 김진용, 정복덕, 김수계, 김용화, 김재언, 조기태, 하강춘, 강병헌, 김학겸, 황수현		
육 상 협 회 장	이 종 국	태 권 도 협 회 장	김 덕 용
축 구 협 회 장	김 태 열	볼 링 협 회 장	박 태 선
수 영 협 회 장	강 희 중	골 프 협 회 장	윤 행 근
테 니 스 협 회 장	최 명 호	보 디 빌 디 ng 협 회 장	임 채 오
정 구 협 회 장	장 상 환	유 도 협 회 장	정 영 현
배 구 협 회 장	박 성 태	궁 도 협 회 장	장 흥 언
탁 구 협 회 장	김 정 용	농 구 협 회 장	문 선 길
씨 림 협 회 장	박 무 규	레 슬 링 협 회 장	김 태 권
복 싱 협 회 장	이 호	검 도 협 회 장	송 중 구
사 격 협 회 장	곽 영 명	보 디 셸 링 협 회 장	김 중 규
배 드 민 턴 협 회 장	이 영 수		

1997~1998년도

직 위	성 명
회 장	거제시장
상 임 부 회 장	이정준
부 회 장	한창일, 진수진, 이호근, 이한상, 곽원열, 이유환, 김주식, 김두환, 엄수훈, 반응안, 박기용, 곽영명, 박영호
사 무 국 장	신봉민
감 사	권민호, 반광수(당연직감사)
이 사	강계근, 김일곤, 윤진국, 심문수, 김길성, 류문학, 장세민, 정태식, 손종목, 정복덕, 김재언, 황수현, 박용화, 양일웅, 백주동, 백주기, 설종열, 황일광, 이희기, 조기태, 김상욱, 윤정관, 이정태, 신용비, 김상철, 김석용, 장정백, 주경식, 강병헌, 손정길, 강공주, 하강춘, 윤양호, 김학겸, 김종기, 박춘광, 이재완, 김수계, 황익생, 이득만,

직 위	성 명		
이 사	신영재, 이종권, 윤일원, 임정덕, 서병관, 윤병진, 양봉준, 문동팔, 백상흙, 허진무, 김영민, 권민호, 박명철, 김금석, 김여환		
육 상 협 회 장	이 정 호	태 권 도 협 회 장	조 영 제
축 구 협 회 장	강 희 종	볼 링 협 회 장	박 태 선
수 영 협 회 장	김 태 열	골 프 협 회 장	이 형 철
테 니 스 협 회 장	최 명 호	보 디 빌 디 ng 협 회 장	임 채 오
정 구 협 회 장	장 상 환	유 도 협 회 장	정 영 현
배 구 협 회 장	박 성 태	궁 도 협 회 장	김 한 울
탁 구 협 회 장	김 정 용	농 구 협 회 장	김 선 두
씨 림 협 회 장	박 무 규	레 슬 링 협 회 장	김 태 권
복 싱 협 회 장	이 호	검 도 협 회 장	김 덕 준
사 격 협 회 장	최 영 학	보 디 셸 링 협 회 장	김 종 규
배 드 민 턴 협 회 장	문 선 길		

## 1999~2000년도

직 위	성 명		
회 장	거제시장		
상 임 부 회 장	김주식		
부 회 장	조진래, 강인섭, 김태문, 이호근, 김영구, 조철룡, 최명호, 반응안, 광영명, 김정용, 김두한, 엄수훈, 박영호, 김진용, 이 호, 김석용		
사 무 국 장	신봉민		
감 사	김종길, 신동섭(당연직감사)		
이 사	강계근, 김길성, 류문학, 김재언, 황수현, 박용화, 양일웅, 설종열, 황일광, 조기태, 이정태, 김태진, 이재완, 이종권, 문동팔, 김금석, 윤문수, 권민호, 이원준, 김종길, 이성득, 이강문, 옥삼수, 윤영국, 전창환, 윤준일, 정철용, 김상출, 김만성, 김정효, 김양주, 이상영, 박무규, 전병호, 최정환, 옥찬석		
육 상 협 회 장	이 정 호	태 권 도 협 회 장	강 다 관
축 구 협 회 장	조 영 제	볼 링 협 회 장	천 종 완
수 영 협 회 장	강 희 종	골 프 협 회 장	이 형 철

구 분	성 명		
테니스협회장	김 성 규	보디빌딩협회장	임 채 오
정구협회장	김 쾌 보	유도협회장	정 영 현
배구협회장	장 정 백	궁도협회장	김 한 율
탁구협회장	권 오 은	농구협회장	김 용
씨름협회장	조 성 구	레슬링협회장	김 태 권
복싱협회장	유 수 상	검도협회장	김 덕 준
사격협회장	주 현 옥	보디셀링협회장	김 학 겸
배드민턴협회장	이 영 수	산악협회장	진 선 석

2001~현재

직 위	성 명		
회 장	거제시장		
상 임 부 회 장	김주식		
부 회 장	서 철, 오원석, 최명호, 이영신, 김석용, 반응안, 곽영명, 김두한, 박영호, 엄수훈, 이 호, 김정용, 윤진국, 김철수, 김선기		
사 무 국 장	신봉민		
감 사	옥삼수, 김화순(당연직감사)		
이 사	강계근, 김길성, 류문학, 황수현, 설종열, 황일광, 조기태, 이정태, 김태진, 옥찬석, 옥삼수, 김종길, 이성득, 김만성, 옥영만, 이상영, 강희중, 김성규, 이형철, 김덕준, 임채오, 김영도, 이재욱, 여용석, 옥선호, 기장재, 이원준, 김창호, 박종호, 반찬욱, 황판상, 라영철, 이영찬		
육 상 협 회 장	이 정 호	볼링협회장	박 태 선
축 구 협 회 장	조 영 제	골프협회장	이 무 극
수 영 협 회 장	김 재 현	보디빌딩협회장	이 한 규
테니스협회장	주 경 식	유도협회장	김 영 민
정구협회장	김 쾌 보	궁도협회장	김 한 윤
배구협회장	최 정 환	농구협회장	김 용
탁구협회장	권 오 은	레슬링협회장	김 학 겸

구 분	성 명		
씨름 협회장	주현욱	김도협회장	이종목
복싱 협회장	전병호	보디셀링협회장	김병원
사격 협회장	김영재	야구 협회장	조만성
배드민턴협회장	이휘학	산악 협회장	진선석
태권도 협회장	우명열		

## 9. 역대 도민체육대회 개최현황

개최년월일	회수	장 소	참가인원	1 위	2 위	3 위	경기종목
'62. 5.20~22	1	부 산	1,126	울 산	김 해	진 주	5
'63. 5.16~19	2	진 해	5,220	마 산	진 주	울 산	15
'64. 5.17~19	3	진 해	3,939	마 산	김 해	진 주	8
'65. 5.23~25	4	마 산	4,445	마 산	진 주	울 산	23
'66. 5.19~21	5	진 주	2,813	울 산	마 산	진 해	14
'67. 5.19~21	6	마 산	2,513	1부 울산 2부 사천	1부 마산 2부 거창	1부 진해 2부 의령	13
'68. 5.17~19	7	진 주	2,690	1부 울산 2부 사천	1부 진해 2부 고성	1부 진주 2부 산청	14
'69. 5.16~18	8	진 해	2,843	1부 울산 2부 의령	1부 진해 2부 고성	1부 마산 2부 울주	14
'70. 5.31~6.3	9	울 산	6,332	마 산	울 산	진 해	25
'71. 6. 6~8	10	진 주	6,397	1부 울산 2부 창녕	1부 마산 2부 남해	1부 김해 2부 합천	24
'72	11	미 개 최					
'73. 5.24~26	12	마 산	4,336	종 목 별 시 상			22
'74. 5.23~25	13	진 해	2,679	종 목 별 시 상			10
'75. 5.10~12	14	마 산	3,548	1부 울산 2부 사천	1부 마산 2부 합천	1부 진해 2부 거제	25
'76. 5.14~16	15	울 산	2,701	1부 울산 2부 의령	1부 마산 2부 거창	1부 진해 2부 고성	24



개최년월일	회수	장 소	참 가 인 원	1 위	2 위	3 위	경 기 종 목
'77. 5.19~21	16	진 주	4,335	1부 마산 2부 창녕	1부 울산 2부 김해	1부 진해 2부 충무	21
'78. 5.20~22	17	진 해	5,985	울 산	마 산	진 해	25
'79. 5.17~19	18	마 산	5,132	울 산	진 해	마 산	15
'80. 5.17~19	19	울 산	4,132	1부 울산 2부 울주	1부 마산 2부 거창	1부 진주 2부 고성	16
'81. 5.16~18	20	진 주	4,497	1부 울산 2부 진양	1부 마산 2부 거창	1부 진주 2부 의령	15
'82	21	제63회 전국체전관계로 인한 미개최					
'83.10.27~29	22	마 산	4,260	1부 울산 2부 고성	1부 진주 2부 거제	1부 마산 2부 김해	12
'84. 5. 2~ 4	23	울 산	5,385	1부 울산 2부 창녕	1부 진주 2부 김해	1부 마산 2부 거창	14
'85. 5. 4~ 6	24	진 주	6,077	1부 마산 2부 고성	1부 울산 2부 울주	1부 진주 2부 사천	16
'86.10.14~16	25	진 해	6,161	1부 울산 2부 합천	1부 진주 2부 창녕	1부 마산 2부 의령	17
'87. 5. 7~ 9	26	마 산	6,445	1부 울산 2부 고성	1부 마산 2부 거제	1부 진주 2부 울주	15
'88.10.26~28	27	울 산	6,105	1부 울산 2부 밀양	1부 진주 2부 의령	1부 마산 2부 진양	17
'89.10.25~28	28	진 주	6,973	1부 울산 2부 고성	1부 마산 2부 통영	1부 진주 2부 김해	18
'90. 5.16~18	29	진 해	7,277	1부 울산 2부 울주	1부 마산 2부 고성	1부 창원시 2부 거창	19
'91. 5.25~28	30	마 산	7,380	1부 울산 2부 진양	1부 마산 2부 고성	1부 창원시 2부 거창	19
'92.10.27~29	31	울 산	7,707	1부 진주 2부 창원군	1부 울산시 2부 울주군	1부 마산 2부 사천	17
'93. 5.12~14	32	진 주	8,242	1부 울산 2부 고성	1부 진주시 2부 진양군	1부 마산시 2부 밀양군	19
'95. 5. 7~10	33	창 원	9,023	울 산 시	마 산 시	진 주 시	33
'95. 4.17~20	34	마 산	9,183	울 산 시	진 주 시	마 산 시	33
'96. 5. 7~10	35	울 산	8,857	울 산 시	마 산 시	진 주 시	34

개최년월일	회수	장소	참가인원	1위	2위	3위	경기종목
'97	36	제78회 전국체전관계로 인한 미개최					
'98.10.24~26	37	진주	6,010	진주시	마산시	창원시	23
'99. 4.24~26	38	창원	6,630	마산시	진주시	창원시	24
2000. 5.13~15	39	마산	7,817	마산시	창원시	진주시	25
2001. 5.11~13	40	통영	8,070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25

## 제2절 체육관련 단체

### 1. 거제시생활체육협의회

○ 소재지 : 신현읍 고현리 910번지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정되어 생활체육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지만 사회·경제적 여건상 침체되어 있었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생활체육 분야에서 종합적인 국가적 진흥전략을 1986년에 수립된 국민체육진흥장기 계획이며, 1990년에 수립된 국민생활체육진흥 호돌이 계획, 1993년에 수립된 국민생활체육진흥 5개년 계획, 1996년에 수립된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계획 등이 중요한 생활체육 추진 전략으로 체육 창립에 중요한 창립배경의 시초로서, 1990년도 생활체육 추진전략 변화의 중요한 특징으로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및 시·도 생활체육협의회가 성립되어, 그 동안 중앙정부 위주로 추진되어 오던 생활체육진흥 전략의 많은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인 생활체육협의회로 이관되어 1991년 2월에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설립되면서, 우리 시에서도 1991년 3월에 박종원을 초대 회장으로 하여 축구 등의 6개 연합회에 400여 명의 동호인으로 출발하여, 2001년 12월 현재 21개 연합단체에 1만2천여 명의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으며, 2000년 2월에 제3대 최명호 회장이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1) 연혁

- 1991. 거제시생활체육협의회 설립  
초대회장 박종원, 상임부회장 이유환, 이사 16명

- 1994. 2대회장 이유환 취임, 상임부회장 최명호, 부회장 옥삼수, 이사 25명
- 1998. 이유환 회장 사퇴
- 1999. 임시총회 개최(상임부회장 최명호 회장직무대리)  
신현읍 고현리 910번지 공설운동장 내로 사무실 이전
- 2000. 3대회장 최명호 취임. 이사 45명, 생활체육지도사 4명 채용, 배치(7월)  
정기총회 개최(회장임기 2년에서 4년으로 의결)

## 2) 주요 업무

지역 특성과 맞는 생활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활성화 하여 명랑하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다음의 사업을 한다.

- 지역 생활체육 동호인 및 종목별 연합회 관리, 지원
-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운영
- 생활체육교실 운영
-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 범국민 생활체육화 운동 전개
- 국민생활체육화 운동 전개
- 청소년 생활체육 연구 보급
- 기타 생활체육 진흥 및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3) 대회출전 경력

-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12회 출전
- 거제시 생활체육대회 2회 개최
- 1999년 영호남 친선교류 생활체육대회 5회 개최(거제 2회, 구례 3회)
- 전 시민을 상대로 생활체육교실 및 프로그램교실 운영
- 생활체육 동호인 주말리그 및 광장운영
- 종목별연합회 단위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 시행사 지원 및 협조

## 4) 역대회장 명단

대수	성 명	재 직 기 간	재직년수	중 요 업 적
1	박종원	1991~1993	2년	
2	이유환	1994~1998	4년	
3	최명호	1999~현재		

## 2. 거제시생활체육축구연합회

- 소재지 :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961-58
- 규 모 : 산하 30개 조기회 및 생활축구단
- 회 원 : 1,000여명

### 1) 유 래

거제시 전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조기축구회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지역축구 발전에 기여코자 창설

### 2) 주요업적

- 1998. 제1회 거제시장기 쟁탈 생활체육축구대회 개최
- 2000. 4. 16~4. 23 제1회 거제시생활체육대회(축구부분 개최)
- 2000. 5. 6~5. 7 제19회 국민생활전국연합회장기축구대회 경남예선 50대부 우승
- 2000. 7. 23 제1회 전국 생활체육대회 축구 50대부 경남대표 출전
- 2000. 10. 21~10. 23 제1회 경상남도지사기 쟁탈 생활체육축구대회
- 2000. 10. 29~11. 5 제2회 거제시장기 쟁탈 생활체육축구대회 개최

### 3) 역대회장 명단

대수	성 명	재 직 기 간	재직년수	중 요 업 적
1	옥영옥	1996. 1. 1~1997. 12. 31	2년	
2	원철희	1998. 1. 1~1999. 12. 31	2년	
3	옥삼수	2000. 1. 1~ 현 재		

## 3. 동부 체육동인회

- 소재지 : 경남 거제시 동부면 산양리 916-3
- 창립일 : 1992년 9월 15일
- 목 적 : 동부면 체육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지역민 유대강화

### 1) 주요업적 및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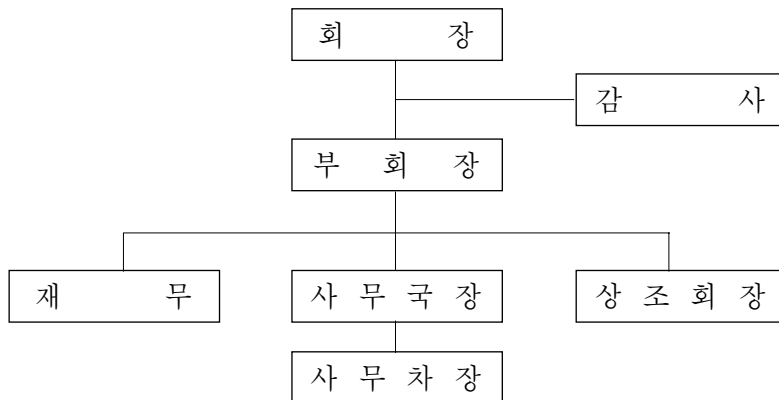
- 소년소녀가장 돕기(6회, 80만원)

- 자연환경 보호
- 장학증서 지급(4회, 90만원)
- 민민체육대회 추진

2) 역대 회장 명단

대 수	성 명	재 직 기 간	재직년수	중 요 업 적
1 대	조명삼	'92. 9. 15 ~'93. 12. 31	1년 6개월	• 불우이웃 돕기 2회 • 자연환경보호행사 4회
2 대	이기관	'94. 1. 1 ~'95. 12. 31	1년 6개월	• 민민체육대회 개최 • 불우이웃 돕기 2회
3 대	원신희	'96. 1. 1 ~'96. 12. 31	1년	• 불우이웃 돕기 2회 • 시민의날 행사 참가 • 자연보호행사 4회
4 대	박일복	'97. 1. 1 ~'97. 12. 31	1년	• 장학금 전달 2회 • 자연환경 행사 4회 • 체육행사 지원
5 대	진성관	'98. 1. 1 '99. 12. 31	2년	• 청년체육대회 2회 • 장학금 전달 2회 • 체육행사 지원
6 대	윤현규	2000.1.1~현재		

3) 기구표



#### 4. 건강동우회

- 소재지 : 경남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123번지
- 창립일 : 정회원 45명, 자문위원 5명

##### 1) 유 래

단결·성실·봉사의 이념을 바탕으로 1973년 1월 6일 회원 29명으로 창립하였으며, 초대회장으로 경남도교육위원을 지낸 박충길 회장이 취임한 이래, 지역사회에 크고 작은 지역행사를 주관하여 지역민 화합에 기여하였고, 매년 거제시 경로위안행사를 주관, 어버이에 대한 경로사상을 확립하였으며, 나아가 지역봉사활동에 솔선수범하여 참여한 결과 내무부장관상을 포함한 경상남도지사상, 거제군수상 등을 수여받기도 하였으며, 명실상부한 지역내의 최고 단체로서의 입지를 유지하고 있음.

##### 2) 주요업적 및 업무

- 1973년 1월 제1회 새마을축구대회를 창립하여 1987년까지 개최하였고, 거제군민 친선축구대회로 변경 개최하였다. 이후로도 각종 시단위, 읍단위 행사 기획 주관
- 1983년 자연보호 선포 제5주년 행사(경상남도지사 표창)
- 1989년부터 거제시민의날 행사 화합경기 기획 주관
- 1991년 경남도민상 우수단체상 수상(수상포상금 일백만원 불우이웃 돕기 기탁)
- 1995년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식(내무부장관 표창 수상)
- 매월 1월 15일 조기청소 실시(고현사거리 일대)
- 1996년부터 어버이날 경로위안행사 주관 매년 실시 중
- 기타 지역내의 각종 행사 참여 및 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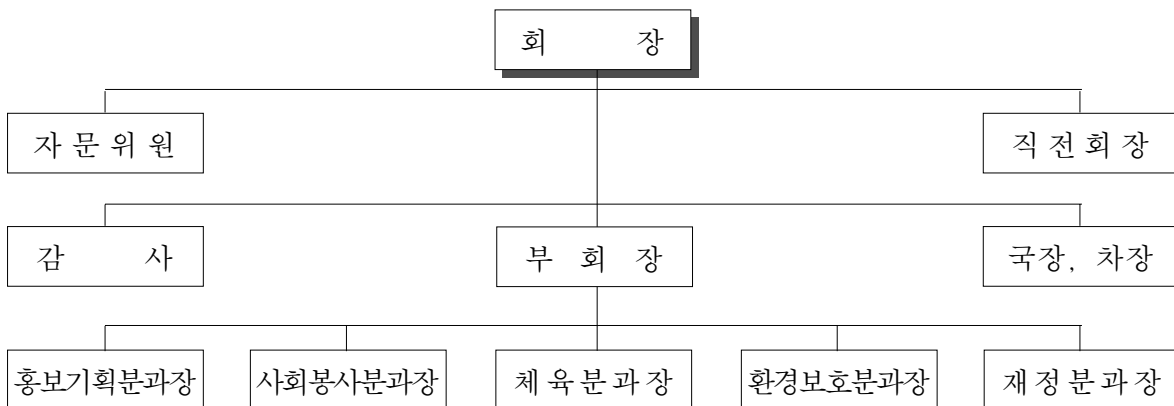
##### 3) 역대 회장명단

대 수	성 명	재직기간	재직년수	중 요 업 적
1대~2대	박충길	'73~'74	2년	• 본회 회가 및 회기제작 • 제1회 거제군 새마을축구대회 개최
2대~3대	정규정	'75~'77	3년	• 제1회 거제군 기관대항 축구대회 개최
4대~5대	신현학	'78~'79	2년	• 신현읍 승격잔치 체육대회 주관 • 전 국가대표 이차만 초청 간담회

대 수	성 명	재직기간	재직년수	중 요 업 적
6대	김신태	'80	6 월	• 부산 중앙조기회 초청경기
7대	김재언	'80	〃	• 부산 남포조기회 초청경기
8대~9대	이정준	'81~'82	2 년	• 거제군수 감사패 수상 • 광도 교포초청 친선축구대회 개최
10대 ~11대	이주리	'83~'84	2 년	• 동우회 부인회 발족 • 기관대항 축구대회 개최 • 새마을친선축구대회 개최 • 자연보호선포 5주년기념행사시 도지사 표창
12대 ~13대	원용규	'85~'86	2 년	• 새마을친선축구대회 개최 • 제14회 어버이날 경로위안행사 주관
14대	류학조	'87	1 년	• 4개 시·군공무원 체육행사 진행 • 경로위안잔치 • 자연보호선포식 거제군수 표창
15대	고영윤	'88~'89	2 년	• 모범운전자 체육대회 진행 • 경로위안잔치 국악공연 • 거제군민 친선축구대회 개최 • 독로문화제 화합경기 주관
16대	김상기	'90	1 년	• 독로문화제 화합행사 주관 • 경로위안잔치 • 자연보호선포식 거제군수 표창
17대	장영대	'91	1 년	• 경로잔치 • 신현읍장 감사패 수상 • 신현읍 청소년선도 야간순찰 • 경남도민상 우수단체상 수상
18대	류문학	'92	1 년	• 경로잔치 • 독로문화제 화합행사 주관
19대 ~20대	이정준	'93~'94	2 년	• 군정보고회 참석 • 경로위안잔치
21대 ~22대	윤준일	'95~'96	2 년	• 경로위안잔치 • 내무부장관 표창

대 수	성 명	재직기간	재직년수	중 요 업 적
23대	이 현 우	'97	1 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로위안잔치</li> <li>• 시민의날 행사 화합행사 주관</li> </ul>
24대 ~25대	이 정 준	'98~'99	2 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로위안잔치</li> <li>• 시민의날 행사 화합행사 주관</li> </ul>
26대	권 민 호	2000	현 재	

#### 4) 기구표



#### 5. 계룡정

- 소재지 :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산 59-10
- 창립일 : 정 1동 35평, 사례각 1동 30평, 과녁장부지 669평, 정사부지 502평

##### 1) 유 래

- 1975년 신봉권(辛奉權)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이석형, 김해정, 김숙용, 원길상, 양학용, 김재진, 권영현, 이승철 등 9명이 지금 계룡사 아래 과녁과 조(組)를 세우고, 정(亭)을 설립하였음.
- 통영 열무정 지철훈 사범으로부터 지도를 받았음.
- 1986년 현 위치인 체육공원으로 이전
- 1992년 정(亭)부지 1,171평과 정사건립 기금 1500만원을 거제시에 기부채납하였음.



2) 주요업적 및 업무

- 1993. 4. 정사준공 영남 남녀 궁도대회
- 1996. 6. 제1회 전국남녀 궁도대회
- 1997. 6. 제2회 전국남녀 궁도대회
- 1999. 6. 제3회 전국남녀 궁도대회

3) 역대 사두 명단

대수	성명	재직기간	재직년수	중요업적
1	이석형	1975~1976	2년	
2	박근서	1976~1978	"	
3	김숙용	1978~1980	"	
4	원길상	1981~1982	"	
5	김정권	1983~1984	2년	
6	김수명	1985~1986	"	
7	강채용	1987~1988	"	
8	성홍언	1989~1990	"	
9	김영은	1991~1992	"	
10	조유복	1993~1994	"	
11	권영헌	1995~1996	"	
12	윤형두	1997~1998	"	
13	임부귀	1999	"	
14	김태권	2000	1년	
15	반평원	2001~현재		

6. 금무정

- 소재지 :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 6-11

1) 연혁

- 1979년 6월 29일 평소 궁도장 설립에 뜻을 갖고 있던 서두원(徐斗元), 옥탁환

- (玉琢煥), 정영완(鄭永腕), 김종석(金鍾碩), 최문천(崔文千)씨 등이 추진위원회를 구성
- 1979년 2월 10일 지방문화재인 장목진객사(長木鎭客舍) 옆 부지를 매입, 과녁 2개를 설치하고, 가정사와 사대를 건립
  - 1979년 8월 10일 임시 궁도장 장소를 물색하여 장목면 장목리 뒷산으로 선정하고, 과녁을 세움.
  - 1979년 8월 16일 진주 남강정 김수성(金洙成)을 임시 사범으로 초청하여, 전사원 집궁
  - 1979년 8월 20일 정(亭) 명을 금무정(錦武亭)으로 정하다.
  - 1980년 3월 1일 대한궁도협회에 “금무정”으로 등록함.
  - 1980년 3월 28일 정(亭) 창립기념 인근 10개정 초청 궁도대회 개최함
  - 1997년 2월 15일 총회에서 정 이전을 결의함
  - 1997년 3월 5일 정(亭)부지 매각함.
  - 1997년 10월 25일 김한윤(金瀚允) 거제시 궁도협회장의 헌신적인 노력과 전사우들의 협찬으로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 6-11번지(속칭 농바위)에 신정사를 준공하고, 인근 14개 정 초청 궁도대회 개최함.

## 7. 연무정

- 소재지 : 거제시 거제면 서상리 201 동산체육공원 내
- 창립일 : 20평 콘크리트스라브조 사대와 3관혁

### 1) 유래

1970년대 홍학수, 하종묘, 김득계 등이 거제고을의 질청(동헌) 기성관이 내려다보이는 동산에, 옛 선조들께서 궁력을 익히고 궁술을 연마하였다는 위 소재지에 궁도장을 개설하여 민족문화 유산을 전수시키고, 정신수련 함양을 위한 도장(道場)을 20여평의 콘크리트스라브조 건물을 신축하고 과녁을 세워, 1983년 4월 3일 대한궁도협회 거제 연무정(궁도장) 개궁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출범

### 2) 주요업적 및 업무

평상시에 자기수련과 정신함양 증진을 위하고, 국난시에는 호국무예로서 선비들의 필수과목이었던 우리의 국궁(각궁)을 문화적 가치로 재인식 전수시키기 위해, 1999년 12

월부터 학생 궁도부 운영프로그램을 개설, 초·중·고등부 공사를 입문 수련시켜 2000년 6월 11일 경남 남부지역 궁도인을 초빙하여 시범 궁도대회 개최로 조상의 슬기와 예지가 깃든 문화유산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으며, 이후 학생궁도부 운영을 위한 교재용 책자 “우리의 활(각궁)을 배웁시다” 발간 배포하여, 궁도인구 저변확대에 최선을 다하였고, 생활체육 공간 속에 지역민의 체력증진 및 정신수련에 일익을 다하고 있음.

### 3) 역대 사두 명단

대수	성 명	재 직 기 간	재직년수	중 요 업 적
초대	홍학수	1976~1979	3년	궁도인 창립 주역
2	하종모	1980~1981	1년	궁도인 늘이기 주역
3	김득계	1982~1983	1년	1982년 부지조성 및 조경사업
4~5	”	1984~1998	4년	1983년 연무정 신축공사 준공
6	강정욱	1999~2000	1년	세대교체로 인한 재활성화 사업추진 연무정주변 조경사업 완료
7	정현조	2001~현재		

## 8. 벽파정

- 소재지 : 거제시 능포동 산 66-2
- 규 모 : 슬라브 2층
- 전 화 : 681-3456

### 1) 유 래

1970년 초에 옥포지구에 대우조선소가 들어설 무렵, 벽파정 초대 사두(射頭)을 지낸 김대규(金大奎)가 아주동 산 기슭에 관혁을 세우고, 경찰서장, 지방유지들과 습사를 하였다. 대우조선소 건설로 인해 사정(射亭)을 장승포 애광원 아래편에 옮겼으나, 주변 여건이 좋지 못해서 휴정(休亭)하였다.

1982년경 고성 칠성정에서 습사를 하던 박향호(朴鄉鎬)가 장승포농협 지점장으로 부임하여, 김대규와 궁도장을 세우자는 의견이 일치되었다. 김대규는 장소를 구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던 중 지한열(池漢烈)의 고구마 밭이 적지임을 알고 그곳을 선정하

였다. 그리고 사우를 모집하였다. 이운섭, 지한열, 원장량, 김무수, 이대기 등이 모임을 갖고, 관혁을 세우고 길을 만들어 노천에서 습사를 하였다. 사우가 하나, 둘 늘어 남으로 윗쪽에 있는 능포동 2231번지 전태휴 땅에 슬레이트로 20평 정도의 집을 짓고, 푸른 바다를 상징하는 벽파정(碧波亭)이라 하였다.

1987년 6월 15일 태풍으로 사정의 집이 크게 파손되어, 태풍피해 보상금으로 다시 정을 세웠다.

1993년 초 정 부지 소유자로부터 땅을 사던지 집을 내어 놓으라는 요구에 의해 정과 집을 내어주고, 무정(無亭)상태에 있었다. 그 후 다시 부지를 마련하여 김대규 사두(射頭)가 노력하여 정 건립에 대한 협찬금을 여러 곳으로부터 지원 받아 지한열의 산 66-2번지를 구하여 시의 지원금으로 슬라브 정을 건립하고 개궁(開弓) 대회를 가졌다.

회원 증가로 장소가 협소하여 장승포시의 협조로 다시 확장하여 현재의 건물을 짓게 되었다. 당시 원장량 사두의 노력이 컸다.

## 2) 행 사

- 1986년 5월 7일 제24회 옥포대첩 기념 궁도대회
- 1987년 7월 5일 제15회 군내 각정대항 궁도대회
- 1989년 10월 29일 제1회 독로문화제 각정대항 궁도대회
- 1991년 11월 3일 협회장기 친선 궁도대회
- 1992년 6월 9일 제30회 옥포대첩 기념 궁도대회
- 1993년 5월 8일 제31회 옥포대첩 기념 궁도대회
- 1994년 5월 14일 제32회 옥포대첩 기념 궁도대회

## 3) 역대임원

대수	사 두	부사두	사 범	총 무	재 임 기 간
1	김대규		박향호		1983~1984
2	이옥동		김철노	김무수	1985~1986
3	윤병수		김철노	김종봉	1987~1988
4	김대규		김철노	지한열	1989~1990
5	지한열		이대기	김철노	1991~1992
6	전태휴		이대기		1993~1994
7	김무수		지한열	옥일환	1995~1996
8	옥일환		전태휴		1997~1998

제10편 문화예술·체육

대수	사 두	부 사 두	사 범	총 무	재 임 기 간
9	윤승성		전태휴		1998
10	김대규		원장량		1998~1999. 4
11	윤병길	원장량	원장량		1999. 4
12	지한열	원장량	문남주	원재희	1999. 5~2000. 12. 31
13	지한열	나영철 안정홍	이봉록 김상원	김석종	2001. 1.17